

# 국립국어원 소개

## 설립 목적

- ▶ 우리나라의 어문 전반에 관련된 연구를 주관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일을 함.
  - 어문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연구하여 우리나라의 어문 정책 기반을 조성함.
  - 어문 규정과 관련한 업무를 주관함.
  - 국어사전을 편찬하여 언어생활의 표준화와 교양 있는 언어생활의 기초를 다짐.
  - 각종 어문 관련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국어 유산의 체계적인 보전 및 국어 발전의 발판을 마련함.
  - 한국어를 국외에 널리 알려 한국어의 국제적인 위상을 강화함.

## 조직



원 장	기획 관리과	서무, 인사, 예산·회계 및 결산, 청사와 시설 관리, 주요 사업 계획의 수립·조정·분석, 국회 관련 업무, 감사 및 사경 업무 등
	어문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어문연구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어·언어 정책 관련 법·제도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li> <li>■ 국어·언어 관련 정책 통계 생성 및 수집</li> <li>■ 언어와 문자, 언어 소의 계층을 위한 특수언어 등에 대한 연구</li> <li>■ 어문 규범 관련 연구 및 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li> <li>■ 국어의 시대적 변천, 국어의 지역적·계층적 변이에 대한 연구 및 사회 구성원 간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li> <li>■ 국어 분야 학술 교류에 관한 사항</li> <li>■ 남북 언어 통일 및 동질화를 위한 연구</li> <li>■ 세계 언어 연구 기관 등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li> </ul> </li> <li>◆ <b>언어정보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어와 언어 정보화 관련 연구·실태조사</li> <li>■ 언어와 문자 관련 정보 자원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li> <li>■ 국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발간 등에 관한 사항</li> <li>■ 언어와 문자의 전산 처리 규격, 표준화에 대한 연구</li> <li>■ 자연어 처리 기반의 사전 편찬 및 분류 체계 연구</li> <li>■ 지역어 발굴 및 연구·조사</li> <li>■ 국어·언어·문자 관련 문헌·자료 등의 수집·관리·연구·조사·발간 등에 관한 사항</li> <li>■ 국어 관련 홍보물 등의 제작·보급에 관한 사항</li> <li>■ 전산실 및 자료실의 운영</li> <li>■ 언어 정보화 분야의 업무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li> </ul> </li> </ul>
	공공언어 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 기관의 언어 감수에 관한 사항</li> <li>■ 신문·방송·인터넷 언어의 공공성 향상에 관한 사항</li> <li>■ 전문 용어 정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국민의 국어 능력·국어 의식·국어 사용 환경 등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li> <li>■ 올바른 국어의 보급 및 언어 순화 활동에 관한 사항</li> <li>■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에 관한 사항</li> </ul>
	교육 진흥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국어능력발전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어문화학교 운영</li> <li>■ 국어 능력 검정 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li> <li>■ 국어 관련 교육 연수 발전 계획의 수립 및 교육 연수 과정의 개발</li> <li>■ 국어문화학교 및 국어 전문 교육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li> <li>■ 국어책임관 등 국어 분야 종사자에 대한 국어 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li> <li>■ 신문·방송·인터넷 등의 분야 종사자에 대한 국어 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li> <li>■ 국어문화원 교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li> </ul> </li> <li>◆ <b>한국어교육진흥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사업</li> <li>■ 한국어 관련 교육 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 연수 과정의 개발</li> <li>■ 한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li> <li>■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li> <li>■ 한국어 교육 기관의 교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한국어 교육 과정, 교재 및 자료 등의 개발·보급·운영에 관한 사항</li> <li>■ 한국어 보급 기관 간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li> <li>■ 한국어 교원 국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li> </ul> </li> </ul>

### (1) '표준국어대사전' 온라인 검색 서비스 및 국어 관련 정보 제공

-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에서 '표준국어대사전', '국어 연감' 등의 발간물을 비롯한 각종 국어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어문 규정, 정기 간행물, 연구 보고서, 소장 자료, 국어 논저, 기사, 공개 자료실 등).

### (2) 가나다 전화(1599-9979, 02-771-9909)

- 상담 시간: 월~금, 09:00~18:00, 전화 상담원이 국어 어문 규범을 비롯한 국어 관련 질문에 응답.
- 물고 답하기: 국립국어원 누리집 게시판에서 국어 관련 상담.

### (3) 국어 정보지 발간·배포

- 계간지 '새국어생활': 국어 생활 전반의 관심거리를 다루어, 국민의 국어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넓히고자 발간·배포함.
- 온라인 소식지 '쉽표, 마침표': 국어 관련 소식 제공과 국어원 활동 홍보를 위해 달마다 발간하여 전자 우편으로 발송함. 정기 수신 요청: [news@korean.go.kr](mailto:news@korean.go.kr)로.

### (4)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http://www.malteo.net>)

- 국립국어원에서는 1991년 개원 이래 일본어 투 용어, 어려운 한자어, 서양식 외래어 등을 순화해 왔음. 2003년 '우리말 순화 자료집(합본)' 발간 이후, 2004년 7월부터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 중.

### (5) 디지털 한글 박물관(<http://www.hangeulmuseum.org>)

- 한글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한글 자료 통합 관리 체계.
- 한글문화 유산을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체계화하고 전문가들의 해설을 덧붙인 디지털 전시관(역사관, 조형 예술관, 학술 정보관, 교육 문예관, 미래관, 한글 생활관) 운영.

# 국어문화학교 소개

## 운영 목적

국어전문교육과정은 공무원을 비롯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어 사용 능력을 키워 줌으로써,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과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서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교육 과정 안내

### (1) 국어 전문 교육 과정(원내 국어문화학교)

#### (가) 공무원 및 일반인반

- 신청 방법: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 참조
- 신청 자격: 직업·연령 제한 없음
- 신청 문의: 전화 (02)2669-9729, 9662 / 전송 (02)2669-9787
  - \* 공무원의 경우, 교육 시간 35시간 인정
  - \* 국립국어원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 개설 과목: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문장 바르게 쓰기, 글쓰기 지도,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이해와 훈련, 우리말 다듬기, 한글의 제자 원리, 시청각 학습 등

#### (나) 교사반

- 교육 기간: 동계, 하계 방학 중
- 신청 방법: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
- 신청 자격: 초·중·고 교사

- 신청 문의: 전화 (02)2669-9729, 9662 / 전송 (02)2669-9787
- \*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국립국어원이 교사 직무 연수 기관으로 지정받음
- \* 교육 시간 30시간, 교육 점수 2점 인정
- \* 국립국어원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 개설 과목
  - 어문 규범: 한글 맞춤법 이론과 실제, 구별해야 할 말, 띄어쓰기,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 글을 바르게 쓰기: 문장 바로 쓰기, 우리말 다듬기, 학교 생활문 쓰기, 국어 논술의 이해
  - 말을 바르게 하기: 청소년과의 대화법 등

## (2)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 신청 기간: 수강하고 싶은 달의 전월 15일까지 신청
- 신청 방법: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
- 신청 요건: 공공 기관, 교육 기관, 기업체 등, 수강 인원 30명 이상
- 신청 가능 지역: 전국 어디나 가능
- 신청 문의: 전화 (02)2669-9752 / 전송 (02)2669-9787
- 개설 과목
  - 어문 규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 글을 바르게 쓰기: 문장 바로 쓰기, 우리말 다듬기 등
  - 말을 바르게 하기: 표준 발음법, 효과적인 말하기 등
  - 언어와 문화: 언어 예절, 우리말과 국어 문화 등
    - \* 강의료 및 교재는 국립국어원에서 제공

## (3)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을 통하여 2008년부터는 ‘한글 맞춤법’ 강의를, 2009년부터는 ‘공문서 바로 쓰기’, ‘국어 순화’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목 차



1.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1(개괄) | 정호성 ..... 1
2.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2(연습) | 박종덕 ..... 35
3. 띄어쓰기 | 유하라 ..... 47
4. 외래어 표기 | 정희원 ..... 65
5. 어휘 교열 | 여규병 ..... 89
6. 문장 표현의 교열 | 김철호 ..... 129



##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1(개괄)

정호성 | 국립국어원 국어능력발전과장



#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1(개괄)

정호성 | 국립국어원 국어능력발전과장

한국어의 문자인 한글은 배우기도 쉽고 활용하기도 쉬운 문자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 표기에서는 어문 규범을 지키지 않은 표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개별 문자를 익히기는 쉽지만 한국어의 어문 규범에 맞게 쓰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문 규범의 오류 가운데에는 표준어와 지역어를 혼동한 경우도 있고 (감기가 {나왔다 / \*나쌌다}), 한글 표기가 잘못된 경우도 있다. (은 세상이 눈으로 {뵈었다 / \*뵈혔다}). 그리고 일정한 규정에 따라 적어야 하는 외래어의 표기도 사람마다 달리 적어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르누아르 / \*르느와르 / \*르누와르) 또한 한국어의 인명·지명 등을 로마자로 표기할 때도 아주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철수: Cheolsu / \*Chulsu / \*Chulsoo, 부산: Busan / \*Pusan)

이에 한국어의 어문 규범에 어떤 것이 있으며, 각각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한다. 특히 어문 규범 가운데 한글 맞춤법의 근간이 되는 원칙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후, 한글 맞춤법 안에서도 흔히들 혼란스러워하는 어형을 중심으로 한글 맞춤법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그런 다음에 표준어의 영역에서도 일반 언중들이 혼동하거나 흔히 잘못 쓰는 예들을 살펴보기로 한다.<sup>1)</sup>

1) 한국어 어문 규범의 자세한 내용과 해설은 국립국어원의 누리집([www.korean.go.kr](http://www.korean.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 I. 한국어 어문 규범의 종류

## 1. 표준어 규정

### 1) 표준어 사정 원칙

○ 표준어 규정이란?

-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여러 형태의 말 가운데 어떤 것을 표준으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을 정한 원칙.

○ 구성: 총칙,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어휘 선택에 따른 표준어 규정 등 모두 26항

○ 총칙

- 제1항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2항 외래어는 따로 사정한다.

○ 예(지역어 → 표준어)

부추/분추/정구지/소풀/솔/졸/줄/세우리/염지	→ 부추
정지/떡/부석/부엌/부수께/정제간	→ 부엌
측간/칙간/정낭/통시/통구시/변소/뺨소	→ 변소
소데끼/가랑밥/가마티/가말치/누렁이/누룽지/깜밥	→ 누룽지
베개/머개/비게/머게/보개	→ 베개
무꾸/무수/무시/무유/무/무이/남뻘	→ 무

### 2) 표준 발음법

○ 구성: 총칙, 자모음의 발음, 음의 길이, 받침의 발음, 음의 동화, 경음화, 음의 첨가 등 모두 30항

○ 총칙

- 제1항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예: 맛있다[마덜따/마실따], 멋있다[머덜따/머실따]

눈:보라, 말:씨, 밤:나무  
 밟는[밤:는], 읽고[일꼬], 늙지[늑찌]  
 색연필[생년필], 눈요기[눈노기], 금융[금냥/그똥]  
 옷 입다[온넙따], 잘 입다[잘립따]

## 2. 한글 맞춤법

- 구성: 총칙, 자모, 소리에 관한 것, 형태에 관한 것, 띄어쓰기, 그 밖의 것 등 모두 57항. 부록으로 '문장 부호' 수록
- 총칙
  -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 제3항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 예: <한글 맞춤법> 며칠/\*몇일, 아니요/아니오, 만들/\*만듬, 설거지/\*설겜이  
 웬지/\*웬지, 돼요/\*되요, 가져라/\*갓어라, 나무꾼/\*나뭇꾼  
 <띄어쓰기> 김철수/\*김 철수, 떠났는지 몰랐다/떠난 지 한 달 지났다.  
 형만큼/형 하는 만큼, 나만의 비밀/떠난 지 두 달 만에  
 비 오는데 뭐 하고 있니? / 비 오는 데가 없다  
 <부록—문장부호> 마침표, 쉼표, 따옴표, 묶음표, 이음표, 드리냄표, 안드리냄표  
 2000년 10월 7일/2000. 10. 7., '99. 3. 1./'00. 3. 1. ....

## 3. 외래어 표기법

- 구성: 표기의 기본 원칙, 표기 일람표, 표기 세칙, 인명·지명 표기의 원칙
- 표기의 기본 원칙
  -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 파일/\*화일, 패밀리/\*웨미리, 플래시/\*후레쉬,  
 프라이/\*후라이, 프리지어/\*후리지어
  - 제2항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 콘서트/\*컨서트, 콘텐츠/\*컨텐츠 // 컨디션/\*콘디션, 컨트롤/\*콘트롤
  -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 슈퍼마켓/\*수퍼마켓, 핀셋/\*핀셋, 워크숍/\*워크샵, 케이크/\*케익/\*케이
-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파리/\*파리, 카페/\*카페, 콩트/\*콩뜨 // 예외: 빵, 낚, 뼈라, 빨치산, 히로뽕
-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 카메라/\*캐머러, 라디오/\*레이디오

○ 그 밖의 예

주스/\*쥬스, 레저/\*레저, 초콜릿/\*초콜릿/\*초콜렛, 텔레비전/\*텔레비전  
 윈도/\*윈도우, 옐로/\*옐로우, 하이라이트/\*하일라이트, 로터리/\*로타리  
 바흐/\*바하, 고희/\*고호, 르누아르/\*르누와르/\*르누와르, 프랑수아/\*프랑수와

#### 4.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 구성: 표기의 기본 원칙, 표기 일람, 표기상의 유의점 등 모두 12항
- 표기의 기본 원칙
  - 제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2항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 표기 일람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ㅞ	ㅟ	ㅠ	ㅢ	ㅤ
a	eo	o	u	eu	i	ae	e	oe	wi					
ㅟ	ㅡ	ㅣ	ㅥ	ㅧ	ㅨ	ㅩ	ㅪ	ㅫ	ㅬ	ㅭ	ㅮ	ㅯ	ㅰ	ㅱ
ya	yeo	yo	yu	yae	ye	wa	wae	wo	we	ui				

<자음>

ㄱ	ㄲ	ㅋ	ㄷ	ㄸ	ㅌ	ㅍ	ㅂ	ㅃ	ㅍ	
g, k	kk	k	d, t	tt	t	b, p	pp	p		
ㅈ	ㅉ	ㅊ	ㅅ	ㅆ	ㅎ	ㄴ	ㅁ	ㅇ	ㄹ	
j	jj	ch	s	ss	h	n	m	ng	r, l	

○ 표기 예

독립문[동님문] Dongnimmun    속리산[송니산] Songnisan  
 백마[뱅마] Baengma            대관령[대괄령] Daegwallyeong

왕십리[왕심니] Wangsimni      종로[종노] Jongno  
 팔당[팔땅] Paldang              학여울[항녀울] Hangnyeoul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Gangwon-do Gangneung-si Chodang-dong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Seoul-si Seongbuk-gu Seokgwan-dong  
 경포대 해돋이 Gyeongpodae haedoji

※ 다만,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

목호[무코] Mukho                  집현전[지편전] Jiphyeonjeon  
 식혜[시케이] sikhye              낙화암[나화암] Nakhwa-am

※ (예외)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한글 표기	발음	음운 표기	틀린 표기
한복남	[한봉남]	Han Boknam	*Han Bongnam
한봉남		Han Bongnam	—
홍빛나	[홍빈나]	Hong Bitna Hong Bit-na	*Hong Binna

## II. ‘한글 맞춤법’의 원리

한글 맞춤법의 원리는 한글 맞춤법 제1항에 나타나 있으므로 이를 자세히 살펴볼  
 도록 한다.

<한글 맞춤법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sup>1</sup>를 소리대로 적되<sup>2</sup>, 어법에 맞도록<sup>3</sup> 함을 원칙으로  
 한다.

- (1)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한글로 올바르게 표기하는 방법이다. 즉 그 표기의 대상이 표준어란 것이다. 표준어 이외의 지역어도 적을 수는 있지만 완벽히 다 적을 수는 없다. 지역어에는 현행 한글 맞춤법으로 적을 수 없는 발음이 있기 때문이다. 예로, 강원도 영동 지역에서는 물고기의 내장을 [yil]이라 부르지만 이는 한글로 마땅히 적기가 어렵다. 또한 제주 지역어에서는 ‘닭이, 닭으로’를 [dalgi], [dalgiro]가 아니라 [dalgi], [dalgiro]로 발음하는데, 이는 옛말에서 쓰이던 소위 아래 아 ‘·’가 나타내던 소리이므로 현대국어의 ‘ㄷ’와

는 차이가 있는 발음이다. 이 또한 현대국어의 정서법으로는 제대로 표기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현행 어문 규범의 한글 맞춤법은 우리말의 모든 지역어(방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어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2) 표준어를 표기하는 원리는 두 가지다. 먼저,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것이다.(음운론적 표기) ‘[아버지]’는 ‘아버지’로 적고 ‘[하늘]’는 ‘하늘’로 적는다. ‘[꼬치]’, ‘[꼰만]’, ‘[꼬또]’로 소리 나는 표준어는 ‘꼬치’, ‘꼰만’, ‘꼰또/꼬또’ 등으로 적을 수 있다.

(3) 그러나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만 적을 경우 ‘花’를 의미하는 하나의 단어가 ‘꼬츠/꼰/꼰’과 같이 여러 형태로 적게 되어 언어 생활이 혼란스러워지고 가독성도 떨어지게 된다. 하지만 ‘꽃’으로 형태를 고정하여 ‘꽃이’, ‘꽃만’, ‘꽃도’와 같이 적으면 의미를 파악하기가 쉬울 것이다.(형태론적 표기)

- ① 꼬치, 꼬츰, 꼬또, 꼰만 / 감씨, 감썰, 감또, 감만 / 떼기, 떼글, 떡또, 떡만
- ② 꽃이, 꽃을, 꽃도, 꽃만 / 값이, 값을, 값도, 값만 / 떡이, 떡을, 떡도, 떡만

소리 나는 대로만 적기로 한다면 [반드시]로 소리나는 ‘반듯이[直]’와 ‘반드시[必]’의 구별이 표기상 불가능하지만, ‘반듯하다’와의 관련성을 따져 ‘반듯이’와 ‘반드시’로 나누어 적으면 표기에 따라 의미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어법에 맞도록 함’이란 단어의 원형을 고려하여 표기에 반영한다는 의미이다.

즉, 한글 맞춤법의 원칙은 어떤 단어의 원형을 고려하여, 그 원형을 밝힐 수 있으면 그 원형을 살려 쓰고 그 원형을 밝힐 수 없으면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을 표기할 때 그 모양과 의미가 유사한 다른 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서로 관련지을 수 있다면, 즉 원형이 있다면 그 원형을 살려 쓰고, 그렇지 않다면 소리 나는 대로 쓰라는 것이다.

예컨대, [깨끄시]라는 말은 ‘깨끗하다[깨끄타다]’와 관련이 있으므로, ‘깨끄시’로 적지 않고 그 원형인 ‘깨끗’을 고려하여 ‘깨끗이, 깨끗하다’로 적는다. 그러나 [슬며시]는 “\*슬멋하다, \*슬멋슬멋” 등 관련 있는 말도 없고 현대국어에서 그 원형을 밝히기도 힘들므로 “\*슬멋이”가 아니라 발음 나는 대로 ‘슬며시’로 적으면 된다.

또한 ‘나이가 [지그시] 든 노인이 눈을 [지그시] 감았다.’에서 첫 번째의 [지그시]

는 ‘나이가 비교적 많아 듬직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지긋하다’가 있으므로 그 원형을 밝혀 ‘지긋이’로 적는다. 그러나 ‘슬며시 힘을 주는 모양’을 의미하는 두 번째의 [지그시]는 같은 의미로 쓰이는 ‘지긋지긋, 지긋하다’와 같은 관련 단어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 말은 그 원형을 고려하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지그시’로 적는 것이 원칙이다.

### III. 한글 맞춤법 익히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글 맞춤법은 한국어의 문법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일정한 원리를 지니는 표기 체계이다. 여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 예들을 통해 한글 맞춤법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1. 같아/\*갈애(한글 맞춤법 제15항)

☞ “좋을 것 같아”의 ‘같아’를 [\*가태]로 발음하기도 하지만 어간 ‘같-’에 어미 ‘-아’가 결합된 것이므로 [\*가태]로 발음하는 것은 잘못이다. ‘같아’로 적고 [가타]로 발음해야 한다. ‘같아, 같아요, 같았어, 같았다’와 같이 활용한다.

☞ 바라/\*바래

#### 2. 거친/\*거칠은(한글 맞춤법 제18항)

☞ ‘ㄹ’ 받침을 가진 용언에 관형형 어미가 연결되면 ‘ㄹ’이 탈락되는 것이 원칙이다. \*거칠은, \*날으는, \*눅슬은’이 아니라 ‘거친, 나는, 눅슨’으로 적어야 한다. \*날으는, \*거칠은’ 등이 가능하려면 \*놀이터에서 놀으는’, \*칼을 갈으는’ 등도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놀으는, \*갈으는’은 잘못된 활용형이다.

☞ 낫설다(→낫선), 내걸다(→내건), 절다(→전) ……

- ㄱ. 하늘을 {나는/\*날으는} 비행기, 하늘을 {날/\*날을} 것 같은 기분
- ㄴ. {거친/\*거칠은} 피부, 피부가 {거치니/\*거칠으니} 로션을 발라라.
- ㄷ. 옥외에 {내건/\*내걸은} 현수막, 현수막을 {내거니/\*내걸으니} …
- ㄹ. {눅슨/\*눅슬은} 철모, 철모가 {눅스니/\*눅슬으니} …

※ 그러나 ‘끓은 달걀’을 \*곤 달걀로 줄여 쓰는 것은 옳지 않다. ‘끓은’의 기본형

은 ‘끓다’(속이 물크러져 상하다)이고 이 말의 ‘ㄹ’ 받침은 관형형 어미 앞에서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불은 국수’, ‘홍수로 불은 강물’의 ‘불은’은 기본형이 ‘붙다’(불에 젖어 부피가 커지다, 분량이나 수효가 많아지다)이므로 ‘\*분 국수’가 될 수 없다. 이는 ㄷ불규칙 용언인 ‘듣다, 신다’가 ‘어제 들은 음악’, ‘짐을 실은 마차’ 등과 같이 활용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붙다’는 ‘붙고, 붙지, 붙게, 붙으면, 붙어서, 붙었다, 불은, 불을...’과 같이 활용한다.

### 3. 금세/금새

☞ ‘금세’는 ‘금시(今時)+에’가 줄어든 말이므로 ‘금세’로 적어야 한다. ‘어느새, 요새’를 생각하여 ‘\*금새’라고 적지만 이는 잘못이다. ‘어느새, 요새, 밤새’의 ‘새’는 ‘사이’가 줄어든 것이다.

- ㄱ. 효과가 금세 나타났다. / 소문이 금세 퍼졌다.
- ㄴ. 그 조그맣던 꼬마가 어느새 이렇게 컸구나. / 밤새 비가 내렸나 봐.

### 4. 깨끗이/깨끗히(한글 맞춤법 제51항)

☞ 한글 맞춤법 제51항: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 ㄱ. ‘-이’로 적는 경우

‘이’로만 나는 것: 가뜩이, 고즈넉이, 그윽이, 깊숙이, 끔찍이, 길쭉이, 멀찍이, 나직이, 느직이, 두둑이 .....

ㅅ 받침 뒤: 깎듯이, 깨끗이, 느긋이, 둥긋이, 따듯이, 반듯이, 버젓이, 산뜻이, 의젓이 .....

형용사 뒤: 가까이, 가벼이, 고이, 괴로이, 날카로이, 쉬이, 새삼스레 .....

같이, 굳이, 많이, 적이, 헛되이 .....

부사 뒤: 꼼꼼이, 더욱이, 옳은이, 일찍이 .....

첩어 뒤: 간간이, 접접이, 번번이, 일일이, 집집이, 틈틈이 .....

#### ㄴ. ‘-히’로 적는 경우

‘히’로만 나는 것: 극히, 급히, 딱히, 속히, 익히, 작히, 족히, 특히, 엄격히, 간곡히, 까마득히, 머쓱히, 막막히, 똑똑히 .....

‘이, 히’로 나는 것: 솔직히, 가만히, 간편히, 나른히, 무단히, 각별히, 소홀히, 쓸쓸히, 정결히, 과감히, 꼼꼼히, 심히, 열심히, 급급히, 답답히, 섭섭히, 공평히, 능히, 당당히, 분명히, 상당히, 조용히, 간소히, 고요히, 도저히 .....

5. 나무꾼/나뭇꾼/나뭇꾼(한글 맞춤법 제54항)

☞ ‘나무꾼’이 옳은 표기다. ‘뉘시꾼’, ‘사기꾼’ 등도 마찬가지다. ‘때깎’, ‘빚깎’, ‘성깎’ 등도 ‘\*땃깎’, ‘\*빚깎’, ‘\*성깎’ 등으로 적어서는 안 된다. 단 ‘젓깎’은 ‘\*젓깎’이 아니라 ‘젓갈’이 옳다. ☞ **심부름꾼, 익살꾼, 일꾼, 장꾼, 장난꾼, 지게꾼...**

6. 늘이다/늘리다(한글 맞춤법 제57항)

☞ ‘늘이다’는 ‘힘을 가해서 본디의 길이보다 더 길어지게 하다’는 의미이고, ‘늘리다’는 ‘늘게 하다’는 의미로 각각 ‘고무줄을 늘이다’, ‘용수철을 늘이다’와 ‘재산을 늘리다’, ‘실력을 늘리다’와 같이 쓰인다. ‘바지를 {늘이다/늘리다}’의 경우는 옷감을 덧대어서 길게 하는 경우는 ‘늘리다’이지만 탄력성이 있는 바지를 당겨서 길게 한다는 뜻일 때는 ‘늘이다’가 된다. ‘수출량, 강의 시간’ 등은 ‘늘리다’와 함께 쓰일 수 있다.

7. 더욱이/\*더우기(한글 맞춤법 제25항)

☞ ‘더욱이’, ‘일찍이’, ‘오뚝이’는 ‘더욱’, ‘일찍’, ‘오뚝’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더우기’, ‘\*일찌기’, ‘\*오뚜기’로 적지 않는다. ‘\*일찌기 문명을 꽃 피운 나라’와 ‘오늘은 일찍이 일어났다’를 구분하는 일이 있지만 어느 경우나 ‘일찍이’로 적는다. 그러나 ‘반듯하다’와 관련이 있는 ‘반듯이’와, 관련이 없는 ‘반드시[必]’는 구분하여 적는다.

8. 덮이다/\*덮히다

☞ 동사 ‘덮다, 짚다’의 피동형은 ‘덮이다, 짚이다’이다. 형용사 ‘높다’의 사동형은 ‘높이다’가 된다. ‘-히-’는 주로 ‘ㄱ’, ‘ㅋ’, ‘ㄹ’, ‘ㅂ’ 받침을 가진 말에 결합한다.  
☞ **먹히다, 막히다 / 굵히다, 얇히다 / 넓히다, 밟히다 / 굽히다, 입히다, 잡히다**

9. 되라/꽤라(한글 맞춤법 제35항)

☞ ‘되라’와 ‘꽤라’의 차이는 전자는 ‘되- + -(으)라’이고 후자는 ‘되- + -어라’라는 점이다. ‘되-’에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되어 줄어드는 경우 ‘꽤’가 된다. “어머니는 착한 사람이 되라고(되- + -(으)라고) 말씀하셨다”와 “성실한 사람이 꽤라(되- + -어라)”와 같이 구분된다. 한편 ㄷ.과 같이 의고체의

명령형인 ‘-(으)라’가 연결되면 ‘되라’와 같은 형태도 가능하다.

‘되다’의 활용형 ‘되어’가 ‘돼’로 줄어드는 것은 ‘하다’의 활용형 ‘하여’가 ‘해’로 줄어드는 것과 똑같은 환경이다. 그러므로 ‘하다’의 활용형 ‘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면 ‘돼(되어)’가 가능하다. **습 피다, 째다, 뇌다, 되다, 뵈다(‘모이다’의 준말), 뵈다, 쇠다, 씌다, 짚다, 찍다**

- ㄱ. 되지 못한 것은 하지 말아야 돼(되- + -어). ※ 해  
 돼먹지 못한 놈 / 막돼먹은 인간은 되지 마라. / ※ 해 먹다 / 하지 마라  
 그가 과연 회장이 될까/되었어(됐어)/되었네(됐네). ※ 할까 / 했어 / 했네  
 후보 가운데 누가 회장으로 선정되어도(선정돼도) 좋다. ※ 해도  
 얼굴이 안돼 보인다. / 그 사람 참 안됐군. ※ 했군  
 공부 더 해도 돼요? /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 해요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돼라). ※ 해라
- ㄴ. 어머니께서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하라고
- ㄷ. 공부를 열심히 하라. 훌륭한 사람이 되라(되- + -(으)라). ※ 하라
- ㄹ. 선생님, 내일 뵈어요/뵈요/\*뵈요.  
 이번 명절은 고향에서 쇠어요/썰요/\*썰요?

### 10. 디뵈다/\*딛었다(한글 맞춤법 제32항)

☞ ‘딛다’는 ‘디디다’의 준말로, ‘딛고, 딛자, 딛게’처럼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는 연결이 될 수 있지만 “딛어”, “딛었다”, “딛으며”, “딛어서”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는 연결이 될 수 없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는 ‘디디다’와만 결합하여 ‘디디어(디더), 디디었다(디뵈다)’로 활용한다. ‘가지다/갖다’도 이와 마찬가지로.

기본형어미	-고	-지	-니?(의문)	-어/아	-으니	-(으)며	-(으)ㄴ
디디다	디디고	디디지	디디니?	디디어(디더)	디디니	디디며	디딘
딛다	딛고	딛지	딛니?	*딛어	*딛으니	*딛으며	*딛은
가지다	가지고	가지지	가지니?	가지어(가져)	가지니	가지며	가진
갖다	갖고	갖지	갖니?	*갖어/*갖어	*갖으니	*갖으며	*갖은

이와 조금 다른 것으로 ‘머무르다/머물다’, ‘서투르다/서툴다’, ‘서두르다/서둘다’ 등이 있다. ‘머물다, 서툴다, 서둘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중에서 ‘-어’와만

결합하지 못한다.

기본형\어미	-고	-지	-니?(의문)	-어/아	-(으)니	-(으)며	-(으)ㄴ
머무르다	머무르고	머무르지	머무르니?	머물러	머무르니	머무르며	머무른
머물다	머물고	머물지	머무니?	*머물어	머무니	머물며	머문
서투르다	서투르고	서투르지	서투르니?	서툴러	서투르니	서투르며	서투른
서툴다	서툴고	서툴지	서투니?	*서툴어	서투니	서툴며	서툰

### 11. 따라/\*떨어/\*따뤄(한글 맞춤법 제18항)

☞ ‘물을 잔에 □□ 먹다’의 □에 들어갈 말은 ‘따라’이다. 이 말의 기본형은 ‘따르다’이므로 \*‘떨어’나 \*‘따뤄’가 될 수는 없다. ‘따르다’는 ‘따라라(따르- + -어라)’, ‘따라서(따르- + -어서)’, ‘따랐다(따르- + -었다)’와 같이 활용한다. ‘(시험을) 치르다’도 ‘치러(치르- + -어)’, ‘치렀다(치르- + -었다)’처럼 된다. 일부에서는 \*‘치루고, \*치뤄, \*치뤘다’로, 심지어는 \*‘칠렀다’처럼 쓰기도 하나 이들은 모두 잘못이다. 또한 ‘김치를 담갔다’를 \*‘김치를 담꿨다’로, ‘문을 잠갔다’를 \*‘문을 잠꿨다’로 잘못 쓰는 경우가 많다. ‘담그다, 잠그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되면 ‘담그- + -어/아 → 담가’, ‘잠그- + -어/아 → 잠가’와 같이 활용하므로 ‘문을 잠가라, 김치를 담가 먹었다’와 같이 적어야 한다.

- ① 시험을 {치르/\*치룬} 후 집안에 잔치를 {치렀다/\*치뤘다}.
- ② 어머니께서 김치를 {담가/\*담뤄/\*담아} 주셔서 우리는 {담글/\*담꿨/\*담을} 필요가 없었다.  
며칠 전에 김치를 {담갔다/\*담꿨다/\*담졌다}.
- ③ 현관문을 먼저 {잠근/\*잠군} 후에 안방 문을 {잠가라/\*잠뤄라}.

### 12. -르걸/\*-르꼴

☞ 국어에서는 ‘집에 갈까?’, ‘불의에 굴복할쏘냐’, ‘어찌 할꼬’의 ‘-르까’, ‘-르쏘냐’, ‘-르꼬’의 세 어미만 된소리로 표기한다. 이 이외에 된소리로 표기하는 어미는 없다.

- ① 이미 {도착했을걸/\*도착했을꼴}.
- ② 내가 해 {즐게/\*즐꼴}.
- ③ 점심은 국수를 {먹을까/\*먹을가}?

13. -(으)로서/-(으)로써(한글 맞춤법 제57항)

☞ ‘-로서’는 자격, ‘-로써’는 도구나 수단의 의미로 쓰인다. “나로서는 할 말이 없다”, “학생으로서 본분을 지키자”, “친구로서 나를 욕하다니!”와 “칼로(써) 연필을 깎는다”, “술로(써) 인생을 탕진했”가 구분된다. ‘-(으)므로(써)’와 ‘-므로’도 구분해서 써야 한다. ‘-(으)므로(써)’는 ‘써’가 붙을 수 있지만 ‘-므로’에는 붙을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그는 부지런하므로 돈을 많이 벌었다”와 “그는 부지런히 일함으로써 돈을 많이 벌었다”가 구분된다.

14. 마라/말아라(한글 맞춤법 제18항)

☞ ‘말다’에 ‘-아(라)’의 명령형 어미가 결합한 ‘말-아라/말-아’는 ‘마라/마’로 줄어든 형태가 표준어이다. 하지만 ‘-(으)라고’가 결합할 경우에는 ‘말라고’가 된다.

- ① 못된 것은 하지 마라/마.
- ② 어머니께서 불량 식품은 먹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 ③ 밤새우지 말란 말이야.

15. 맞추다/맞히다/마치다(한글 맞춤법 제55항, 제57항)

☞ ‘맞추다’는 ‘기준이나 다른 것에 비교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맞히다’는 ‘맞다’의 사동사로 ‘적중하다’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답을 맞히다’와 ‘답을 맞추다’는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 말이 된다. “내가 열 문제 모두를 □□□”라고 할 때는 “\*맞았어”가 아니라 “\*맞혔어”라고 해야 한다. 또한 ‘상자 속에 든 것이 무엇인지 □□□□ 보세요’에는 ‘알아맞혀’로 써야 한다. 하지만 “내가 쓴 답과 모범 답안을 □□□ 보았다”라고 할 때는 ‘비교하다’의 의미인 ‘맞추어(맞춰)’로 써야 한다.

‘마치다’는 “별써 일을 마쳤다”와 같이 ‘어떤 일을 마지막으로 끝내다’의 의미로 쓰인다.

한편, 예전에 ‘맞추다’와 ‘마추다’는 ‘손발을 맞추다, 입을 맞추다’와 ‘옷을 마추다, 마춤 양복’ 등과 같이 구별해서 썼으나, “\*마추다”는 더 이상 쓰지 않고 두 의미 모두 ‘맞추다’를 쓰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전의 표기법을 따른 “안성마춤”도 ‘안성맞춤’으로 써야 한다.

16. 머릿기름\*머리기름(한글 맞춤법 제30항)

☞ ‘사이시옷’ 표기는 두 명사가 합쳐진 합성어(명사)에서 일어난 음운 현상을 표기에 반영하려는 노력에서 나온 것이다. 즉 다음의 ㄱ. 조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ㄴ.의 음운 현상이 나타난다면 사이시옷을 합성어의 중간에 받쳐 적게 한 것이다.

ㄱ. ‘사이시옷’을 표기하기 위한 선결 조건

1. 합성어(명사)의 두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 이상은 고유어일 것.
2.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것.

ㄴ. 위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에서 다음의 음운 현상이 나타나면 ‘ㅅ’을 받쳐 적음.

- ① 뒷말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가 [ㄱ, ㄷ, ㅃ, ㅆ, ㅉ]로 변할 때(즉, 예사 소리가 된소리로 변할 때)
  - 코 + ㅅ + {구멍, 기름, 김, 대, 등, 바람, 방울, 병, 부리, 소리, 속, 수염, 잔등어}
  - 꺾병, 기댓값, 대꽃값, 등꽃길, 고깃국, 만뚝국, 맥줏집, 머릿돌, 바닷가, 보랏빛, 빨랫줄, 성뚝길, 시냇가, 장밋빛, 전깃불, 조갯살, 찻잔, 고깃집, 횃집
- ②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날 때
  - 콧날, 콧노래, 콧물, 콧마루, 뱃머리, 수돗물, 뚝마루
- ③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즉 모음 사이에서) ‘ㄴㄴ’ 소리가 덧날 때
  - 껏읖, 나뭇읖, 베껏읖, 옷읖, 예삿읖, 사삿읖

ㄷ. 예외(다음의 6개 한자어에서만 ‘ㅅ’ 표기 허용)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뺨간(退間), 횃수(回數)  
 ※ ‘기차간(汽車間, ← 기차+간), ‘전세방(傳貰房, ← 전세+방)’은 한자어 구성이므로 사이시옷 적지 않음.

ㄹ. 위 ㄴ.의 음운 현상이 없으면(즉 소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ㅅ’을 표기하지 않음.

머리말, 머리글, 나무다리, 인사말, 바다지렁이, 쥐뿔, 뒤풀이, 코웃음

ㅁ. 외래어와 고유어의 결합일 경우에도 사이시옷 표기를 하지 않음.

핑크빛, 피자집 등

## 17. 며칠\*멧일\*멧 일(한글 맞춤법 제27항)

☞ 한글 맞춤법 제27항의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는 규정을 근거로 삼는다면 ‘멧 + 일’은 ‘멧일’로 적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같은 항의 [붙임] 항목에는 “어원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다”고 하고 예로 ‘골병, 골탕, 며칠’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이와 같이 한글 맞춤법은 그 어원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멧일’이 아니라 ‘며칠’로 적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다음 예로 미루어 보면, ‘멧’ 다음에 ‘일(日)’이 오면 [며딜]로 소리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 ㄱ. 멧 월 → [며뿔], 멧 인 → [며딘], 멧 억 → [며덕], 멧 원 → [며뵐], 멧 올 → [며뵐]
- ㄴ. 멧 향 → ([멧향]) → [며향], 멧 해 → ([멧해]) → [며태], 멧 호 → ([멧호]) → [며토히]
- ㄷ. 멧 날 → ([멧날]) → [며날], 멧 년 → ([멧년]) → [며년], 멧 묶음 → ([멧묶음]) → [며뽀름]
- ㄹ. 멧 일(日) → [며딜]

‘멧’ 다음에 명사가 오면 말음의 ‘ㅈ’은 소위 중화 현상에 의하여 ‘ㄷ’으로 바뀐다. 그러므로 ㄱ.과 같이 ‘멧 + 월’은 [며뿔]이 아니라 [며뿔]이 되고, ‘멧 + 억’은 [며척]이 아니라 [며덕]이 되는 것이다. 이는 ‘옷 + 안’이나 ‘꽃 + 위’, ‘날 + 알’이 [오산], [꼬취], [나탈]이 아니라 [오단], [꼬뉘], [나달]로 소리 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에 따르면 ‘멧 + 일’의 구성은 [며딜]로 소리가 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며딜]이라고 하지 않고 [며칠]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은 이 말이 ‘멧 + 일(日)’의 구성이 아님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며칠]은 현대국어에서 그 어원(원형)을 밝힐 수 없는 것이므로 소리 나는 대로 ‘며칠’이라고 적게 되는 것이다.<sup>2)</sup>

‘며칠’은 또 다시 ‘날’과 결합하여 ‘며칠날’이라는 합성어를 만들기도 한다(“아버님 제사가 5월 며칠날이지?”). 일부에서는 ‘멧 일’과 ‘며칠’을 의미를 구분해서 적는 일도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 어떤 뜻이든지 ‘며칠’이라고 써야 한다.

2) 사실 ‘며칠’은 중세 국어에서 이미 현대 국어와 같이 두 가지 의미로 모두 쓰이던 말이었다. 이 말이 현대 국어에까지 전해져서 쓰이는 것이다.

ㄱ. 며츠를 설워 흐리러노 《翻譯朴通事(1517년) 상:75》

ㄴ. 며춧나리 도흔고 《翻譯老乞大(1517년) 하:71》

ㄷ. 오늘이 며칠고 《朴通事諺解(1677년) 중:53》

- ㄷ. \*오늘이 몇 월 몇 일이지? (×) → 오늘이 몇 월 며칠이지?(○)
- ㄴ. 며칠 동안 휴가를 다녀왔다.(○)
- ㄷ.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18. 문득/문뜩(한글 맞춤법 제5항)

☞ 다음 문장을 소리 내어 읽어 보자.

- ㄱ. 어느날 문득 고향 생각이 났다.
- ㄴ. 나는 문득 고개를 들어 창 너머 하늘을 보곤 했다.

대부분의 화자들은 ‘문득’을 [문뜩]이라고 소리 내어 읽는다. 하지만 ‘문득’은 [문득], ‘문뜩’은 [문뜩]으로 소리를 내야 한다. 그 발음에 따라 구별해서 적어야 할 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더 있다. ☞ **깜박/깜빡, 끄작/끄찍, 끈덕끈덕/끈적끈적, 방긋/방긋, 번득/번득, 번듯/번듯, 번쩍/번쩍, 생긋/생긋, 싱긋/싱긋, 훌긋/훌긋, 훌지/훌지**

19. -박이/-배기/-빼기(한글 맞춤법 제54항)

접미사	의미	단어 형성의 예
-박이	무엇이 박혀 있는 사람, 짐승, 사물, 장소 등을 나타내는 접미사	덧니박이, 겹박이, 외눈박이, 토박이, 불박이, 오이소박이, 차돌박이, 장승박이
-배기	1. 그 나이를 먹은 아이	한 살배기, 다섯 살배기
	2. 어떤 것이 짝 차 있음.	알배기, 나이배기
	3. 어떤 덩사 뒤에 붙어 그런 물건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공짜배기, 진짜배기, 대짜배기
-빼기	‘그런 특성이 있는 사람이나 물건’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이마빼기, 고들빼기, 곱빼기, 억척빼기, 코빼기 (예외) 뚝배기, 언덕빼기

20. 백분율/\*백분률(한글 맞춤법 제11항)

☞ 한자어 ‘률, 륜’은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올 때는 ‘열, 율’로 적는다. 그 외의 경우와 외래어 다음에는 ‘률, 륜’로 적는다.

한자	사용 환경	음	보기
律 率 栗	ㄴ을 제외한 자음이나 외래어 다음	률	악률(樂律), 음률(音律), 법률(法律) / 출석률(出席率), 굴절률(屈折率), 결합률(結合率), 성공률(成功率), 영률(Young率: 고체 탄성률의 하나), 쏠률(shoot率) / 생률(生栗)

한자	사용 환경	음	보기
慄	모음, ㄴ 받침 다음	울	규율(規律), 불문율(不文律), 선율(旋律), 평균율(平均律) / 비율(比率), 실패율(失敗率), 참가율(參加率), 백분율(百分率) / 전율(戰慄)
烈 裂 劣 列	ㄴ을 제외한 자음이 나 외래어 다음	렬	격렬(激烈), 극렬(極烈), 열렬(熱烈) / 결렬(決裂), 멸렬(滅裂) / 졸렬(拙劣), 용렬(庸劣) / 행렬(行列), 정렬(整列), 병렬(竝列)
	모음, ㄴ 받침 다음	열	선열(先烈), 치열(熾烈) / 균열(龜裂), 분열(分裂) / 우열(優劣) / 계열(系列), 대열(隊列), 반열(班列)

## 21. 부딪치다/부딪히다(한글 맞춤법 제57항)

☞ ‘부딪치다’는 ‘힘차게 부딪다’의 뜻이고 ‘부딪히다’는 ‘부딪음을 당하다’의 뜻이다. 그러므로 ‘자전거에 부딪쳤다’는 상호작용으로 자전거와 충돌했다는 의미로, ‘자전거에 부딪혔다’는 피동적으로 자전거에 충돌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므로 ‘부딪치다’는 ‘마주’라는 부사가 와도 자연스러우나, ‘부딪히다’는 그렇지 않다.

- ① 차와 차가 마주 부딪쳤다.
- ② 길을 가다가 자전거와 마주 부딪쳤다.
- ③ \*길을 가다가 자전거에 마주 부딪혔다.

‘그들의 결혼은 부모의 반대에 □□□□’와 ‘졸업과 동시에 냉혹한 현실에 □□□□’와 같은 문장에서는 ‘부딪혔다’로 써야 한다.

## 22. 붙이다/부치다(한글 맞춤법 제57항)

☞ ‘붙이다’와 ‘부치다’는 구별되는 말이다. 대체로 ‘붙다’의 뜻이 남아 있는 경우는 ‘붙이다’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치다’로 적는다.

- ① 붙이다: 반창고를 붙이다 / 책상을 벽에 붙이다 / 불을 붙이다 / 흥정을 붙이다 / 감시원을 붙이다 / 주석을 붙이다 / 조건을 붙이다 / 별명을 붙이다 / 번호를 붙이다 // 따귀를 올려붙이다 // 소매를 걷어붙이다 // 친구를 범인으로 몰아붙이다
- ② 부치다: 편지를 부치다 / 안건을 회의에 부치다 / 극비에 부치다 / 인쇄에 부치다 / 삼촌 집에 숙식을 부치다 / 한글날에 부쳐 / 식목일에 부치는 글 // 기운이 부치다 // 논밭을 부치다 // 부침개를 부치다 // 부채를 부치다

23. 사귀어/\*사겨/\*사귀

☞ “둘이 한번 사귀어 봐”의 ‘사귀어’는 ‘\*사겨/\*사귀’로 줄어들 수 없다. 마찬가지로 ‘바뀌어’ 역시 ‘\*바껴, \*바뀐’ 등으로 줄어들 수 없다. 흔히 “언제부터 \*사졌니? / 짝이 또 \*바졌어?” 등으로 쓰지만 잘못이다. ‘사귀었니, 바뀌었어’로 써야 한다. **웃 지저귀어, 바뵈어, 나누어, 뛰어, 쉬어, 야위어, 쥐어, 비취어, 핏귀어, 튀어, 휘어**

24. 셋노랏다\*싯노랏다(한글 맞춤법 제27항)

☞ 색채어 앞에 붙는 ‘새-/시-/셋-/싯-’의 구분 방법은 다음과 같다. 색채어의 첫소리가 ①된소리나 거센소리이면서 양성 모음인 경우는 ‘새-’가 결합되어 ‘새빨강다’, ‘새파랏다’가 되고, ②음성 모음인 경우는 ‘시-’가 결합되어 ‘시빨강다’, ‘시파랏다’가 된다. 그리고 ③유성음이면서 양성인 경우는 ‘셋-’이 결합되어 ‘셋노랏다’, ‘셋말강다’가 되고, ④유성음이면서 음성인 경우는 ‘싯-’이 결합되어 ‘싯누랏다’, ‘싯말강다’가 된다. 결국 색채어 첫소리의 자음이 무성음이나(새/시) 유성음이나(셋/싯), 그리고 첫소리의 모음이 양성 모음이나(새/셋) 음성 모음이나(시/싯)에 따라 구분된다.

25. 承諾 - 승낙/\*승락(한글 맞춤법 제52항)

☞ 한자어에서 하나의 한자가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것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

본음으로 나는 것	속음으로 나는 것
승낙(承諾)	수락(受諾), 쾌락(快諾), 허락(許諾)
만난(萬難)	곤란(困難), 논란(論難)
안녕(安寧)	의령(宜寧), 회령(會寧)
분노(忿怒)	대로(大怒), 희로애락(喜怒哀樂)
토론(討論)	의논(議論)
오륙십(五六十)	오뉴월, 유월(六月)
목재(木材)	모과(木瓜)
십일(十日)	시방정토(十方淨土), 시왕(十王), 시월(十月)
팔일(八日)	초파일(初八日)

26. 시원찮다\*시원찮다(한글 맞춤법 제39항)

☞ 어미 ‘-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적과 ‘-하지’ 뒤에 ‘않-’이 어울려 ‘-찮-’이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그러므로 ‘시원하지 않다’는 ‘시원치 않다’→\*시원찮다’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원찮다’와 같이 적는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찮’이나 \*잖’과 같이 적는 일은 없고 모두 ‘찮’이나 ‘잖’로 적는다.

적지 않다 → 적잖다      만만하지 않다 → 만만찮다  
 그렇지 않다 → 그렇잖다      변변하지 않다 → 변변찮다  
 두렵지 않다 → 두렵잖다      성실하지 않다 → 성실찮다

27. 벌에 쓰였다/썩었다(한글 맞춤법 제37항)

☞ 동사의 사동형 혹은 피동형의 준말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한글 맞춤법 제37항에 근거한다. 한글 맞춤법 제37항에서는 “ㅏ, ㅑ, ㅓ, ㅕ, ㅗ로 끝난 어간에 ‘-이-’가 와서 각각 ‘ㅕ, ㅑ, ㅓ, ㅕ, ㅗ’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라고 밝혀 ‘쏘이다~썩다’ 모두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꼬다, 눅다, 뜨다, 보다, 쓰다’ 등에 사동 혹은 피동의 접미사 ‘-이-’가 결합한 ‘꼬이다, 누이다, 뜨이다, 보이다, 쓰이다’ 등은 모두 ‘썩다, 뉘다, 띄다, 뵈다, 썩다’로 줄어들 수 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표기가 모두 가능하다.

- (쏘- + -이- →)쏘이다 ~ 썩다: 벌에 손등을 {쏘였다/썩었다}
- (꼬- + -이- →)꼬이다 ~ 썩다: {몸이/일이} 점점 {꼬였다/썩었다}.
- (눅- + -이- →)누이다 ~ 뉘다: 아이를 침대에 {눅였다/뉘었다}.
- (뜨- + -이- →)뜨이다 ~ 띄다: 아침에 눈이 번쩍 {뜨였다/띄었다}.
- (보- + -이- →)보이다 ~ 뵈다: 잘 안 {보여도/뵈어도} 안경은 쓰지 않겠다.
- (쓰- + -이- →)쓰이다 ~ 썩다: 글씨가 {쓰여/썩어} 있는 공책.

28. 아니꼬워\*아니꼬와(한글 맞춤법 제18항)

☞ ㅏ변칙 용언에 모음 어미가 연결될 때는 어간 말음의 ‘ㅏ’이 ‘ㅓ’로 바뀌므로, ‘안타깝다’, ‘가깝다’, ‘아니깝다’ 등은 \*안타까와’, \*가까와’, \*아니꼬와’가 아니라 ‘안타까워’, ‘가까워’, ‘아니꼬워’ 등으로 적는다. 다만 ‘곱-[麗]’, ‘돕-[助]’과 같은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가 결합되어 ‘와’로 소리 나는 것은 ‘-와’로 적는다. 그러므로 ‘곱-’과 ‘돕-’은 ‘고와, 고왔다’와 ‘도와, 도왔다’처럼 적는다.

ㄱ. 가깝다	: 가깝고	가깝지	가까워	가까우니	가까운
자랑스럽다	: 자랑스럽고	자랑스럽지	자랑스러워	자랑스러우니	자랑스러운
ㄴ. 곱다	: 곱고	곱지	고와	고우니	고운
둑다	: 둑고	둑지	도와	도우니	도운

## 29. 아니요/아니오

☞ ‘아니’라는 형태를 가지는 말에는 세 가지가 있다.

- ① 아니(부사, ㉠ 안) : 밥을 아니(안) 먹다 / 아니(안) 슬프다
- ② 아니(감탄사) : 밥 먹었니? → 아니, 아직 못 먹었어. / 응, 먹었어.  
식사 하셨어요? → [아니요(아뇨)], 아직 못 먹었어요 / 예, 먹었어요.
- ③ 아니다(형용사) : 그는 직원이 {아니야/아니오/아닙니다/아니었어} / 직원이 아닌 사람

①의 ‘아니’는 그 문장에 쓰인 서술어의 의미를 부정하는 부사이다. 이 ‘아니’는 줄어들어 ‘안’으로도 쓰인다. ②의 ‘아니’는 긍정·부정을 물어보는 의문문(판정 의문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이며 감탄사로 분류된다.(이 ‘아니’는 ‘안’으로 줄어들 수 없다.)

③의 ‘아니다’는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해체의 어미 ‘-야’, 하오체의 어미 ‘-오’, 합쇼체의 어미 ‘-니다’ 등의 어말 어미와 관형사형 어미 ‘-(으)ㄴ’과도 결합할 수 있는 형용사로 쓰인다.(이 ‘아니다’ 역시 ‘안’으로 줄어들지 못한다.)

위에서 보면 우리가 부정의 대답으로 사용하는 것은 ②의 ‘아니’(감탄사)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예’의 반대말로 쓰는 [아니요]라는 말은 감탄사 ‘아니’에 해오체의 보조사 ‘요’가 결합된 ‘아니요’로 적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음 문체에 ‘예/아니요’로 대답하십시오”와 같은 문장에서는 ‘아니요’를 써야 한다. ‘아니요’는 줄여서 ‘아뇨’가 되기도 한다.

### ※ ‘요’와 ‘오’의 구분 방법

국어의 특성상 조사(격조사, 보조사)는 상황에 따라 생략해도 말이 되지만(예 ㄴ. 참조) 용언에 결합하는 어미는 어느 하나라도 생략하면 의미가 달라지거나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예 ㄷ. 참조). 한편, 보조사는 다른 조사와 겹칠 뿐만 아니라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등에도 두루 결합될 수 있다(예 ㄹ~ㅇ 참조).

ㄱ. 나는 밥을 먹었어. / 철수가 시골에 다녀왔습니다.

- |  |              |
|--|--------------|
| ㄴ. 나 밥 먹었어. / 철수 시골 다녀왔습니다.              | → (보)조사 생략   |
| ㄷ. 나는 밥을 {*먹/*먹었} / 철수 시골 {*다녀오/*다녀왔습니다} | → 어미 생략      |
| ㄹ. 철수가요 어제는요 학교에서도요 만화책을요 보았어요.          | → 조사접침 / 해요체 |
| ㅂ. 비행기가 {빨리도/빨리만/빨리는} 나는구나.              | → 부사 + 보조사   |
| ㅅ. 그런 소문을 {들어도/들어만/들어는} 보았어.             | → 동사 + 보조사   |
| ㅇ. 그는 친구를 {좋아도/좋아만/좋아는} 한다.              | → 형용사 + 보조사  |
| ㅈ. 이리로 왔어요. / 좋도록 하오. / 이 문을 여시오.        |              |
| ㅊ. 이리로 왔어요. / 좋도록 해요. / 이 문을 열어요.        |              |

그런데 ‘요’는 해요체의 보조사이고 ‘-오’는 하오체의 어미이므로, ‘요’는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하지만 어미 ‘-오’를 생략하면 문장이 성립하지 못한다. 이 둘을 구별하는 손쉬운 방법은 바로 이 차이를 구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즉 그 ‘요/오’를 생략해서 문장이 성립하면 보조사 ‘요’가 쓰인 것이고 성립하지 않으면 어미 ‘-오’가 쓰인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ㄷ.에서 ‘-오’를 생략하면 문장이 모두 비문이 되지만 ㅊ.에서는 ‘요’를 생략하더라도 해요체에서 해체로 존대의 등급은 낮아지지만 문장 자체는 성립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안녕하세요/안녕하셔요’의 ‘-(으)세요/-(으)셔요’는 복수 표준어이므로 둘 다 인정되는 것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연결형의 ‘이요’이다.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연필이요 그것은 공책이다.’처럼 연결형으로 쓰일 때는 ‘이요’를 사용하고 연결형이 아닌 경우에는 ‘이것은 내 책이요.’처럼 ‘이오’(서술격 조사 ‘이-’ + 하오체 어미 ‘-오’)를 쓴다(한글 맞춤법 제15항).

### 30. 아무튼/\*아뭇든(한글 맞춤법 제40항)

☞ 용언의 활용형 가운데 하나의 형태만이 굳어져서 부사로 쓰이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대로 적는다. ‘아무튼’은 \*‘아뭇-’에 어미 ‘-든’이 결합한 형태만 쓰이고 그 이외의 활용형은 전혀 쓰이지 않으면서 동시에 부사로만 쓰이므로 그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대로 적는 것이다.

☞ **결단코, 결코, 기필코, 무심코, 요컨대, 정녕코, 필연코, 하마터면, 하여튼, 한사코.**

그러나 ‘이렇든, 그렇든, 저렇든, 아무렇든, 어떻든’ 등은 ‘이렇다, 그렇다, 저렇다, 아무렇다, 어떻다’의 활용형이므로 ‘-튼’으로 적지 않는다.

한편, ‘아무튼’은 ‘의견이나 일의 성질, 형편, 상태 따위가 어떻게 되어 있든’의

뜻으로 ‘어떻든, 어쨌든, 여하튼, 하여튼’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 31. 안/않-

☞ “다시는 담배를 안/않 피우겠다”에서는 ‘안’이 옳다. ‘안’은 ‘아니’의 준말로 부사이고, ‘않-’은 ‘아니하-’의 준말로 ‘않다’, ‘않았다’, ‘않겠다’와 같이 활용하는 용언이다. 즉 ‘안’은 다른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로 쓰이고, ‘않-’은 문장의 서술어로 “내가 하지 않았다”처럼 ‘-지 않-’의 구성으로 주로 쓰인다.

- ① 다시는 안 만날 거야. /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야.
- ② 안 보이니? / 보이지 않니?

### 32. 안치다/얹히다(한글 맞춤법 제57항)

☞ ‘안치다’는 기원적으로는 ‘얹다’에서 온 것으로 보이나 그 의미의 관련이 멀어진 것으로 보아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안치다’는 ‘끊이거나 찢 물건을 솔이나 시루에 넣다’는 뜻으로 ‘쌀을 안치다’, ‘밥을 안치다’와 같이 쓰인다. 반면 ‘얹히다’(‘얹다’의 사동형)는 ‘얹게 하다’의 뜻이므로 ‘아이를 자리에 얹히다’와 같이 쓰인다.

### 33. 어떡해/어떻게/\*어떻해

☞ ‘어떡해’는 ‘어떻게 해’가 줄어든 말로 문장을 맺는 서술어이고, ‘어떻게’는 ‘어떻-’에 부사형 어미 ‘-게’가 결합한 활용형으로 다음에 서술어가 와야 한다.

- ㄱ. ‘어떡해’는 ‘어떻게 해’가 줄어든 말. (☞ ‘어떻게 하다’가 줄어들어 ‘어떡하다’가 됨.)  
어떡하든 성공해야 해. / 어떡하면 좋아. /  
어떡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어. / 나 어떡해? 어떡하지?  
어떡하긴? 이제 와서 어떡하겠어? / 아이들은 어떡하고 있어?
- ㄴ. ‘어떡하다(<어떻게 하다<어떠하게 하다)’와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진 말  
이력하다(이렇게 하다), 그럭하다(그렇게 하다), 저럭하다(저렇게 하다)  
→ 이력하면 어떡하니? 그럼 그럭해도 돼? 이력하나 저력하나 혼나는 건 마찬가지.

그러므로 ‘이 문제를 \*어떡해 풀지?’는 잘못이다. ‘어떻게’로 써야 한다.

☞ 이력하다(이렇게 하다), 그럭하다(그렇게 하다), 저럭하다(저렇게 하다)

### 34. 웬지/\*웬지

☞ “오늘은 웬지 기분이 좋아”에서 ‘웬지’는 ‘왜인지’가 줄어서 된 말이므로 ‘웬지’로 적는다. 하지만 “웬 떡이냐”, “이게 웬 날벼락이냐”, “봄인데 웬 눈이 이렇게 많이 오지?”, “웬 사람이 널 찾아왔어”라고 할 때는 ‘웬’으로 적는다. ‘웬’은 ‘어찌 된, 어떠한’을 뜻하는 관형사이다. ☘ **웬걸, 웬만하다, 웬만큼, 웬일**

### 35. 이에요/이어요

☞ ‘이에요’와 ‘이어요’는 복수 표준어로서 ‘이다’에 ‘-에요’, ‘-어요’가 붙은 말이다. 다시 ‘-어요’는 어미 ‘-어/-아’에 보조사 ‘요’가 결합한 것으로 ‘하다’ 어간 뒤에서는 ‘-여요’로 실현되고 ‘이다, 아니다’ 뒤에서는 ‘-에요’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요/이어요’의 ‘이’는 서술격 조사이므로 체언 뒤에만 붙는데, 받침이 없는 체언에 붙을 때는 ‘에요/여요’로 줄어든다. 한편 ‘아니다’는 용언이므로 ‘이에요/이어요’가 연결될 수 없고 어미인 ‘-에요/-어요’가 연결되므로 ‘아니에요(아녜요)/아니어요(아녀요)’와 같이 쓸 수 있다. ‘아니다’에 ‘이에요’와 ‘이어요’가 붙은 \*‘아니에요’, \*‘아니여요’는 잘못이다.

경우	환경	용례
인명	받침 있는 인명	영숙이 + 이에요 → 영숙이에요 영숙이 + 이어요 → 영숙이어요  국어에서 자음으로 끝나는 사람 이름을 직접 부르거나 가리킬 때는 접미사 ‘-이’가 붙는다. ‘영숙이가, 영숙이를, 영숙이도, 영숙이에게, 영숙이는……’ 그러므로 우리가 [영숙이에요]처럼 말하는 것은 조사결합체인 ‘이에요’가 ‘영숙’ 다음에 곧바로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영숙이’에 결합되는 것으로 분석하게 된다. 그러므로 ‘영숙이 + 이에요’의 구성으로 파악하여, ‘영숙이 + 예요 → 영숙이에요’로 적게 되는 것이다. ‘책을 읽은 사람은 *영숙이에요.’는 잘못된 표기이다.
	받침 없는 인명	영희 + 이에요 → 영희예요 영희 + 이어요 → 영희여요
명사	받침 있는 명사	집 + 이에요 → 집이에요 집 + 이어요 → 집이어요
	받침 없는 명사	회사 + 이에요 → 회사예요 회사 + 이어요 → 회사여요
아니다	형용사 다음	아니 + (이)예요 → 아니예요(아녜요) 아니 + (이)어요 → 아니어요(아녀요) ※ *‘아니에요’/*‘아니여요’는 잘못.

### 36. 있음/\*있슴

☞ ‘있음’은 ‘있-’에 명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된 것이므로 ‘있음’이 옳다. ‘먹- + -(으)ㄴ’일 때는 ‘\*먹슴’이 아니라 ‘먹음’인 것과 마찬가지로 예전에 쓰던 ‘있읍니다, 먹읍니다’의 ‘-읍니다’를 현행 맞춤법에서 ‘-습니다’로 적기로 한 사실에서 유추하여 ‘있음’, ‘없음’을 ‘\*있슴’, ‘\*없슴’으로 적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잘못이다.

용언의 명사형을 만드는 방법은 동사와 형용사가 다르지 않으므로 함께 보이도록 한다.

구분	환경	결합형	용례	
규칙 용언의 명사형	모음	-ㄴ	감, 구름, 남, 버림, 봄, 예쁨, 줌, 씹, 품, 흐름 ……	
	ㄹ		값, 젊, 기쁨, 깊, 낡, 뛰어난, 만듦, 배품, 삼, 앉, 열, 열, ……	
	ㄱ, ㄲ	-음	먹음, 막음, 작음, 속음 / 깎음, 낚음, 속음 ……	
	ㄴ		안음, 신음	
	ㄷ		걸음, 뜯음, 믿음, 받음, 뺨음 ……	
	ㄹ		감음, 검음, 남음, 념음, 담음, 더듬음, 숨음 ……	
	ㅂ		잡음, 뒤집음, 뽑음, 입음, 씹음, 줌 ……	
	ㅅ, ㅆ		벗음, 빗음, 빼앗음, 솟음, 웃음, 씻음 / 있음	
	ㅈ, ㅊ		긋음, 꽃음, 낫음, 맞음, 맺음, 잣음, 젖음, 짓음, 찢음, 찢음 / 좇음, 좇음	
	ㅌ		갈음, 말음, 발음, 뺨음, 붙음, 얹음, 열음, 질음, 흠음	
	ㅍ		값음, 깊음, 높음, 덮음, 엮음, 싹음, 짙음	
	ㅎ		넣음, 넣음, 놓음, 닿음, 땅음, 쌓음, 좋음, 쪼음	
	결반침			읽음, 늡음, 뺨음, 뺨음, 엮음, 짙음, 훑음, 꿇음, 싹음 ……
				얹음, 엮음, 꿇음, 많음, 양음, 편찮음 / 없음 ……
어미			먹었음, 보았음, 가졌음, 꿇었음 / 오심, 가심, 편찮으심 ……	
불규칙 용언의 명사형	ㅂ불	-ㄴ	구움(<굽다), 도움(<돕다), 주움(<죽다), 기움(<깎다), 꽃다움(꽃답다), 더러움(<더럽다), 사랑스러움(사랑스럽다) ……	
	ㅎ불		빨감(<빨강다), 멀검(<멀경다), 까맘(<까망다), 누림(<누렁다) ……	
	ㄷ불	-음	걸음(<걷다), 길음(<긴다), 물음(<묻다), 붙음(<붙다), 싹음(<싹다) ……	
	ㅅ불		그음(<긋다), 나음(<낫다), 부음(<부다), 지음(<짓다) ……	

### 37. 자랑스러운/\*자랑스런

☞ ‘자랑스럽다’와 ‘부끄럽다’에서 온 ‘자랑스러운’과 ‘부끄러운’은 ‘\*자랑스런’과 ‘\*부끄스런’으로 줄지 않는다. 이는 ‘깁다, 늙다, 줍다, 가깝다, 무겁다, 쉽다’ 등의 활용형인 ‘기운, 누운, 주운, 가까운, 무거운, 쉬운’ 따위가 ‘\*긴, \*눈, \*준, \*가깝, \*무겁, \*쉽’으로 줄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 38. 통틀어/\*통털어

☞ ‘있는 대로 모두 한데 묶다’의 뜻을 가진 말은 ‘\*통털다’가 아니라 ‘통틀다’이다. ‘통틀다’는 현대국어에서 그 활용에 제약을 심하게 받고 있는 말로 주로 ‘통틀어(서), 통틀고, 통틀면’ 정도의 예만 보인다. 또한 활용형 ‘통틀어’는 현대국어에서는 부사로 쓰인다.

ㄱ. 있는 돈을 통틀면 모두 5만 원쯤 됩니다.

부여와 공주를 통틀고 나서도 아직 3천에선 2백여 명이 모자랐다. <이청준, 춤추는 사제>

ㄴ. 이사하는 데 통틀어 2백만원이 들어갔다.

자녀는 아들과 딸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우릴 통틀어 경멸하는 소리는 삼가 줘. <박완서, 도시의 흥년>

### 39. 퍼레지다/\*퍼래지다

☞ ‘ㅎ’ 발음을 가진 색채 형용사들은 어미가 결합할 때 어간과 어미가 모두 변화하는 불규칙 용언이다. 활용할 때는 모음 조화에 따라 어미 ‘-어/-아’가 선택된다. 그러므로 ‘퍼렇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되면 ‘퍼렇- + -어 → 퍼레’, ‘퍼렇- + -으니 → 퍼러니’ 등으로 활용하고, ‘하얏다’는 ‘하얏- + -어 지다 → 하애지다’, ‘허영다’는 ‘허영- + -어 지다 → 허예지다’와 같이 활용한다.

기본형	-고	-지	-(으)ㄴ	-(으)니	-어/아	-었/았-	-(으)니?(의문)
까맣다	까맣고	까맣지	까만	까마니	까매(지다)	까맸다	까맸니/까마니?
꺼멩다	꺼멩고	꺼멩지	꺼먼	꺼머니	꺼메(지다)	꺼맸다	꺼맸니/꺼머니?
빨강다	빨강고	빨강지	빨간	빨가니	빨개(지다)	빨갰다	빨갰니/빨가니?
빨경다	빨경고	빨경지	빨건	빨거니	빨게(지다)	빨갰다	빨갰니/빨거니?
파랗다	파랗고	파랗지	파란	파라니	파래(지다)	파랬다	파랬니/파라니?
퍼렇다	퍼렇고	퍼렇지	퍼런	퍼러니	퍼레(지다)	퍼렷다	퍼렷니/퍼러니?
하얏다	하얏고	하얏지	하얀	하야니	하애(지다)	하엿다	하엿니/하야니?
허영다	허영고	허영지	허연	허여니	허예(지다)	허엿다	허엿니/허여니?
말짱다	말짱고	말짱지	말간	말가니	말개(지다)	말갰다	말갰니/말가니?
멀격다	멀격고	멀격지	멀건	멀거니	멀게(지다)	멀갰다	멀갰니/멀거니?

## IV. 표준어와 옳은 표현

### 1. 가엿다/가엿다(표준어 규정 제26항)

☞ 이 두 말은 모두 표준어다. 표준어 규정 제26항에서는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라고 하여 복수 표준어를 인정하고 있다. ‘가엿다/가엿다’ 이외에도 ‘싫다/서럽다, 여쭙다/여쭙다’도 역시 복수 표준어이다. 그러므로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가지 모양의 활용형을 다 쓸 수 있다.

어간어미	-고	-지	-어	-(으)ㄴ	-(으)니	-(으)면
가엿다	가엿고	가엿지	가엿어	가엿은	가엿으니	가엿으면
가엿다	가엿고	가엿지	가엿워	가엿운	가엿우니	가엿우면
여쭙다	여쭙고	여쭙지	여쭙어(여쭙)	여쭙	여쭙니	여쭙면
여쭙다	여쭙고	여쭙지	여쭙워	여쭙운	여쭙우니	여쭙우면

☞ 가뭇/가뭇, 귀퉁머리/귀퉁배기, 고개/때때/고개, 나귀/당나귀, 뒷갈망/뒷갈당, 만전/만청, 만큼/만치, 멀찌감치/멀찌가니/멀찍이, 모쪼록/아무쪼록, 벌레/버러지(‘벌거지/벌러지’는 비표준어임), 보조개/볼우물, 언덕바지/언덕배기, 우레/천둥, 의심스럽다/의심쩍다 …… (표준어 규정 제26항 참조)

### 2. 개다/\*개이다

☞ ‘개다’를 ‘\*개이다’로 적을 이유는 없다. ‘헤매다/\*헤매이다’, ‘목매다/\*목매이다’, ‘설레다/\*설레이다’ 등도 마찬가지다.

- ㄱ. 날씨가 맑게 {개었다(갯다)/\*개었다} / 맑게 {갯/\*개인} 날씨
- ㄴ. {설레는/\*설레이는} 마음을 …
- ㄷ. 친구 집을 찾지 못해 골목을 {헤매고/\*헤매이고} 다녔다..
- ㄹ. 날씨가 갠 / 낯선 도시를 헤맸 / 슬픔에 목매 / 기쁨에 설렘

그러나 ‘에다/에이다’와 ‘깃들다/깃들이다’는 서로 의미가 다르므로 구분해서 써야 하는 말이다.

- ㄱ. 에다 : 살을 에는 추위(타동사)  
에이다 : 살이 에이는 추위(자동사)
- ㄴ. 깃들다 : {영혼이/평화가/어둠이} 깃들다, 조국 산하에 깃든 선열의 호국 정신  
깃들이다 : 새가 둥지에 깃들이다 / 누구나 깃들일 집은 있기 마련이다

### 3. 놀라다/놀래다

☞ ‘놀래다’는 ‘놀라다’의 사동사이다. ‘놀래다’는 ‘놀래 주다’의 구성으로 주로 쓰인다. 그러므로 ‘나’는 ‘깜짝 놀랄’ 수는 있지만 ‘깜짝 놀랄’ 수는 없다.

- ㄱ. 깜짝 {놀랐잖아/\*놀랬잖아}. 얼마나 {놀랐는지/\*놀랬는지} 몰라.  
더 {놀라게/\*놀래게} 해 줄까?
- ㄴ.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철수를 놀래 주었다.
- ㄷ. 그들이 그에게 총격을 가해 온 것은 그를 놀래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를 죽이기 위한 목적이었다. <<홍성원, 육이오>>

### 4. 다르다/틀리다

☞ ‘다르다’를 써야 할 자리에 ‘틀리다’를 잘못 쓰는 경우가 있다.

- ㄱ. 이것은 어제 보았던 것과는 {\*틀린/다른} 것이다.
- ㄴ. 저 두 아이는 쌍둥이지만 성격은 아주 {\*틀려/달라}.
- ㄷ. 역시 전문가는 {\*틀려/달라}.

위에서 ‘틀리다’로 잘못 쓴 것들은 모두 ‘다르다’를 써야 할 것들이다.

‘다르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 ㄹ. 아버지와 나는 얼굴이 다르다 / 사과와 배는 다르다 / 요즘 하루가 다르게 추워진다.
- ㅁ. 고장난 기계를 금세 고치는 걸 보니 역시 기술자는 달라. / 전문가의 안목이 다르군.

ㄹ과 같이 ‘비교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않다’의 의미가 그 첫 번째이고, ㅁ과 같이 ‘보통의 것보다 두드러진 데가 있다’의 의미가 그 두 번째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다르다’의 활용형인 ‘다른’과 관형사인 ‘다른’은 그 의미가 같지 않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다르다’를 다른 말로 풀이하자면 ‘같지 않다, 별개다[different]’로, 관형사 ‘다른’은 ‘땀[other]’로 생각할 수 있다.

- ㅂ. 다른(형, ‘다르다’의 활용형) : 나와 얼굴이 다른 아버지(=아버지는 나와 얼굴이 다르다) / 서로 성격이 다른 쌍둥이(=쌍둥이가 성격이 서로 다르다)
- ㅅ. 다른(관, 당장 문제되거나 해당되는 것 이외의) : 다른 사람을 불러와라(≠사람이 다르다), 다른 생각 하지 마라(≠생각이 다르다)

그런데, ‘틀리다’는 위 ㅂ과 같이 형용사 ‘다르다’가 쓰일 자리에서만 잘못 쓰인다. (‘나와는 얼굴이 틀린 아버지 / 서로 성격이 틀린 쌍둥이’) 그러나 관형사인 ‘다

른'이 쓰일 자리에서는 '틀린'이 결코 쓰이지 않는다.(\*틀린 사람을~ / \*틀린 생각~')

### 5. 돌/똥(표준어 규정 제6항)

☞ 생일이나 주기의 뜻을 나타내는 말은 예전에 '똥'과 '돌'로 구별되어 쓰던 것이나 '돌'로 통일하였다. 따라서 더이상 '똥'이란 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어느 경우에도 '돌'로 써야 한다.

- ㄱ. 첫돌을 맞은 아이, 첫돌 기념
- ㄴ. 개교한 지 스무 돌이 지난 학교

### 6. 둘째/두째(표준어 규정 제6항)

☞ '둘째'와 '두째'는 '두 개째', '제 2의'로 의미를 구분해서 사용하던 것이나, '둘째'만을 표준어로 인정하여 의미에 따른 구별을 하지 않게 된 경우이다. '셋째/세째', '넷째/네째'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둘째'는 십 단위 이상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별되어 쓰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 ㄱ. 서수사에 쓰일 때(순서): 열두째(열두 번째), 스물두째(스물두 번째)
- ㄴ. 기수사에 쓰일 때(수량): 열둘째(열두 개째), 스물둘째(스물두 개째)

### 7. 들르다/들리다

☞ “친구 집에 잠깐 들렀다”, “서점에 들러 책을 샀다” 등의 \*들리다'는 '들르다'의 잘못이다. 그러므로 \*들렀다, \*들려'가 아니라 '들렀다, 들러'로 말하고 적어야 한다. '시간 나면 사무실에 들러라', '퇴근하는 길에 포장마차에 들렀어'처럼 쓴다.

### 8. 떼다/띠다/띄다

☞ '떼다', '띠다', '띄다'는 다음과 같이 구별되어 쓰인다.

- ① 떼다 : {벽보를/정을/영수증을/천자문을/젓을/돈을/화투를} 떼다
- ② 띠다 : {미소를/색깔을/사명을} 띠다.
- ③ 띄다1 : 눈에 띄다. ← '뜨이다'의 준말.
- ④ 띄다2 : 사이를 띄다. ← '띄우다'의 준말.

## 9. 매다/메다

☞ ‘매다’와 ‘메다’는 다음과 같이 구별해서 적어야 한다.

- ㄱ. 끈을 매다 / 옷고름을 매다 / 전대를 허리에 매다 / 형은 그 일에 목을 매고 있다.
- ㄴ. 가로수에 연등을 매달다 / 엄마는 우리 보따리를 죄다 한 몸에 주렁주렁 매달고 고약한 꿈속에서처럼 허우적대고 있었다.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 ㄷ. 가방을 어깨에 매다 / 배낭을 매다 / 총을 매다 / 장례를 메고 나갈 청년
- ㄹ. 사람을 땅바닥에 매다꽂다 / 물건을 바닥에 메어치다(메치다)

## 10. 머리말/\*머릿말

☞ ‘인삿말’, ‘머릿말’은 사이시옷이 없는 ‘인사말’, ‘머리말’이 옳다. 표준어가 ‘[인사말], [머리말]’이므로 사이시옷 규정과는 무관한 것이다.

## 11. 무/\*무우(표준어 규정 제14항)

☞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그러므로 ‘무’가 표준어이고 ‘무우’는 비표준어이다. 이와 같은 예에는 ‘귀찮다(\*귀치 않다), 김(\*기음), 뽕리(\*또아리), 뺨(\*배암), 빗(\*비음), 샘(\*새암), 생쥐(\*새앙쥐), 솔개(\*소리개), 온갖(\*온가지), 장사치(\*장사아치)’ 등이 있다.

## 12. 바람/\*바램(표준어 규정 제11항)

☞ ‘바래다’는 ‘바라다[望]’의 잘못이다. 그러므로 “사업이 날로 번창하기를 바라(바라- + -아)”, “돈을 바라서(바라- + -아서) 한 일이 아니야”, “어머니는 아들이 성공하기를 바랐다(바라- + -았다)”로 써야 한다. ‘(...하기) 바람’은 ‘바라다’에 명사 형성 접미사 ‘-ㅁ’이 결합한 것이다. ‘바래다’와 그 활용형인 ‘\*바래’, ‘\*바래서’, ‘\*바랬다’, 그리고 ‘\*바램’ 등은 모두 비표준어이다.

## 13. 벌이다/벌리다

☞ ‘벌이다’는 ‘싸움을 벌이다’, ‘일을 벌이다’, ‘좌판을 벌이다’처럼 쓰이고 ‘벌리다’는 ‘다리를 벌리다’, ‘자루를 벌리다’와 같이 쓰인다. ‘\*논쟁을 벌리다’, ‘\*잔치를 벌리다’라고 쓰는 것은 잘못이고 ‘벌이다’로 써야 한다.

14. 사그라지다\*사그러지다\*사글어지다

☞ ‘감정이 \*사그러지다’로 흔히들 쓰지만 이는 ‘사그라지다’의 잘못이다. 또한 ‘사글어지다’로도 쓰지만 이는 맞춤법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사글다’라는 어형이 없으므로, 다시 말해 원형을 밝힐 수 없으므로 ‘사글어지다’로 쓸 수는 없다.

예) 불길이 사그라지다 / 흥분이 사그라지다 / 끓어올랐던 울분이 점차 사그라졌다.

15. 삼가다\*삼가하다

☞ “흡연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이 “삼가하다”로 많이 쓰지만 이 말은 ‘삼가다’의 잘못이므로 ‘흡연을 삼가(삼가- + -아) 주시기 바랍니다’로 써야 옳다. ‘문밖출입을 삼가라’, ‘어른 앞에서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와 같이 쓰인다.

16. 새우다/새다

☞ “밤새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병나면 어떡하니? \*밤새지 마라.”에서 ‘밤새다’는 잘못이다. ‘새다’는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자동사이고 ‘새우다’가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이기 때문이다.

- ㄱ. 새우다/밤새우다 : 밤을 새우다 / 밤을 새웠다.//밤새워 일했어. / 밤새우지 말란 말이야.
- ㄴ. 새다/밤새다 : 날이 새다 /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했다. // 밤새도록 뒤적이다
- ㄷ. 밤새(‘밤사이’의 준말) : 밤새 비가 내렸어. /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

17. 수-/숫-(표준어 규정 제7항)

☞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 ㄱ. 수평, 수나사, 수놈, 수소, 수은행나무.....

다음의 경우에만 ‘수-/암-’ 다음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하여 표기에 반영한다. 이 이외의 표기에서는 거센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 ㄴ. 수강아지, 수캐, 수컷, 수키와, 수닭, 수탕나귀, 수틀찌귀, 수돼지, 수평아리  
암강아지, 암캐, 암컷, 암키와, 암닭, 암탕나귀, 암틀찌귀, 암돼지, 암평아리
- ㄴ. 수개미/암개미, 수곰/암곰, 수고양이/암고양이, 수고래/암고래, 수벌/암벌, .....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숫-’이 결합한다. (‘숫-’은 다음 세 단어에만 결합한다.)
- ㄷ. 숫양, 숫염소, 숫쥐
- ㄷ. 수여우, 수자라, 수제비, 수잡자리 .....

18. 쌍둥이/쌍둥이(표준어 규정 제8항)

☞ 어원적으로는 ‘쌍둥(雙童)+-이’의 구성이지만, 양성모음이 음성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음성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고 있으므로 ‘-둥이’를 표준어로 삼는다. ‘막둥이’, ‘검둥이’, ‘흰둥이’, ‘귀둥이’, ‘바람둥이’ 등도 모두 ‘둥이’로 적는다. 이와 같이 원래 양성모음이던 것이 음성모음으로 바뀐 것으로는 ‘강충강충, 발가숭이, 보통이, 뺨정다리, 아서(아서라), 오뚝이, 주추(주춧돌)’ 등이 있다.

19. 썩이다/썩히다

☞ ‘속을 썩이다’만 ‘썩이다’이고 ‘채주를 썩히다’, ‘음식물을 썩히다’는 모두 ‘썩히다’이다.

예) 좋은 머리를 썩히며 놀고 있는 아들 녀석 때문에 속을 썩이고 있어.

20. 아름답니?/아름다우니?

☞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 ‘-니/으니’는 동사에 붙을 때와 형용사에 붙을 때 차이를 보인다. “철수가 밥을 먹니/먹으니?”와 같이 동사의 의문형은 “먹으니”로 쓰일 수 없지만, “너는 영희가 좋니/좋으니?”처럼 형용사에는 ‘-니/-으니’가 모두 쓰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사전에서는 ‘좋니’와 ‘좋으니’ 중 어느 하나만 인정하거나 아예 정보 자체가 없어서 그 쓰임을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형용사의 경우 ‘좋니?/좋으니?’를 모두 인정하고 그 쓰임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혼동이 없도록 하였다.

구분	어간 말음	의문형 어미	예문
동사 어간	모음	-니	무엇을 보니?(← 보- + -니)
	자음		영희가 책을 읽니/읽으니?(← 읽- + -니)
형용사 어간	모음	-니 / -으니	음식이 짜니?(← 짜- + -니)
	ㄹ		길이가 기니/길으니? (← 길- + -니)
	자음 (ㄹ 제외)		날씨가 좋니/좋으니?(← 좋- + -니/으니)
			넌 내가 밍니/미우니?(← 밍- + -니/으니)
선어말어미	-았- -겠- -시- -더-	-니	넌 철수가 싫니/싫으니?(← 싫- + -니/으니)
			이것이 저것과 같니/같으니?(← 같- + -니/으니)
			이것보다 저것이 낮니/나으니?(← 낮- + -니/으니)
			내 얼굴 빨강니/빨가니?(← 빨강- + -니/으니)
선어말어미	-았- -겠- -시- -더-	-니	날씨가 맑았니?(← 맑- + -았- + -니)
			어디가 좋겠니?(← 좋- + -겠- + -니)
			선생님께서 어디 가지니?(← 가- + -시- + -니)
			교수가 맏더니?(← 맏- + -더- + -니)

## 21. 알맞은/\*알맞는

☞ ‘-는’은 동사에 결합되어 ‘가는, 보는, 먹는, 자는’ 등과 같이 현재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어미이다. 이 ‘-는’은 그러므로 동사에는 결합할 수 있지만 형용사에는 결합할 수 없는 어미이다(\*높는, \*예쁘는, \*더럽는, \*아름답는 ...). ‘맞다’는 동사이므로 ‘맞는’이 가능하지만, ‘알맞다’, ‘걸맞다’ 등은 형용사로 쓰이므로 \*알맞는, \*걸맞는’과 같이 ‘-는’이 결합될 수는 없다. 대신에 ‘알맞은, 걸맞은’과 같이 써야 한다.

## 22. 우리다/\*울구다

☞ \*울구다’는 ‘우리다’의 잘못이다. ‘쇠고기를 우린 국물’, ‘남의 돈을 우리다’와 같이 쓰인다. \*남의 돈을 울궈내다’처럼 쓰지만 \*울궈내다’는 ‘우려내다’의 잘못이다.

## 23. 웃어른/\*윗어른(표준어 규정 제12항)

☞ ‘웃-’ 및 ‘윗-’은 명사 ‘위’에 맞추어 ‘윗-’으로 통일하여 쓴다(윗넓이, 윗눈썹, 윗니, 윗도리, 윗몸, 윗입술, 윗잇몸 등). 다만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로 한다(위쪽, 위쪽, 위층, 위턱 등). 그러나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웃-’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웃국<sup>3)</sup>, 웃기<sup>4)</sup>, 웃돈, 웃비<sup>5)</sup>, 웃어른, 웃웃’이 표준어가 된다.

## 24. 쩌/채/체

☞ “돼지를 통째로 구웠다”의 경우에는 ‘-째’(겹미사)로 쓰고 ‘온 몸이 묶인 채로’와 같이 관형사형 어미 다음에 올 때는 ‘채’(의존 명사)로 쓴다. “\*돼지를 통채로 구웠다”는 옳지 않다. 또한 ‘체’는 의존 명사로서 ‘아는 체하다’와 같이 쓰인다.

3) 간장이나 술 따위를 담가서 익힌 뒤에 맨 처음에 떠낸 진한 국.

4) 흰 떡에 물을 들여 만든 도병(搗餅)의 하나. 합이나 접시에 담은 떡 위에, 모양을 내기 위하여 얹는다. 철에 따라 돈전병, 오일쟁이떡, 산병(散餅), 색절편, 목전 따위가 있다.

5) 아직 우기(雨氣)는 있으나 콕콕 내리다가 그친 비.

## 25. 좇다/좇다

☞ ‘좇다’는 ㄱ과 같이 구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추상적인 뜻을 나타내는 데 쓰는 말이고, ‘좏다’는 ㄴ과 같이 구체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데 쓰는 말이다.

ㄱ. 명예를 좇다 / 유언을 좇다, 선생님의 뜻을 좇다 / 관례를 좇다 / 공자의 이론을 좇다

ㄴ. 도둑을 좇다, 좇고 좇기는 추격전 / 새를 좇다, 귀신을 좇다 / 잡념을 좇다, 잠을 좇다

그리고 합성어인 ‘좏아가다, 좏아오다’ 등과 ‘좏아가다, 좏아내다, 좏아다니다, 좏아오다’도 역시 기본적인 의미는 각각 ‘좏다’, ‘좏다’와 마찬가지로의 의미를 지닌다.

ㄷ. 남편의 뜻을 좏아가다 / 너희들은 내 뜻을 좏아오기만 하면 된다.

ㄹ. 도둑을 좏아가다 / 마을에서 불량배를 좏아내다 / 여자 꿈무늬를 좏아다니다 ...

한편, \*좏다, \*좏다, 혹은 \*좏아가다, \*좏아가다처럼 받침을 ‘ㅈ’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모두 잘못이다. ‘좏다, 좏다’는 [조차], [쫘차]와 같이 발음하므로 어간 맞춤(받침)을 모두 ‘ㅈ’으로 적어야 한다.

##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2(연습)

박종덕 | 국립국어원 강의 교수



#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2(연습)

박종덕 | 국립국어원 강의 교수

## 1. 한글 맞춤법 연습

### 1. 된소리

가. 바르게 표기한 것을 고르시오.

- (1) 진수는 땅바닥에 {털석/털씩} 주저앉고 말았다.
- (2) 바람을 맞으니 기분이 {산뜻해지는/산뜻해지는} 듯하다.
- (3) 장인어른에게 {넙죽/넙쪽} 절을 했다.
- (4) 계속 {쑥덕/쑥떡}거리는 사람에게는 쑥떡을 하나 주어라.

나. 잘못된 곳을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

- (1) 그 얘기를 들은 아버지는 몹씨 화를 내셨다.
- (2) 빨래터에 새색씨들이 용기종기 모여 빨래를 하고 있다.
- (3) 친구가 갑짜기 울음을 터뜨렸다.
- (4) 우리 마을 입구에 있는 커다란 떡갈나무가 바로 우리 마을의 보배랍니다.

### 2. 두음 법칙

가. 바르게 표기한 것을 고르시오.

- (1) 옛날이면 금 열 {양/냥} 값인데.

- (2) {선동열/선동렬}은 이번 경기를 마지막으로 은퇴를 선언했다.
- (3) 분위기가 너무 {냉랭했다/냉랭했다}.
- (4) 종소리와 함께 대망의 {2000년대/2000년대}가 밝았다.
- (5) 하루에 5시간 공부하는 것이 나에게는 {중노동/중로동}이다.
- (6) {구연도/구년도} 달력은 모두 창고에 갖다 놓았다.
- (7) 역시 {고냉지/고랭지} 배추가 더 맛있는 것 같다.
- (8) 올해의 물가 {상승율/상승률}은 지난해보다 높다.
- (9) 과일 음료수의 성분 중에서 실제 과일의 함량 {비율/비률}은 많지 않다.
- (10) 그 분을 기리는 {충열탑/충렬탑}이 세워져 있다.
- (11) {독자난/독자란}에 재미있는 글이 실려 있어요.
- (12) 오늘 해야 할 {작업양/작업량}을 다 채우시기 바랍니다.
- (13) 오늘은 {구름양/구름량}이 유난히 적은 날이라고 해요.

나. 잘못된 곳을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

- (1) 아들은 그 사이 늙늙한 청년으로 자라 있었다.
- (2) 그 공원에는 류관순 동상이 세워져 있다.
- (3) 오늘은 김륜식 교수님을 찾아 뵈려고 한다.
- (4) 내가 제일 잘 부르는 노래는 '낭낭 18세'이다.
- (5) '실락원'이라는 책 읽어 봤어요?
- (6) 항상 연말년시가 되면 기분이 우울해진다.
- (7) 남존녀비 사상이 아직도 남아 있다.
- (8) 그 자리는 경노석이니 앉지 마세요.
- (9) 1/2을 백분률로 바꾸세요.
- (10) 우리 학과의 대기업 합격율은 다른 학과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 (11) 여러 방향으로 분렬된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만 합니다.
- (12) 펜팔란에서 찾아 보세요.
- (13) 칼슘량이 너무 부족합니다.
- (14) 날이 갈수록 감자 배분양이 적어지고 있다.

### 3. 어간과 어미

가. 바르게 표기한 것을 고르시오.

- (1) 예, {아니오/아니요}로 답하십시오.
- (2) 다 먹은 접시는 저를 {주십시오/주십시요}.
- (3) 아니, 이게 {뉘시오/뉘시요}?
- (4) 오늘 철수가 온다고 했니? {아니오/아니요} 영수가 온다고 했어요.
- (5) 옆 사람에게 기대시면 {되요/돼요}.
- (6) 그게 말이 {되느냐/돼느냐}?
- (7) 그렇게 하면 안 {되/돼}.
- (8) 문을 꼭 {잠가라/잠귀라}.
- (9) 김치를 직접 {담가/담귀} 드세요?
- (10) 예전에 수희랑 민수가 서로 {사졌대/사귀었대}.
- (11) 이번 대회는 성공적으로 {치렀다/치뤘다}.

나. 잘못된 곳을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

- (1) 나는 의사가 아니요.
- (2) 이것은 책상이오 저것은 책장이다.
- (3) 말씀 낮추십시오.
- (4) 이제 참새만 그려 넣으면 돼죠.
- (5) 제발 사람 좀 되라.
- (6) 내가 그렇게 돼라고 빌었니?
- (7) 그 일은 잘 되도 걱정, 잘 안 돼도 걱정이예요.

### 4. 명사형

가. 바르게 표기한 것을 고르시오.

- (1) 불원간에 닥쳐올 앞날의 {낯설음/낯핳}에 대한 두려움.
- (2) 눈 주위 피부의 {거칠음/거꿍}을 방지해 줍니다.
- (3) 놓아 둔 라면이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불음/끓}.

나. 다음을 명사형으로 바꾸시오.

- (1) 썰다
- (2) 나누다
- (3) 그림다
- (4) 짓다
- (5) 걷다
- (6) 둥글다

## 5. 접미사

가. 바르게 표기한 것을 고르시오.

- (1) 우리 신랑은 {배불뚝이/배불뚱기}이다.
- (2) 내 옷은 완전히 {누덕이/누더기}가 다 됐어요.
- (3) 기력기력 {기력이/기러기}
- (4) 잘 깔쭉거리는 사람은 {깔쭉이/깔쭉기}
- (5) 코가 납작하니까 {코납작이/코납자기}
- (6)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계약서를 {꼼꼼이/꼼꼼히} 읽어라.
- (7) 손을 {깨끗이/깨끗히} 씻어라.
- (8) 그 일만은 {도저히/도저히} 할 수 없어요.
- (9) 그 만년필 내가 {끔찍이/끔찍히} 아끼는 것이야.
- (10) {꾸준이/꾸준히} 공부해야 한다.

나. 잘못된 곳을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

- (1) 간간히 비가 내리곤 했다.
- (2) 머리를 아래쪽으로 깊숙히 숙여 보세요.
- (3) 그 성은 담으로 겹겹히 둘러싸여 있었다.
- (4) 아버지께서는 항상 어머니와 멀찍히 떨어져서 걸으셨다.

## 6. 사이시옷

가. 바르게 표기한 것을 고르시오.

- (1) {귀병/꺄병}과 {화병/훗병}은 같은 병원에서 진료 받을 수 없습니다.

- (2) {등교길/등곳길}에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를 만났다.
- (3) 올 여름 {장마비/장맛비}에 우리 논의 벼가 다 쓰러지고 말았다.
- (4) 이 일의 {대가/ 댓가}가 겨우 이것밖에 안 된다니!
- (5) 요즘은 {전세방/전셋방} 하나 구할 돈도 없다.

나. 잘못된 곳을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

- (1) 친구들과는 피자집에서 자주 만났었다.
- (2) 사장님께서 먼저 인삿말을 하셨다.
- (3) 비가 그치자 구름 사이로 햇님이 살며시 고개를 내밀었다.
- (4) 내 동생은 화가 나면 아랫턱을 불쑥 내미는 버릇이 있다.
- (5) 저기 개나릿길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리를 지나자마자 우회전하세요.

## 7. 준말

가. 바르게 표기한 것을 고르시오.

- (1) {너구라/너굴아} 이리와!
- (2) {기러가/기력아} 내 마음을 알아 다오.
- (3) 잠시 {머물러/머물어} 있고 싶다.
- (4) 오늘 1시에 소방 훈련을 {실시하고자/실시코자/실시코저} 합니다.
- (5) 곳은 비 내리는 이 밤도 {애절구려/애절꾸려}.
- (6) 보수는 내가 {섭섭지/섭섭치} 않게 드릴 테니 염려하지 마세요.
- (7) 할 말이 있으면 {서슴지/서슴치} 말고 하세요.
- (8) {생각다 못해/생각타 못해} 제가 직접 왔어요.
- (9) 목적을 {달성고자/달성코자} 열심히 노력했다.
- (10) 설명을 {정확케/정확하게} 해주세요.

나. 다음 말의 준말을 쓰시오.

- (1) 가지가지
- (2) 고루고루
- (3) 만만하지 않다
- (4) 적지 않은

## 8. 자주 틀리는 말

※ 표기가 틀린 낱말을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

- (1) 그때는 목이 타서 냉수를 한 바가지나 들이키고 말았다.
- (2)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거지를 쓰는 아이를 달래느라 애를 먹었다.
- (3) 우리 애인은 하여튼 빠지기도 잘해요.
- (4) 옛날 방영됐던 외화 ‘나르는 윈더우먼’은 재미있었다.
- (5) 그녀는 가스펠브를 잠귀야 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았다.
- (6) 발목을 접질러서 침을 맞으러 다닌다.
- (7) 영이야, 재털이를 좀 가져 오너라.
- (8) 담벼락에는 개발새발 아무렇게나 글씨가 써어 있었다.
- (9) ‘설레임’은 누구나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다.
- (10) 밥 먹을려고 식당에 가는데, 친구가 불렀다.
- (11) 오페라 나비 부인에는 ‘어떤 개인 날’이라는 아름다운 아리아가 있다.
- (12) 빨강색 티코가 앞질러 가면 열받는다.
- (13) 우산이 너무 커서 들고 다니기가 거치장스럽기 짝이 없었다.
- (14) 질문이 있으면 서슴치 말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15) 어떤 사람이든 팔세하지 말고 존중해야 한다.
- (16) 저기 영이 옆에 서 있는 이쁜 여자는 누구야?
- (17) 이 건물 안에서는 흡연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8) 김치찌게와 육계장은 내가 즐겨 먹는 음식이다.
- (19) 내 생각과 김 선생 생각은 틀리다.
- (20) 박태환 선수는 자신의 기록을 오늘 갱신했다.
- (21) 과장님께 결제를 얻어야 하는데 외출 중이시라 못 하고 말았다.
- (22) 그들은 서로 탄지를 걸어 일이 어그러지게 만들었다.
- (23) 전화가 왔다는 것은 오해가 풀렸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 (24) 유리창에 서리가 끼어서 밤이 보이지가 않는다.
- (25) 간호사는 궁둥이에다 힘껏 바늘을 꽂았다.
- (26) 친구는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재연하다가 그만 울고 말았다.
- (27) 이 문제는 차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 (28) 학교 폭력의 피해가 심하다.
- (29) 그 사람이 이번 신약 성공의 장본인이다.

- (30) 내일 선친의 고회를 맞아 조촐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31) 잣길 없슴
- (32) 산수갑산을 가서 산전을 일귀 먹더라도
- (33) 그는 절대절명의 위기에서도 정신을 놓치 않았다.
- (34) 그는 이제 가족도 없고, 갈 곳도 없는 홀홀단신 외톨이가 되어 버렸다.
- (35)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이들이 모이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 (36) 그의 말은 두리뭉실하여 뜻을 확실히 알기가 쉽지 않다.
- (37) 이삿짐을 싸고 나니 허겁스레기가 사방에 널려 있었다.
- (38) 전철 안에서 애기가 울어 그 엄마가 대단히 당황했다.
- (39) 시험이 내일모레로 다가 왔는데 맨날 놀기만 하지 말고 공부 좀 해라.
- (40) 사랑이 뭐길래.
- (41) 그 두 사람은 멜레야 멜 수 없는 관계이다.
- (42) 오늘은 몇 년 몇 월 몇 일입니까?
- (43) 대낮부터 술을 연거퍼 마시는 품이 심상치 않았다.
- (44) 가위질은 옛장사 마음대로
- (45) 그녀는 야멸차게 쏘아붙이고는 횡! 하니 가 버렸다.
- (46) 사람들은 고통과 상처를 안은 채 아등바등 살아간다.
- (47) 하늘을 보니 오늘 비가 올른지도 모르겠다.
- (48) 할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셔.
- (49) 자다가 나왔는지 눈에는 눈썹이 잔뜩 끼어 있었다.
- (50) 동생이 수능 시험을 치루고 나서는 며칠 동안 잠만 잤다.

## II. 표준어 규정 연습

### 1.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가. 표준어를 고르시오.

- (1) 동물원 [살괩이/살괩이]가 우리를 벗어났다.
- (2) “[부억/부억]에 가서 물 좀 떠 와라.”
- (3) [동넉/동넉]에 해뜰 때 어머니 날 낳으시고
- (4) 요즘은 재산을 [털어먹는/떨어먹는] 일이 흔한 때다.

- (5) [나팔꽃/나발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 (4) 그 분야에서만큼은 [돌째/두째] 가라면 서러워 할 것이다.
- (5) 현호는 우리 반에서 키가 [열두째/열둘째]다.
- (6) 새치를 벌써 [스물둘째/스물두째] 뽑고 있다.
- (7) 어느새 한글날이 563[뫼/돌]을 맞았다.
- (8) 옆집에서 연장을 [빌려/빌어] 왔다.
- (9) 요즘 양복을 [맞춰/마춰] 입는 사람은 흔치 않다.
- (10) 라면을 끓일 때는 [냄비/남비]가 적당하다.
- (11) 봄철이 되면 [아지랑이/아지랭이]가 아물아물 피어오를 거야.
- (12) 그 여자는 [멋쟁이/멋장이]가 분명해.
- (13) 그는 평생 [갓장이/갓쟁이]로 살면서 가업을 이었다.
- (14) 그렇게 심하게 [나무라지/나무래지]는 마세요.
- (15) [지리한/지루한] 장마가 계속되고 있다.
- (16) 우리의 [바람/바렘]은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 (17) 인순이와 하인즈 워드는 [트기/튀기]라 불린다.
- (18) 고기는 [상추/상치]와 함께 먹어야 맛있다.
- (19) 우리 옆집 아가씨는 [각쟁이/각정이] 같이 새치름하다.
- (20) 이 표현은 [대귀법/대구법]을 쓴 것이다.
- (21) 책에서 좋은 [귀절/구절]을 뽑아서 인용하는 것도 괜찮다.
- (22) 교과서 [문구/문귀]가 잘못되면 그것을 보는 학생들에게 영향이 크다.
- (23) 구렁이가 [뺨리/또아리]를 틀고 있다.
- (24) [소리개/솔개]가 빙빙 높이 뗏구나, 높이 뗏구나.
- (25) 돈을 좇는 [장사치/장사아치]의 눈치만큼 빠른 것도 없다.

나. 비표준어를 찾아 표준어로 고치시오.

- (1) 그들은 삭월세로 방을 얻어 신접살림을 차렸다.
- (2) 문열이라는 단어 뜻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 (3) 그의 말에 나는 저으기 당황했다.
- (4) 장끼는 숫평의 다른 이름이다.
- (5) 영화 <식객>에 등장한 소가 숫소인지는 모르겠다.
- (6) 페르시아 문명전에서 수양 머리 모양의 잔을 보았다.
- (7)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캉총캉총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 (8) 여름철 냇가에서 발가숭이로 놀던 때도 있었다.

- (9) 오뚝이처럼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 (10) 혼사에 갈 때는 부주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11) 그런 케케묵은 사고방식으로는 해결 못 해.
- (12) 미류나무 꼭대기에 조각구름이 걸려 있네.
- (13) 허위대가 멀쩡한 사람이 구걸을 하긴 왜 해.
- (14) 다음 도형에서 옷넓이를 구하시오.
- (15) 이것은 [위쪽/윗쪽]이 더 넓다.
- (16) 김 과장은 우층에 사는 이 선생과는 동문이다.
- (17) 윗어른을 공경해야 한다.
- (18) 이 집은 유난히 천정이 높다.
- (19) 바지 길이가 어지중간 해 키가 더 작아 보인다.
- (20) 점심을 먹으려고 식당을 찾았다.

## 2.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가. 표준어를 고르시오.

- (1) 이산 가족의 [애닭은/애달픈] 사연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 (2) 그것은 [잔돈/잔전]으로 살 수 있다.
- (3) 제일 앞에서 달리는 [흰말/백말]이 일등이다.
- (4) 우리 집 아이는 [말약/가루약]만 먹을 수 있다.
- (5) 아버지와 [겸상/맞상]을 하고 앉으니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 (6) 자장면 집에서는 [양파/등근파]가 요리 재료로 많이 쓰인다.
- (7) [칫솔/잇솔]을 잘못 고르면 이가 잘 안 닦인다.
- (8) [귀밑머리/곶머리]가 희끗희끗한 누이 모습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 (9)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빈자떡]이나 부쳐 먹지.
- (10) [생인손/생안손]을 얹아 본 사람만이 그 아픔을 안다.

나. 비표준어를 찾아 표준어로 고치시오.

- (1) 우리 동네 코보 영감님은 동네 아이들을 친손자처럼 귀여워하신다.
- (2) 메아리가 살게시리 나무를 심자.
- (3) 아주머니는 떡을 광우리에 이고 장으로 팔러 갔다.
- (4) 배가 고팠는지 대접째 들어 멀국을 들이켰다.

- (5) 그는 씨름계의 새벽별로 떠올랐다.
- (6) 쪽밥을 혼자 먹으면 쌍둥이를 낳는다는 말이 있다.
- (7) 그 친구는 나와 영판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 (8)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며 영이는 안절부절했다.
- (9) 졸업 선물로 팔목시계를 받았다.
- (10) 알타리무 값이 많이 올랐다.

# 띄어쓰기

유하라 | 국립국어원 강의 교수



# 띄어쓰기

유하라 | 국립국어원 강의 교수

## 1. 띄어쓰기의 원리

글을 검토할 때 가장 많이 눈에 띄는 오류는 띄어쓰기와 관련되어 있다. 그만큼 어떤 것을 띄어 써야 하는지 붙여 써야 하는지 고민스러워하는 사람이 많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러나 ‘한글 맞춤법’에 제시되어 있는 띄어쓰기의 원칙은 의외로 아주 간단하다.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 맞춤법’ 제1장 제2항>

이 원칙에 따르면 무엇이 단어인지 알면 띄어쓰기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주 만난다.”에서 ‘자주’는 단어이므로 ‘자주’는 뒤에 오는 말과 띄어 쓴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단어는 항상 띄어 쓰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조사’는 단어로 다루어지지만 띄어 쓰지 않는다. ‘한글 맞춤법’ 규정에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41항)는 별도의 조항을 단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면 어떤 것은 띄어 쓰고 어떤 것은 붙여 쓰는지 그 원리를 검토해 보자.

말에는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럴 수 없는 것들이 있다.

- (1) ㄱ. 지금 어디 가니?      - 학교
- ㄴ. 언제 집에 갈 거야?    - 지금

‘학교’, ‘지금’과 같은 말들은 다른 말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쓰일 수 있다. 이처럼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말이 있는 반면에 절대로 단독으로 쓰일 수 없는 말도 있다.

- (2) ㄱ. 친구가, 책을, 학생이다
- ㄴ. 먹는다, 안녕하세요
- ㄷ. 만나겠다, 읽었습니다

위에서 밑줄 친 (2ㄱ)의 ‘가, 을, 이다’나 (2ㄴ)의 ‘-는다, -세요’, (2ㄷ)의 ‘-겠다’, ‘-었다’ 등은 모두 단독으로 쓰일 수 없는 말들이다. 이들은 항상 다른 말과 함께 쓰인다. 이처럼 의존적인 말들은 항상 다른 말에 붙여 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떤 말이 ‘자립적’이나 ‘의존적’이냐에 따라 띄어쓰기가 달라진다. 자립적인 말들은 띄어 쓰며, 의존적인 말들은 붙여 쓴다. (2)에서 제시된 ‘먹-’, ‘안녕하-’, ‘만나-’, ‘읽-’ 등도 자립적으로 쓰이지 않는다. 즉 (2ㄴ)에서 보는 것처럼 ‘먹-’ 뒤에 ‘-는다’가 올 때는 ‘먹는다’로 붙여 써야 한다. 이렇게 붙여 쓰는 말에는 조사, 어미, 접두사, 용언의 어간 등이 있다.

다음 항에서는 실제 예를 통해 어떻게 띄어 써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 2. 띄어쓰기의 실제

### 2.1. 단어 판별 여부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단어는 띄어 쓴다. 그런데 자립적인 요소와 자립적인 요소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기도 해서 그것이 단어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것을 판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전을 찾는 것이다. 그 말이 사전에 올라 있으면 붙여 쓰고 사전에 올라 있지 않으면 띄어 쓴다. 그런데 사전을 확인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의미가 생겼는지 따져 보면 그것이 한 단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 (3) ㄱ.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ㄴ. 그 사람은 항상 큰소리만 치지 실속은 없다.

(3ㄱ)의 ‘큰 소리’와 (3ㄴ)의 ‘큰소리’는 의미가 다르다. (3ㄱ)은 물리적인 소리의 크기가 큰 경우라면 (3ㄴ)은 물리적인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과장하여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각 요소의 의미만으로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없는 새로운 의미가 생겼을 때는 한 단어로 보아 붙여 쓴다.

(4) ㄱ. 우리 한 번에 하나만 처리하자.

ㄴ. 언제 한번 얼굴이나 보자.

(4ㄱ)의 ‘한 번’과 (4ㄴ)의 ‘한번’도 의미가 다르다. (4ㄱ)은 ‘한 번, 두 번’ 하는 횟수를 나타내지만 (4ㄴ)은 시도의 의미를 나타낸다. (4ㄱ)의 ‘한 번’은 ‘두 번, 세 번’으로 바꾸어 볼 수 있지만 (4ㄴ)은 이렇게 바꾸어 쓸 수 없다.

단어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또 다른 방법은 두 말 사이의 관계가 긴밀한지 아닌지를 따져 보는 것이다. 한 단어라면 둘 사이의 관계가 긴밀하여 그 사이에 다른 말이 들어갈 수 없다.

(5) ㄱ. 추우니 어서 안으로 {들어가세요/\*들어서 가세요}.

ㄴ. 이 봉투에 {담아 가세요/담아서 가세요}.

(5ㄱ)의 ‘들어가다’와 (5ㄴ)의 ‘담아 가다’는 ‘긴밀성’을 기준으로 할 때 좀 차이가 있다. ‘들어가다’는 ‘들다’와 ‘가다’의 관계가 긴밀하여 다른 요소가 중간에 들어갈 수 없으나 ‘담아 가다’는 ‘담다’와 ‘가다’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아 다른 요소가 중간에 들어갈 수 있다.

(6) ㄱ. 어제 시장에서 산 토끼를 우리에게 넣었다.

ㄱ. 어제 시장에서 산 검은색 토끼를 우리에게 넣었다.

ㄴ. 어제 산에 갔다가 산토끼를 잡았다.

ㄴ. 어제 산에 갔다가 검은색 산토끼를 잡았다.

이런 예는 (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 단어가 아닌 ‘시장에서 산 토끼’에는 ‘검은색’이 ‘산’과 ‘토끼’ 사이에 들어갈 수 있지만, 한 단어인 ‘산토끼’ 사이에는 ‘검은색’이 들어갈 수 없고 ‘산토끼’ 앞에 ‘검은색’을 놓을 수 있다.

## 2.2.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

“종이를 찢어 버렸다.”라고 했을 때 ‘버리다’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찢는 행동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7) ㄱ. 종이를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 ㄴ. 종이를 찢어 버려서 내용을 알 수가 없다.

(7ㄱ)처럼 찢은 후에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뜻으로 해석될 때에는 ‘찢어서 버렸다’처럼 사이에 다른 말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붙여 쓸 수 없다. 그런데 (7ㄴ)과 같이 ‘버리다’가 보조 용언으로 쓰였을 때에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버리다’를 앞말에 붙여 쓸 수 있다.

이처럼 보조 용언으로 쓰인 말들은 앞말에 붙여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꺼져 가다, 막아 내다, 도와 드리다, 먹어 버리다’ 등과 같은 구성에서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 쓸 수 있다. 그런데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7)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두 동사가 ‘-아/어’로 연결된 경우에 한한다. ‘하게 하다, 먹으려 들다, 가고 싶다, 하지 않다’ 등과 같은 구성을 ‘하게 하다, 먹으려들다, 가고싶다, 하지않다’처럼 붙여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항상 띄어 써야 한다.

다만 ‘-어 지다’와 ‘-어 하다’가 붙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항상 붙여 쓰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들은 보조 용언으로 다루어지기는 하지만 ‘-어 지다’는 타동사를 자동사로 바꾸고, ‘-어 하다’는 형용사를 타동사로 바꾼다는 점에서 다른 보조 용언 구성과 좀 다르다.

- (8) ㄱ. 날씨가 춥다. → 날씨가 추워진다.
- ㄴ. 동생이 좋다. → 동생을 좋아한다.

## 2.3. 조사의 띄어쓰기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조사는 학교 문법에서 단어로 다루어지지만 실제로 항상 명사 뒤에 붙어 쓰이는 의존적인 말이다. 조사의 띄어쓰기에서 나타나는 잘못

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그것이 조사인지 모르고 띄어 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앞에 오는 말이 명사가 아닌 경우에 띄어 쓰는 것이다. 그리고 조사가 여럿이 함께 나타날 때도 띄어 쓰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실제로 그것이 조사인지 몰라 띄어 쓰는 경우가 많다. ‘조차, 보다, 부터, 까지’ 등은 조사인데 조사가 아니라고 생각해 앞말과 띄어 쓰는 예가 눈에 많이 띈다. 그러나 이들은 조사이므로 항상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 (9) ㄱ. 나 조차(→나조차)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 ㄴ. 남 보다(→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다.

특히 명사 뒤에 ‘이다’가 올 때 띄어 쓰는 오류가 많이 나타난다. ‘이다’ 역시 조사이므로 항상 앞에 오는 명사에 붙여 써야 한다.

- (10) ㄱ. 이곳은 제가 다니는 직장 입니다(→직장입니다).
- ㄴ. 예전에는 학생 이었습니다만(→학생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아닙니다.

[잠깐] ‘밖에’

‘밖에’는 명사와 조사가 결합한 구성이지만 조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 ㄱ. 교실 밖에(○)/교실밖에(×) 누군가 서 있다.
- ㄴ. 천 원밖에(○)/천 원 밖에(×) 없다.

(ㄱ)의 ‘밖에’는 ‘안’에 대응하므로 명사이다. 이때의 ‘밖에’는 항상 앞말과 띄어 쓴다. 그러나 (ㄴ)처럼 ‘밖에’가 ‘안’에 대응하지 않고 한정 의미 나타낼 때는 조사이다. ‘밖에’가 조사로 쓰일 때는 대개 뒤에 ‘없다, 모르다’와 같은 부정어가 온다.

조사는 명사에 붙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부사구에 붙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앞에 오는 단어가 길어지거나 구의 길이가 길어지면 조사를 띄어 쓰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조사는 어떤 경우에도 앞말과 띄어 쓰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11) ㄱ. 학교에서 뿐만(→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 ㄴ.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입니다(→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사가 여럿이 함께 나타날 때에도 조사를 띄어 쓰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조사는 둘 이상 겹치거나 어미 뒤에 붙는 경우에도 붙여 쓴다.

- (12) ㄱ. 학교에서만이라도 좀 조용히 있자.
- ㄴ.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십시오.

## 2.4. 의존 명사의 띄어쓰기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의존적인 말은 앞이나 뒤에 오는 말과 붙여 쓴다. 그런데 의존적인 말임에도 불구하고 띄어 쓰는 말이 있는데, 의존 명사가 그것이다. 의존 명사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명사인데 의존적인 명사라는 뜻이다. 이 명사는 항상 다른 말과 함께 쓰인다.

- (13) ㄱ. 먹을 것(음식)이 많다.
- ㄴ. 본 적(경험)이 없다.

(13)에서 ‘먹을’이나 ‘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문장은 비문이 된다. 이처럼 앞에 항상 다른 말을 필요로 하는 명사를 의존 명사라고 한다. 그러나 (13)에서 보는 것처럼 ‘것’이나 ‘적’은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말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관형형 뒤에 오는 ‘것, 수, 적, 뿐, 만’ 등은 앞에 오는 관형형과 띄어 써야 한다.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쓴다고 생각하면 간단한데, 실제로 띄어 써야 할지 붙여 써야 할지 고민스러운 경우가 많다. 의존 명사 중 몇몇은 동일한 형태가 조사로 쓰일 때도 있고, 어미의 일부로 쓰일 때도 있고, 접미사로 쓰일 때도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자주 틀리는 표현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뿐

‘뿐’은 의존 명사로 쓰일 때나 조사로 쓰일 때나 ‘한정’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그 앞에 오는 말에 따라 띄어쓰기가 달라진다. 용언의 관형형이 올 때에는 앞말과 띄어 쓰지만 명사가 올 때에는 붙여 쓴다. (14ㄱ)에서 ‘뿐’은 의존 명사로 쓰인 것이고 (14ㄴ)에서 ‘뿐’은 명사로 쓰인 것이다.<sup>1)</sup>

1) ‘뿐’이 어미의 일부로 쓰인 경우도 있다. “양고기를 먹을뿐더러 말고기도 먹는다.”에 쓰인 ‘-르뿐더러’는 어미이므로 앞에 오는 ‘먹을’과 띄어 쓸 수 없다.

(14) ㄱ. 축구를 좋아할 뿐 아니라 야구도 좋아한다.

ㄴ. 축구뿐 아니라 야구도 좋아한다.

## ② 만

‘만’도 ‘뿐’과 마찬가지로 의존 명사로 쓰일 때가 있고 조사로 쓰일 때도 있다.

(15) ㄱ. 하루 종일 일만 한다.

ㄴ. 갈 만한 곳<sup>2)</sup>

ㄷ. 십 년 만에 만난 친구

(15ㄱ)처럼 명사 뒤에서 ‘한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만’은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15ㄴ)처럼 관형형 뒤에 쓰일 때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그리고 명사 뒤에서 쓰일 때 띄어 쓰는 경우도 있는데,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올 때이다. 이때의 ‘만’은 그 기간이 얼마간 계속되었음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인데, 주로 ‘만에, 만이다’ 꼴로만 쓰인다.

## ③ 지

‘지’는 의존 명사로 쓰일 때도 있고 어미로 쓰일 때도 있다.

(16) ㄱ. 비가 오는지 밖에 나가 봐라.

ㄴ. 만난 지 십 년이 다 되어 간다.

(16ㄱ)처럼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된 ‘-는지/는지’는 어미이므로 붙여 쓴다. 그렇지 않고 (16ㄴ)처럼 기간을 나타내는 말 앞에 쓰여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낼 때는 의존 명사이다. 그러므로 앞의 관형형과 띄어 쓴다.

## ④ 바

‘바’도 어미의 일부로 쓰일 때가 있고 의존 명사로 쓰일 때가 있다.

(17) ㄱ. 서류를 검토한바, 미비한 점이 발견되어 알려드립니다.

ㄴ. 나라 발전에 공헌하는 바가 크다.

2) 관형형 뒤에 오는 ‘만’은 뒤에 ‘하다’가 올 때 붙여 쓴다. 그러나 “집채만 한 고래”라고 했을 때 ‘하다’는 띄어 쓰는데, 이때의 ‘만’은 조사이기 때문이다.

(17ㄱ)처럼 앞 절의 상황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으)ㄴ바’는 어미이므로 붙여 쓴다. 이와 달리 (17ㄴ)처럼 앞에서 말한 내용 자체를 나타내는 ‘바’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바’가 의존 명사로 쓰일 때에는 뒤에 조사가 올 수 있다. 조사를 붙여 자연스러우면 ‘바’를 의존 명사라고 볼 수 있다.

### ⑤ 것(거)

‘것(거)’은 일반적으로 관형형 뒤에 쓰이는데, 이때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그런데 ‘-ㄴ걸’, ‘-르걸’, ‘-르게’와 같이 어미의 일부로 쓰인 경우가 있다.

(18) ㄱ. 본 것을 그대로 쓰세요.

ㄴ. 집에 간걸.

ㄷ. 나 먼저 갈게.

‘-ㄴ걸’, ‘-르걸’, ‘-르게’ 등에서 ‘걸, 게’는 ‘것(거)’에서 온 것으로 보이므로 띄어 쓸 가능성이 있으나 이미 하나의 어미로 굳어졌으므로 붙여 쓴다. 그러나 ‘걸’을 ‘것을’로 바꾸어 쓸 수 있거나 ‘게’를 ‘것이’로 바꾸어 쓸 수 있을 때에는 띄어 쓴다.

(19) ㄱ. 본 걸(것을) 그대로 정리해 보세요.

ㄴ. 항상 먹을 걸(것을) 잘 챙겨 온다.

ㄷ. 볼 게(것이) 이것밖에 없어요?

### ⑥ 간

‘간’도 앞말과 띄어 쓰는 경우와 붙여 쓰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간’에는 주로 명사가 오는데 의존 명사로 쓰일 때는 띄어 쓰고 접미사로 쓰일 때는 붙여 쓴다.

(20) ㄱ. 한 달간, 십 년간

ㄴ. 서울 부산 간, 부모 자식 간

(20ㄱ)처럼 ‘간’이 시간 표현 뒤에서 ‘동안’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접미사이고 (20ㄴ)처럼 ‘사이’를 나타낼 때에는 의존 명사이다<sup>3)</sup>.

## 2.5. 관형사의 띄어쓰기

관형사란 ‘첫, 각, 갖은’ 등과 같은 말로 명사 앞에서 명사의 의미를 한정해 주는 말이다. 관형사는 뒤에 오는 명사와 띄어 쓴다. 그런데 간혹 한 단어로 굳어진 경우가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 (21) ㄱ. 각 분야, 각 부처, 각 가정/ 각계, 각처, 각자
- ㄴ. 첫 경험, 첫 시험, 첫 여름/ 첫인사, 첫사랑, 첫날
- ㄷ. 귀 회사, 귀 연구원, 귀 월/ 귀사, 귀교
- ㄹ. 매 경기, 매 회계 연도/ 매번, 매사
- ㅁ. 온 식구, 온 집안, 온 국민/ 온종일, 온갖

## 2.6. 수와 단위 명사의 띄어쓰기

수를 한글로 표기할 때 모두 붙여 쓰는 경우가 많지만 모두 붙여 쓸 수는 없고 만 단위로 띄어 쓴다.

- (22) ㄱ. 천구백만 삼천사백오십
- ㄴ. 삼십사억 오천만

수는 (22)처럼 홀로 쓰이는 경우보다 (23)처럼 단위 명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단위 명사는 수를 나타내는 말과 띄어 쓴다.

- (23) ㄱ. 이천구 년(○)/이천구년(×)
- ㄴ. 삼십사억 오천만 원(○)/삼십사억오천만원(×), 삼십사억 오천만원(×)

특히 돈은 ‘백원, 천원, 만원’처럼 붙여 쓰는 경향이 있지만 ‘백, 천, 만’ 등이 수를 나타내는 말이고 ‘원’이 단위 명사이므로 ‘백 원, 천 원, 만 원’처럼 띄어 써야 한다.

단위 명사와 앞에 오는 수 표현을 붙여 쓸 수 있는데, 숫자를 한글로 표기하지

---

3) ‘사이’를 나타내는 ‘간’도 붙여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명사에 한한다. (예) 부자간, 모녀간, 부부간, 형제간

않고 아라비아숫자로 나타낼 때에 한한다.

- (24) ㄱ. 2009 년(○)/ 2009년(○)  
    ㄴ. 3,450,000,000 원(○)/ 3,450,000,000원(○)

## 2.7. 성과 이름, 호칭어와 관직명의 띄어쓰기

사람의 성과 이름은 붙여 쓴다. 다만 성과 이름을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띄어 쓸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25) ㄱ. 남궁민(원칙)/남궁 민(허용)  
    ㄴ. 서문탁(원칙)/서문 탁(허용)

원칙적으로 ‘남’씨의 ‘궁민’이든 ‘남궁’씨의 ‘민’이든 모두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남궁’씨처럼 그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남궁’과 ‘민’을 띄어 쓸 수 있다. 주의할 것은 ‘남’과 ‘궁민’을 띄어 쓸 수는 없다는 점이다.

외국인의 이름은 원어의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과 이름을 구분하여 띄어 쓰지만 중국인은 성과 이름을 붙여 쓴다.

- (26) ㄱ. 마이클 잭슨  
    ㄴ. 도쿠가와 이에야스  
    ㄷ. 장제스(장개석)

사람의 성이나 이름 뒤에 호칭어나 관직명이 붙을 수 있는데, 이런 말들은 성이나 이름과 항상 띄어 쓴다.

- (27) ㄱ. 홍길동 씨, 홍 씨, 길동 씨  
    ㄴ. 홍길동 장관, 홍 과장

사람 이름 뒤에 쓰인 호칭어 ‘씨’나 관직명은 앞말과 띄어 쓴다. 다만 “홍 씨, 이쪽으로 좀 오세요.”라고 할 때 ‘씨’는 호칭어이므로 띄어 써야 하지만 “내 주위에 의외로 김씨나 박씨보다는 의외로 홍씨가 많다.”와 같이 성씨를 나타낼 때는 붙여 써야 한다.

인명 뒤에 ‘왕’이 붙을 때에는 고유어나 한자어에 붙느냐 외래어에 붙느냐에 따라 띄어쓰기가 달라진다.

- (28) ㄱ. 의자왕
- ㄴ. 리어 왕

앞말이 고유어나 한자어 인명일 때에는 ‘왕’을 붙여 쓰지만, 외국 인명일 때에는 ‘왕’을 띄어 쓴다. ‘대왕(大王)’, ‘명왕(明王)’, ‘여왕(女王)’, ‘거서간’, ‘차차웅’, ‘마립간’ 등은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 2.8. 고유 명사나 전문 용어의 띄어쓰기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

- (29) ㄱ.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 국어 교육학과(원칙)
- ㄴ.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학과(허용)
- ㄷ. 한국대학교사범대학 국어교육학과(×)
- 한국 대학교 사범대학국어교육학과(×)

(29ㄱ)에서 보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모든 단어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한국대학교’ 안의 ‘사범대학’ 안의 ‘국어교육학과’이므로 이를 (29ㄴ)과 같이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단위별로 띄어 쓰는 것만이 허용되었으므로 이를 (29ㄷ)과 같이 쓸 수는 없다.

기관명이나 단체명도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

- (30) ㄱ. 교육 과학 기술부 학교 지원국(원칙)
- ㄴ.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허용)

- (31) ㄱ. 대통령 직속 교육 개혁 위원회(원칙)
- ㄴ.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허용)
- ㄷ. 대통령직속 교육개혁위원회(×), 대통령 직속교육개혁위원회(×)

(30)처럼 기관명 역시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 다만 (31)과 같이 기관명에 ‘직속’, ‘산하’, ‘부설’ 등이 포함된 경우 ‘직속’, ‘산하’, ‘부설’ 등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앞뒤를 모두 띄어 쓴다.

전문 용어도 고유 명사와 마찬가지로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전문 용어는 전체를 붙여 쓸 수 있다.

- (32) ㄱ. 만성 골수성 백혈병(원칙)
- 나. 만성골수성백혈병(허용)
- (33) ㄱ. 도면 그리기와 도면 읽기(원칙)
- 나. 도면그리기와 도면읽기(원칙)
- ㄷ. 간단한 도면 그리기

다만 (33ㄷ)과 같이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구조라면 붙여 쓸 수 없다. 이때에는 ‘간단한’이 ‘도면 그리기’를 수식하지 않고 ‘도면’을 수식하기 때문이다.

전문 용어 중 단어별로 띄어 쓰지 않고 항상 붙여 쓰는 것도 있다.

- (34) ㄱ. 두시연해
- 나. 중간 두시연해
- (35) ㄱ.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알루미늄
- ㄷ. 수산화 이온/수산화이온

(34)과 같이 책명은 항상 붙여 쓴다. 그러나 ‘중간’과 같이 책명이 아닌 책을 설명하는 말이 붙으면 이는 띄어 쓴다. 그리고 화학 전문어 중에서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알루미늄’과 같이 화학 전문어가 하나의 화합물일 경우에는 붙여 쓴다. 그러나 하나의 화합물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뒤에 붙은 말이 친숙한 자립 명사라면 편의상 띄어 쓴다.

## <참고 문헌>

- 국립국어원 편(1988/2007), 한국 어문 규정집.
- 권미영(2008), 띄어쓰기, 바른 국어 생활(교사 직무 연수 교재), 국립국어원.
- 이운영(2009), 띄어쓰기, 바른 국어 생활(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국립국어원.
- 정희창(2009), 띄어쓰기, 바른 국어 생활(원내 국어문화학교 교재), 국립국어원.

[띄어쓰기 연습 문제]

1. 저녁에 술 {한잔/한√잔} 합시다.
2.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딱 {한잔/한√잔}만 할게요.
3. 이번 면접이 잘 {안되었대요/안√되었대요}.
4. 그래서 풀 죽어 있는 것을 보니 {안됐더라/안√됐더라}.
5. 방 안을 {둘러보았다/둘러√보았다}.
6. 설날에 선생님 댁에 {찾아가서/찾아√가서} 세배를 드렸다.
7. 이대로 {주저앉을/주저√앉을} 수는 없다.
8. 손을 {모아잡고/모아√잡고} 기도하고 있었다.
9. 할인 매장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주워담기에/주워√담기에} 바빴다.
10. {나가면서까지도/나가면서√까지도} 책을 보았다.
11. {여기에서부터입니다/여기에서√부터입니다/여기에서부터√입니다}.
12. 아직은 {좋아한다기보다/좋아한다기√보다} 호감이 있는 정도이다.
13. {"그래."라고/"그래."√라고} 그가 말했다.
14. {"그래."하고/"그래."√하고} 그가 말했다.
15. 철수는 {너하고/너√하고} 다투었다.
16. {소같이/소√같이} 일만 했다.
17. {친구와같이/친구와√같이} 사업을 했다.
18. 나는 {내나름대로/내√나름대로/내√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19. {너때문에/너√때문에} 힘들었다.
20. 동생은 내 말에 {들은척도/들은√척도} 않는다.
21. {말하는이가/말하는√이가} 누구지?
22. 내일 뭐 {할거니/할√거니}?
23. 비가 와야 {할텐데/할√텐데}.
24. {틈나는대로/틈나는√대로} 자료를 찾았다.
25. 처벌은 {범대로/범√대로} 해야 한다.
26. {주는만큼/주는√만큼} 받는다.
27. 나도 {당신만큼/당신√만큼} 할 수 있다.
28. 그가 화를 {낼만도/낼√만도} 하다.
29. 청군이 {백군만/백군√만} 못하다.
30. 그때 이후 {삼년만/삼√년만/삼√년√만}이다.
31. 서류를 {검토한바/검토한√바} 몇 가지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었다.

32. 나라의 발전에 {공헌하는바/공헌하는▽바} 크다.
33. 그를 {만난지/만난▽지} 꽤 오래되었다.
34. 무엇이 {틀렸는지/틀렸는▽지} 답을 맞춰 보자.
35. 차는 이미 {떠난걸/떠난▽걸}.
36. 그렇게 {좋아하는걸/좋아하는▽걸} 어떻게 안 해?
37. {부모자식간/부모▽자식간/부모▽자식▽간}
38.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간에/하든지▽간에} 열심히만 해.
39. 내일부터 {한달간/한▽달간/한▽달▽간} 휴가입니다.
40. 오늘 {제3차/제▽3차/제3차/제▽3차} 회의를 진행합니다.
41. 학생은 모두 {40여명/40여명/40여▽명/40여▽명} 정도입니다.
42. 연령은 대개 {30세가량/30세가량/30세▽가량/30세▽가량}입니다.
43. {삼천오백이십일억삼천오백/삼천오백이십일억▽삼천오백}
44. {육조팔억칠천/육조▽팔억칠천/육조팔억▽칠천/육조▽팔억▽칠천}
45. {국장겸과장/국장겸▽과장/국장▽겸▽과장}
46. {열내지스물/열내지▽스물/열▽내지▽스물}
47. {청군대백군/청군대▽백군/청군▽대▽백군}
48. {기간및경비/기간및▽경비/기간▽및▽경비}를 명시 바람.
49. 교실에는 책상, {결상등/결상▽등}이 있다.
50. 고기를 {잡아본다/잡아▽본다}.
51. 고기를 {잡아서본다/잡아서▽본다}.
52. 사과를 {깎아드린다/깎아▽드린다}.
53. 사과를 {깎아서드린다/깎아서▽드린다}.
54. 나무가 {늪어간다/늪어▽간다}.
55.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이겨▽냈다}.
56. 좋은 내용을 {알아가지고간다/알아가지고▽간다/알아▽가지고▽간다}.
57. 오늘 꼭 {하고싶은/하고▽싶은} 것이 있다.
58. 공부는 {하지않고/하지▽않고} 잠만 자면 안 된다.
59. 그 사람은 {학자인양한다/학자인양▽한다/학자인▽양한다}.
60. 나를 {모르는체하고/모르는체▽하고/모르는▽체하고} 갔다.
61. 하늘을 보니 비가 {올듯싶다/올듯▽싶다/올▽듯싶다}.
62. 값을 {물어만보았다/물어만▽보았다}.
63. 홍수에 모든 것이 {떠내려가버렸다/떠내려가▽버렸다/떠▽내려가버렸다}.
64. 하늘을 보니 비가 {올듯도싶다/올듯도▽싶다/올▽듯도▽싶다}.

65. 요즘 {각(各)가정/각∨가정}에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66. {각(各)인/각∨인}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67. {본(本)국어원/본∨국어원}에서 교육을 합니다.
68. {본(本)원/본∨원}에서는 역량 있는 지도자를 모십니다.
69. {순(純)한국식/순∨한국식}으로 음식을 차렸다.
70. 이번에 {순(純)이익/순∨이익}이 크게 났다.
71. {총(總)인원/총∨인원}이 40여 명이다.
72. {총(總)인구/총∨인구}의 80%가 대학 진학을 희망하고 있다.
73. 페러데이의∨법칙/페러데이의법칙
74. 국립∨국어원장/국립국어원장
75. 문화∨체육∨관광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
76. 병조∨판서/병조판서
77. 소학∨언해/소학언해
78. 중간∨소학∨언해/중간∨소학언해/중간소학언해
79. 김∨강사와∨T∨교수/김강사와∨T교수/김강사와T교수
80. 아세트산∨에틸/아세트산에틸
81. 아세트산∨이온/아세트산이온
82. 화염사∨사∨사자∨삼∨층∨석탑/화염사∨사사자∨삼층∨석탑/화염사사사자삼층석탑
83. 구∨개국∨협정/구개국∨협정/구개국협정
84. 직업∨전∨교육/직업전∨교육/직업전교육
85. 핵∨외∨유전/핵외∨유전/핵외유전
86. 대통령∨직속∨국가∨안전∨보장∨회의/대통령∨직속∨국가안전보장회의/대통령직속국가안전보장회의
87. 서울∨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서울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서울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88. 장∨쩌민/장쩌민
89. 도요토미∨히데요시/도요토미히데요시
90. 헤르만∨헤세/헤르만헤세
91. 레오나르도∨다∨빈치/레오나르도∨다빈치
92. 돈∨후안/돈후안
93. 돈∨키호테/돈키호테
94. 세종∨대왕/세종대왕

95. 유리 ∨ 왕/유리왕
96. 아소카 ∨ 왕/아소카왕
97. 빅토리아 ∨ 여왕/빅토리아여왕
98. 지중 ∨ 해/지중해
99. 카리브 ∨ 해/카리브해
100. {K ∨ 시/K시} 축제
101. 워싱턴 ∨ 주/워싱턴주
102. 리오그란데 ∨ 강/리오그란데강

## 외래어 표기

정회원 | 국립국어원 어문연구팀장



# 외래어 표기법

정희원 | 국립국어원 어문연구팀장

## I. 외래어의 정의와 외래어 표기법

외래어는 우리말에 원래 있던 말이 아니라 외국어에서 들어온 말을 가리킨다. 외래어와 외래어 아닌 말의 구별이 단순하지는 않다. 외래어를 외국어에서 들어온 말이라고 했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외국어에서 들어온 말 외에 외국어를 재료로 해서 만든 말도 외래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백미러’ 같은 말은 외국어에서 들어온 말이라 할 수 없다. 어떤 외국어에도 ‘백미러’란 말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백미러’가 한국어에 원래 있던 말은 더욱 아니다. ‘백미러’는 ‘백’과 ‘미러’ 같은 외국어를 재료로 해서 새로 만든 말인데 이런 말도 외래어의 범주에 든다.

외래어를 ‘외국어에서 들어온 말’이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어떤 말이 외래어나 아니냐 판정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왜냐하면 외국어에서 우리말에 들어온 시기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들어온 지 아주 오래된 말은 일반인들은 그런 사실 자체를 잘 느끼지 못한다. ‘수라’나 ‘송골매’ 같은 말은 수백 년 전에 우리말에 들어온 말이지만 너무 오래되어 어원을 연구하는 학자들 외에는 외래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이에 반해, ‘빌딩’, ‘인터넷’ 같은 말은 누구라도 외국어에서 들어온 말이라는 사실을 잘 안다. 외래어라고 해도 들어온 시기가 다 다르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외래어나 아니냐의 구별이 특히 어려운 경우는 고유명사, 특히 지명, 인명이다. 외국의 지명을 외래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외래어가 아니라 외국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하와이’는 외래어인가, 외국어인가. ‘런던’은 외래어인가, 외국어인가. 여기서 외래어는 뭐고 외국어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마주친다.

외래어나 외국어나의 문제는 지명, 인명 등의 고유명사에서만 생기는 건 아니고 보통명사에서도 생긴다. 이를테면 집이 없어 한테서 자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노숙인’도 있지만 ‘홈리스’라는 말도 간혹 사용되는 걸 볼 수 있다. 이때 ‘홈리스’는 외래어인가, 외국어인가. 국어 속에 널리 사용되어 국어의 일부로 쓰이는 말이 외래어요 그렇지 못하고 외국어처럼 느껴지는 말은 외국어라 하겠으나 특정 단어를 놓고 외래어인지 외국어인지를 판정하기란 쉽지 않다.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홈리스’가 외래어이든 외국어이든 국어의 문맥 속에서 사용하려면 표기는 통일되어야 한다. 외국의 지명, 인명이 외래어이든 외국어이든 국어의 문맥 속에서 사용하려면 한글로 표기되어야 하고 그 표기는 통일되어야 한다.

위에서 외래어의 정의는 쉬우나 특정 단어가 외래어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쉽지 않음을 보았다. 외래어는 우리말에 들어온 시기가 단어마다 다른데 들어온 지 오래된 말은 원래부터 있던 우리말과의 구별이 쉽지 않고,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말은 외국어와의 구별이 쉽지 않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말이거나 지명, 인명과 같은 고유명사는 단어의 형태가 유동적이라는 것이다. 위에서 예로 든 ‘수라’나 ‘송골매’ 같은 말은 워낙 들어온 지 오래된 말이라 말할 필요도 없고 ‘빵’이나 ‘호텔’ 같은 말은 들어온 지 오래되어 다른 어형이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스’, ‘가스’ 같은 말은 꽤 된 말임에도 불구하고 ‘주스’ 외에 ‘쥬스’가 사용되고, ‘가스’ 외에 ‘개스’, ‘까스’ 같은 말이 쓰인다.

지명, 인명의 형태가 고정되지 않고 같은 말이 여러 형태로 쓰이는 예는 부지기수다. ‘네덜란드/네델란드’, ‘캐나다/카나다’, ‘키르기스스탄/키르기즈스탄’, ‘후지쓰/후지쯔’, ‘케인스/케인즈’, ‘티베트/티벳’, ‘모차르트/모짜르트’, ‘테제베/떼제베’, ‘양투아네트/양트와네트/양투와네트’ 등 셀 수 없을 정도다.

이러한 표기의 혼란은 바람직할 리가 없다. 개념이 같은데 어형이 다른 것은 혼란만 초래할 뿐 득이 될 게 없기 때문이다. 외래어의 한글 표기는 통일되어야 하고 그래서 외래어 표기법이 있다. 외래어 표기법은 한글 표기의 통일을 위한 것이다.

외래어 표기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외래어 표기법은 크게 보아 규칙과 관용으로 이뤄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규칙에 따라서 한글 표기를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관용이 있을 경우에는 관용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관용이 있는 경우에는 규칙과 상관없이 그 관용을 따라 적으면 된다.

예컨대 ‘모텔’은 영어 model에서 온 말인데 규칙에 따르면 ‘모들’이어야 한다. 그러나 ‘모텔’이 관용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모텔’로 적어야 한다. 관용이 규칙

에 우선하는 것이다. ‘껌’은 영어 gum에서 온 말인데 규칙에 따르면 ‘껌’이어야 하지만 ‘껌’으로 굳어져 있으므로 ‘껌’으로 적어야 한다. 미국의 도시 New York은 규칙에 따르면 ‘뉴욕’이다. 그러나 ‘뉴욕’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뉴욕’으로 적는다.

이렇게 규칙과 다르게 굳어진 말인 경우에는 굳어진 관용대로 적지만 그렇지 않은 말은 규칙대로 적어야 한다. 규칙대로 적는다고 할 때에 규칙을 알고 있어서 그 규칙을 적용해서 적을 수도 있지만 규칙을 모르더라도 사전이나 외래어 표기 용례집을 찾아보고 이를 따라도 된다. 규칙을 알고 있으면 굳이 사전이나 외래어 표기 용례집을 찾아보지 않아도 되지만 규칙을 모르면 일일이 사전이나 외래어 표기 용례집을 뒤지는 수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인이라면 복잡한 외래어 표기법 규칙을 공부해서 기억할 필요가 없겠지만 언론사, 출판사에 근무하는 전문 교열자라면 외래어 표기법 규칙을 이해하고 있는 게 더 편리하다 할 것이다. 예컨대 일본의 對馬島를 한글로 ‘쓰시마’라고 해야 할지 ‘쓰시마’라고 해야 할지 ‘츠시마’라고 해야 할지 모를 때에 외래어 표기법의 일본어 표기 원칙을 알고 있다면 주저 없이 ‘쓰시마’라고 할 것이다. 반대로 그런 규칙이 있음을 모른다면 사전이나 외래어 표기 용례집을 찾아보아야 한다.

단순히 편리함 외에도 언론사나 출판사 종사자들이 외래어 표기법 규칙을 알고 있어야 할 까닭이 또 있다. 모든 외래어가 사전이나 외래어 표기 용례집에 등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방대한 양의 표제어를 담고 있는 사전, 용례집이라도 지구상의 모든 지명, 인명을 다 담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거의 모든 지명, 인명을 담은 용례집이 갖추어지는 게 좋겠지만 그렇게 되려면 노력과 시간이 여간 필요하지 않다.

## II.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 원칙과 규칙

### 1.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 원칙

#### 1.1. 현용 한글 글자만을 쓰는 원칙

외래어는 외국어에서 온 말이다. 그런데 외국어의 발음을 한글로 적는 데는 한계가 있다. 여러 언어에 흔한 f 소리만 하더라도 한글로는 딱히 f에 해당하는 글자가 없다. 그래서 외국어 발음을 정확하게 적고자 한글에 특별한 부호를 붙인 새

글자를 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곤 한다. 그러나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이를 엄격히 금하고 있다.

어떤 외국어든지 한국어의 음가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거의 꼭 같다고 볼 수 있는 소리도 있고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인이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의 미세한 차이가 있는 소리도 있으며 누구나 쉽게 느낄 정도의 상당한 차이가 있는 소리도 있다. 같거나 미세한 차이가 있는 소리가 문제될 게 없다. 해당하는 한글 글자를 쓰면 된다.

문제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소리를 적을 때이다. 이런 소리를 적기 위해 현재 쓰고 있는 한글 외에 새로운 부호를 덧붙인 새 글자를 쓰기로 한다면 단지 f나 v에 그칠 수가 없다. 언어마다 한국어에는 없는 독특한 소리가 여럿 있는 게 보통이다.

그런 모든 소리를 위해 한글에 새로운 부호를 덧붙인 글자를 만든다면 얼마나 많은 글자를 새로 만들어야 할지 모른다. 이를테면 프랑스어의 temps은 ‘탕’도 아니고 ‘탄’도 아니다. 모음이 코로 소리가 나는 비모음이어서 ‘타’에 특별한 부호를 덧붙이는 새 글자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일본어의 축음도 ‘ㄴ’도 아니고 ‘ㅇ’도 아니기 때문에 제3의 글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렇게 한국어와 소리가 다르다고 해서 일일이 새로운 글자를 만들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f, v 같은 글자만 예외적으로 새 글자를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한글 글자만으로 적도록 하였다.

## 1.2. 1음운 1기호의 원칙

외국어의 1음운은 한글로 적을 때에 늘 동일한 기호로 적는 원칙을 말한다. 언제 어떤 경우에도 같은 한글로 적어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예컨대 v 소리를 어떤 경우에는 ‘ㅂ’으로 적고 어떤 경우에는 ‘우’로 적도록 한다면 규칙이 복잡해서 따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규칙은 간명해야 따르는 데 무리가 없다.

## 1.3. 된소리를 쓰지 않는 원칙

외래어 표기법에는 “파열음의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p, t, k를 적을 때는 ㅍ, ㅌ, ㅋ로 적고 ㅃ, ㅆ, ㄱ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외래어를 적을 때에 ㅃ, ㅆ, ㄱ을 쓰는 것을 제한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그렇게 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당한 근거가 있다. 영어, 독일어 따위는 p, t, k가 ㅍ, ㅌ, ㅋ에 가깝지만 프랑스어, 러시아

어, 스페인어 등은 p, t, k가 ㅃ, ㅌ, ㄱ에 가깝다. 만일 원음에 가까운 대로 적기로 했다면 외래어의 원어가 된소리에 가까운 언어인지 거센소리에 가까운 언어인지를 가려서 적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 자체가 번거롭고 복잡하다. 규칙은 간단명료한 게 좋다는 점에서 모든 언어의 무성 파열음은 된소리를 쓰지 않고 거센소리만 쓰게 통일한 것이다.

(이 원칙은 2004년 들어와서 베트남어와 타이어의 표기법을 제정하면서 일부 무너졌다. 베트남어와 타이어는 자음이 한국어처럼 3분 대립을 보이는 언어여서 3분 대립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된소리를 쓸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1.4. 받침에는 7개의 자음만을 쓰는 원칙

외래어는 받침에 ‘ㄱ, ㄴ, ㄷ, ㅁ, ㅂ, ㅅ, ㅇ’만을 쓰고 ‘ㅋ, ㅌ, ㅍ’ 따위를 쓰지 않는 원칙인데 이 원칙은 예외가 인정되는 된소리 적기와 달리 단 하나의 예외도 없다. 외국어가 한국어에 들어와 쓰이면 한국어의 특징에 맞게 사용된다. cup이라는 영어 단어는 영어 속에서 "The cup is full."이라고 할 때에 cup의 p 발음이 살아나지만 한국어에서 ‘컵’이라고 쓰이면 ‘컵-이’, ‘컵-을’의 발음은 [커피], [커피]이지 [커피], [커피]로 발음되지 않는다. 받침이란 조사가 이어질 때에 어떻게 발음되는지에 따라 적는 것이므로 [커피], [커피]로 발음되는 이상 ‘컵’이라고 적어야 한다. ‘컷’이라고 적을 이유가 전혀 없다. 이는 모든 외래어에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외래어 받침에는 ‘ㄱ, ㄴ, ㄷ, ㅁ, ㅂ, ㅅ, ㅇ’만을 쓰는 것이다. ‘케익’이라는 표기가 시중에서 간혹 쓰이지만 ‘케이’이면 ‘케이’이었지 ‘케이’는 될 수가 없는데 이 단어의 바른 표기는 ‘케이크’이다.

#### 1.5. 관용을 존중하는 원칙

관용은 규칙에 우선한다. 규칙을 적용한 결과와 다르게 이미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경우는 당연히 굳어진 관용에 따른다. 외래어 표기법은 표기의 통일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이미 통일된 표기가 있는 것이면 그걸 따르던 되지 원음에 가깝게 하려고 세상에서 쓰지도 않는 어형을 써야 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관용의 범위이다. 관용의 범위에 대해서는 1986, 1987년에 외래어표기용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외래어 표기 용례집으로 나왔고 사전에 반영되어 있다. 요즘 새로 생기는 말으면서 생기기 바쁘게 독특하게 고정되는 것들도 있다. 그런 말에 대해서는 199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알리고 있다.

## 2. 외래어 표기법의 규칙

### 2.1. 국제음성기호와 한글 대조표

한국어에서 쓰이는 외래어 중에서 지명, 인명 등 고유명사가 아닌 보통명사는 영어에서 들어온 것이 가장 많다. 영어에서 온 외래어는 한글 표기를 할 때에 국제음성기호와 한글 대조표에 따른다. 물론 굳어진 말은 예외이다. New York는 국제음성기호와 한글 대조표에 따르면 ‘뉴욕크’지만 ‘뉴욕’으로 굳어졌으므로 ‘뉴욕’으로 적어야 하고 Michigan은 대조표에 따르면 ‘미시건’이지만 ‘미시간’으로 굳어졌으므로 ‘미시간’으로 적어야 한다. 이렇게 굳어진 말 이외에는 국제음성기호와 한글 대조표에 따라 적는다.

국제음성기호와 한글 대조표에서 의아하게 생각될 수 있는 것도 있다. f가 ‘ㅍ’, v가 ‘ㅂ’으로 된 것은 f, v가 ‘ㅍ’, ‘ㅂ’과 소리가 같다는 뜻이 아니다. f는 마찰음이기 때문에 파열음인 ㅍ과 소리가 다르다. 그러나 비교적 근사하다. ‘ㅎ’이 f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f는 윗입술과 아랫니 사이에서 나는 소리이고 ‘ㅎ’은 그 위치에서 나지 않으므로 다른 소리다. 어쨌든 f에 근사한 소리는 ‘ㅍ’과 ‘ㅎ’인데 어느 하나로 통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ㅍ’으로 통일한 것이다. file과 pile을 구별하지 못하지 않느냐고 물을 수 있겠지만 ‘ㅎ’으로 하더라도 fight와 white를 구별하지 못하므로 똑같은 문제가 생긴다.

θ가 모음 앞에서는 ‘스’,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스’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thrill[eril]에서 온 말은 ‘스릴’이다. ð는 모음 앞에서는 ‘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트’이다. 따라서 smooth[smu:ð]는 ‘스무드’이다. 마찰음인 s는 ‘ㅅ’이 아니라 ‘ㅈ’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system, sign, set 같은 말은 ‘씨스템’, ‘싸인’, ‘세트’가 아니라 ‘시스템’, ‘사인’, ‘세트’이다.

파열음 표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파열음이 단어 끝에 왔을 때이다. 단모음[짧은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 파열음은 받침으로 적지만 그 밖의 경우는 ‘으’를 받쳐 적는 것이 큰 원칙이다. 단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 파열음은 gap, Jack, book, snap, bonnet 같은 경우를 말한다. 이런 경우에는 ‘갭’, ‘잭’, ‘북’, ‘스냅’, ‘보닛’과 같이 적지 ‘개프’, ‘채크’, ‘부크’, ‘스내프’, ‘보니트’라 적지 않는다. 그런데 harp, beep, York, port처럼 모음이 장모음일 때에는 파열음이 어말에 오더라도 받침으로 적지 않고 ‘으’를 붙인다. 따라서 ‘하프’, ‘비프’, ‘요크’, ‘포트’와 같이 적는다. 장모음이 아니라 이중모음일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skate, lake, tape 같은 말은 따라서 ‘스케이트’, ‘레이크’, ‘테이프’가 된다.

그런데 이런 규칙은 그리 엄격한 것은 아니다. 어말 무성 파열음 p, t, k 가운데서 t는 독특한 면이 있다. 1음절 단어일 때에는 받침으로 적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bat, set, net, nut, mat, mitt, jet, knot, pet 같은 말은 ‘배트’, ‘세트’, ‘네트’, ‘너트’, ‘매트’, ‘미트’, ‘제트’, ‘노트’, ‘페트’로 굳어져 있다. cut 같은 말은 의미에 따라서 ‘컷트’인 경우와 ‘컷’인 경우가 있다.

b, d, g 같은 유성자음은 더욱 그러하다. b, d, g는 어말에 왔을 때에 ‘으’를 붙여 적는 규칙이 마련되어 있지만 예외인 단어가 많다. d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b, g는 ‘으’를 붙이지 않고 받침으로 적는 경우가 꽤 있다. hub는 ‘허브’이지만 jab은 ‘잼’이다. gag, zigzag는 ‘개그’, ‘지그재그’이지만 handbag은 ‘핸드백’이다.

파찰음인  $\text{dʒ}$ , 마찰음인  $\text{ʒ}$ 는 ‘ㅈ’에 대응되어 있다. 따라서 vision[ˈvɪʒən], juice[ˈdʒuːs]는 ‘비전’, ‘주스’지 ‘비전’, ‘쥬스’가 될 수 없다. 파찰음인  $\text{tʃ}$ 도 그냥 ‘ㅈ’으로 대응되기 때문에 chart[ˈtʃɑːt]는 ‘차트’이지 ‘챗트’일 수 없다. 외래어에서 ‘ㅈ’, ‘ㅈ’ 다음에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이중모음을 적지 않는다.

마찰음  $\text{ʃ}$ , 파찰음  $\text{tʃ}$ 는 어말에 왔을 때 그 외래어의 원어가 어떤 언어냐에 따라 표기가 다르다. 영어에서 온 말일 경우  $\text{ʃ}$ 는 ‘시’,  $\text{tʃ}$ 는 ‘치’로 적는다. 따라서 cash, English는 ‘캐시’, ‘잉글리시’이고 church, match는 ‘처치’, ‘매치’이다. ‘쉬’나 ‘취’로 적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독일어나 프랑스어에서  $\text{ʃ}$ 가 어말에 왔을 때에는 ‘슈’로 적는다. 따라서 독일어의 Mensch[ˈmɛnʃ]는 ‘멘슈’이고 프랑스어의 Scaramouche는 ‘스카라무슈’이다.

모음  $\text{ə}$ 는 ‘어’,  $\text{ʌ}$ 도 ‘어’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text{ʌ}$ 는 한국어의 ‘어’와 ‘아’ 중간쯤에 있는 소리여서 ‘아’처럼 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하나로 고정할 필요가 있고 ‘어’로 고정한 것이다.

중모음 ai, au, ei, oi는 ‘아이’, ‘아우’, ‘에이’, ‘오이’로 적지만 ou는 ‘오우’로 적지 않고 ‘오’로 적는다. 따라서 boat[bout], snow[snou], Window[windou] 같은 말은 ‘보트’, ‘스노’, ‘윈도’로 적는다.

## 2.2. 독일어의 표기에서 유의할 사항

독일어는 영어와 마찬가지로 각 단어의 발음은 국제음성기호로 표시된다. 따라서 독일어에서 온 외래어는 독일어 사전에 나와 있는 국제음성기호를 보고 외래어 표기법을 적용한다. 독일어의 철자 w는 규칙적으로 v 발음을 나타내고 v는 f 발음으로, 어말의 d, g는 t, k 발음으로 나므로 이러한 발음을 따라서 한글 표기를 해야 한다.

독일어에서는 단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 파열음을 영어처럼 받침으로 적지 않고

‘으’를 붙여 적는다. 따라서 Rostock, Lübeck는 ‘로스토크’, ‘뤼베크’이다. 독일어의 파찰음 ts는 ‘츠’이지 ‘쯔’가 아니다. 따라서 Mozart, Zürich는 ‘모차르트’, ‘쥘리히’가 아닌 ‘모차르트’, ‘쥘리히’이다.

### 2.3. 프랑스어의 표기에서 유의할 사항

프랑스어도 영어, 독일어와 마찬가지로 각 단어의 발음은 국제음성기호로 표시되므로 이를 보고 한글 표기를 한다. 프랑스어는 표기는 되지만 발음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철자만 가지고는 발음을 알기 어렵고 발음 기호를 확인해야 한다.

프랑스어의 p, t, k는 영어나 독일어의 p, t, k와 발음이 사실 꽤 다르다. 한국인 귀에는 된소리인 ‘ㅃ’, ‘ㄸ’, ‘ㄱ’에 가깝게 들리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외래어 표기법은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기 때문에 프랑스어의 p, t, k도 ‘표’, ‘트’, ‘크’로 적는다. ‘빠리’, ‘떼제베’, ‘생텍쥐페리’, ‘까뮈’ 같은 말이 널리 쓰이기는 하지만 바른 표기가 아니다. ‘파리’, ‘테제베’, ‘생텍쥐페리’, ‘카뮈’라 적어야 한다. 프랑스어의 파열음은 어말에 올 때에 ‘으’를 붙여 적는다.

프랑스어의 반모음은 주의해서 적어야 한다. Marseille[marsej], Versailles[versaj]는 어말이 ej, aj로 끝났는데 반모음 j를 ‘유’로 적도록 되어 있으니 ‘마르세유’, ‘베르사유’로 적어야 한다. 반모음 w는 따로 ‘우’로 적게 되어 있다. 따라서 Renoir[rənwar], Beauvoir[bovwar]는 ‘르누아르’, ‘보부아르’가 맞으므로 ‘르노와르’, ‘르느와르’, ‘보브와르’, ‘보부와르’로 적지 않도록 해야 한다.

Seine[sen]의 경우 ‘세느’라 하지 않고 ‘센’이며 Cannes[kan]도 ‘칸느’나 ‘칸느’가 아닌 ‘칸’이다. 어말의 ʒ는 ‘주’이므로 rouge[ruʒ]는 ‘루주’, collage[kolaʒ]는 ‘콜라주’이다.

### 2.4. 에스파냐어의 표기

에스파냐어(스페인어)는 별도로 발음 기호가 필요치 않고 철자가 곧 발음 기호이다. 따라서 국제음성기호와 한글 대조표를 쓸 필요가 없고 쓰기도 어렵다. 따라서 별도의 에스파냐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를 통해서 한글 표기를 한다.

에스파냐어는 g가 ‘ㄱ’ 또는 ‘ㅎ’으로 발음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h는 묵음이다. j는 ‘ㅎ’으로 소리 난다. ll은 ‘이’로 나는데 뒤에 나오는 모음과 합쳐서 적는다. z는 ‘스’로 소리 난다. Sevilla는 ‘세빌라’가 아닌 ‘세비야’이며 Venezuela는 ‘베네주엘라’가 아니라 ‘베네수엘라’이다.

## 2.5. 이탈리아어의 표기

이탈리아어 역시 스페인어와 마찬가지로 별도로 발음 기호가 없으며 철자가 곧 일정한 발음을 가리키므로 국제음성기호와 한글 대조표를 이용하지 않고 별도의 이탈리아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를 통해 한글 표기를 한다.

이탈리아어 자모에서 특이한 것은 c와 g가 e, i 앞에서는 ‘츠’, ‘즈’로, 그 밖의 모음 앞에서는 ‘크’, ‘기’로 소리 난다는 것이다. h는 소리 나지 않으며 z은 ‘츠’으로 소리 난다. 그리고 같은 자음이 겹쳤을 때에는 겹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적는다.

c와 g 다음에 ia, io, iu가 올 때에는 각각 ‘차’, ‘초’, ‘추’와 ‘자’, ‘조’, ‘주’로 적는다. ‘츠’과 ‘즈’ 다음에 이중모음이 오지 않도록 한 것이다.

## 2.6. 일본어의 표기

일본어 역시 국제음성기호와 한글 대조표를 따르지 않고 별도의 일본어의 가나와 한글 대조표에 따라 한글 표기를 한다.

일본어의 경우 자음이 어두에 왔을 때와 어중이나 어말에 왔을 때 달리 적는 경우가 있다. 東京[Tokyo]의 경우 ‘토쿄’가 아니라 ‘도쿄’라 적고 京都[Kyoto]의 경우 ‘쿄토’가 아니라 ‘교토’로 적는다. 즉 어두에 왔을 때에는 예사소리로 적고 어중에 왔을 때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그래서 田中は ‘타나카’가 아니라 ‘다나카’, 神戸는 ‘코베’가 아니라 ‘고베’로 적는다.

일본어의 장음은 한글 표기에서 무시된다. 장단이 의미 구별을 해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어에 대해서만 장음을 표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大坂은 ‘오오사카’가 아니라 ‘오사카’이다.

일본어 축음은 ‘스’으로 통일해서 적는다. 따라서 ‘혹카이도’가 아니라 ‘홋카이도’이다. 일본어 ッ는 ‘쯔’나 ‘쯔’가 아니라 ‘쓰’임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쯔시마’가 아니라 ‘쓰시마’, ‘후지쯔’가 아니라 ‘후지쓰’이다.

## 2.7. 중국어의 표기

중국어도 국제음성기호와 한글 대조표를 따르지 않고 별도의 대조표인 중국어의 주음부호와 한글 대조표를 따라 한글 표기를 한다.

중국어 표기에도 파열음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다. 다만 파찰음인 ‘쯉’과 ‘쯔’은 사용한다. ‘양쯉강’, ‘쑤저우’ 같은 말이 그 예이다.

중국어의 성조는 무시된다. 표시할 방법이 마땅치 않고 다른 언어의 초분절 자질도 한글 표기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 2.8. 일본어, 중국어의 인명, 지명 표기

일본어와 중국어의 인명, 지명은 한자로 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한자의 발음이 한국어와 다르다. 현지 발음에 가깝게 적자면 일본어의 한자음, 중국어의 한자음에 따라 적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한국 한자음으로 읽으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외래어 표기법은 일본, 중국의 인명, 지명 표기 원칙을 이렇게 정하고 있다.

일본의 인명은 모두 일본 한자음에 따라 적는다. 따라서 ‘퐁신수길’, ‘이등박문’은 인정하지 않으며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토 히로부미’로 적는다. 일본의 지명도 일본 한자음에 따라 적되,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관용이 있는 것은 한국 한자음에 따른 표기도 복수로 허용한다. 즉 ‘도쿄’, ‘오사카’, ‘교토’, ‘홋카이도’로 적되 ‘동경’, ‘대판’, ‘경도’, ‘북해도’로 적을 수도 있다.

중국의 인명은 고대인은 한국 한자음으로 적고, 현대인은 중국 한자음으로 적는다. 19세기까지의 인물은 한국 한자음으로, 20세기 이후의 인물은 중국 한자음으로 적는 것이다. 따라서 ‘공자’, ‘맹자’, ‘손자’, ‘주자’, ‘왕안석’은 말할 것도 없고 ‘손문’, ‘장개석’, ‘모택동’으로 알려져 있는 인명도 ‘쑨원’, ‘장제스’, ‘마오쩌둥’으로 적는다.

중국의 지명은 오늘날에 없는 역사 지명은 한국 한자음으로 적고 오늘날의 지명과 동일한 경우는 중국 한자음으로 적는다. 중국 지명도 일본 지명과 마찬가지로 한국 한자음의 관용이 남아 있는 몇몇은 그것도 복수로 허용한다. 따라서 ‘베이징’, ‘상하이’, ‘선양’으로 적되 ‘북경’, ‘상해’, ‘심양’으로 적는 것도 인정한다.

## 2.9. 그 밖의 언어의 표기

1992년 폴란드어, 체코어, 세르보크로아트어, 루마니아어, 헝가리어 표기법이 추가로 고시되었다. 1995년에는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의 표기법이 추가로 고시되었다. 이어서 2004년에는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타이어, 베트남어의 표기법이 추가로 고시되었다. 그리고 2005년에는 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 러시아어 표기법이 고시되었다.

이들 언어는 모두 해당 언어의 철자가 일정하게 발음되기 때문에 국제음성기호와 한글 대조표를 이용할 필요 없이 해당 언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를 적용하여 한글 표기를 한다. 폴란드어의 경우 종래에 ‘그다니스크’로 표기되던 것이 원음에 가깝게 ‘그단스크’로 바뀌었으며 종래에 ‘고물카’로 불리던 정치가 Gomulka는 ‘고무우카’로 바뀌었다. 헝가리어의 a는 음가가 한국어의 ‘어’에 가깝기 때문에 ‘어’로

정하였다. 그래서 호수인 Balaton호는 ‘벌러톤호’이다. 다만 굳어진 말은 예외여서 Budapest는 관용대로 ‘부다페스트’로 하였다.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는 서로 다른 언어이지만 상당히 비슷한 언어이다. 새로 정해진 표기법에 따라 한글 표기가 원음에 가까워졌다. ‘외테보리’로 흔히 불리던 스웨덴의 Göteborg는 ‘예테보리’가 되었고 Linköping은 ‘린셰핑’이다. 덴마크의 철학자 Kiekegaard는 ‘키에르케고르’로 알려져 있었는데 ‘키르케고르’로 되었다. 물론 확실히 굳어진 말은 관용을 인정하여 동화 작가인 Andersen은 표기법에 따르면 ‘아네르센’이지만 관용인 ‘안테르센’을 인정하였다.

말레이인도네시아어의 어말 파열음은 받침으로 적게 되어 화폐 단위인 ringgit은 ‘링깃’, 섬 이름인 Lombok은 ‘롬복’이 되었다. 타이어, 베트남어에서는 파열음에 된소리 표기를 인정한 것이 매우 특이하다. 이들 언어는 파열음이 한국어처럼 세 가지로 갈라지고 그 소리가 각각 한국어의 소리와 흡사하기 때문에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를 모두 쓰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타이의 도시 Phuket은 ‘푸켓’에서 ‘푸켓’이 되었고 베트남의 ‘캄란’은 ‘깜라인’이 되었다. 베트남어의 표기는 특히 대폭 바뀌어 ‘나트랑’은 ‘냐짱’, ‘호치민’은 ‘호찌민’이 되었다.

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 역시 원지음에 가깝게 표기가 바뀌었다. 브라질 지명 Iguacú는 ‘이구아수’로, Rio Grande는 ‘히우그란지’로 바뀌었다. 네덜란드 인명 Erasmus는 ‘에라스무스’, 지명 Eindhoven은 ‘에인트호번’, Leiden은 ‘레이덴’으로 표기된다. 러시아어는 종래에 따로 표기법이 없었는데 새로 표기법을 고시하면서 일부 인명, 지명의 표기가 바뀌었다. ‘차이코프스키’, ‘도스토예프스키’, ‘하바로프스크’가 각각 ‘차이콥스키’, ‘도스토옌스키’, ‘하바롭스크’로 바뀌었고 ‘푸슈킨’에서 ‘푸시킨’으로, ‘루빈스타인’에서 ‘루빈슈테인’으로 바뀌었다.

### III. 외래어 표기 참고 자료

#### 1. 규칙

외래어 표기법은 1986년에 고시된 사항 외에 추가로 1992년에 고시된 동구 5개 언어의 표기법, 1995년에 고시된 북구 3개 언어 표기법, 2004년에 고시된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타이어, 베트남어 표기법, 2005년에 고시된 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 러시아어 표기법으로 되어 있다. 말하자면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고시되었다.

그런데 고시될 때마다 동시에 또는 이어서 용례집이 발간되었다. 용례집에 수록된 외래어는 표기 규칙이 적용된 경우가 많지만 이미 굳어진 말이 따로 있을 때에는 그 관용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바른 외래어 표기를 사용하려면 외래어 표기 용례집을 참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외래어에 대해 용례집을 참조하지 않고 표기법을 적용했다가 그 외래어에 이미 굳어진 관용이 있을 경우에는 낭패를 보기 쉽기 때문이다. 외래어 표기 용례집에 나오지 않은 말에 대해서는 물론 표기법 규칙을 적용한다.

국제음성기호와 한글 대조표를 비롯하여 외래어 표기법의 규칙에 대해서는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의 <자료 마당> 중 <어문 규정>에 들어 있는 <외래어 표기법>을 참조하면 된다. 여기에는 다섯 차례에 걸쳐 고시된 표기법이 한데 모여 있다. 물론 책자로 간행된 자료를 이용할 수도 있다. 그중의 하나는 대한교과주식회사에서 발행한 국어 어문 규정집이다.

## 2. 사전, 용례집

외래어 표기법의 각종 규칙을 이해하는 것도 편집자, 교열자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정확한 외래어 표기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단어의 바른 표기가 제시된 용례집이나 사전을 참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정보 마당> 중에서 <규범 표기 검색>을 이용하는 것이다. <규범 표기 검색> 안에 <외래어 표기법>에 들어가면 원어로도 검색할 수 있고, 한글 표기로도 검색할 수 있다. 원어에는 로마자, 한자를 넣을 수 있다. 원어를 알 경우에는 원어를 넣으면 바른 한글 표기가 나온다. 한글 표기에 바른 한글 표기를 입력하면 원어 정보가 나오고 틀린 한글 표기를 넣어도 바른 한글 표기와 틀린 한글 표기가 함께 나온다. 예컨대 한글 표기에 틀린 외래어 표기인 ‘부페’를 넣으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

buffet      뷔페(O), 부펫(X), 부페(X)

‘부페’는 틀린 표기이고 ‘뷔페’가 바른 표기임을 보여준다. 물론 어떤 틀린 표기라도 다 되는 것은 아니고 흔히 사용되는 틀린 표기인 경우에 한해 그러하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종이 사전을 참조할 수 있다. 종이 사전은 국립국어원 <규범 표기 검색>만큼 편리하지는 않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가 맞는지 ‘말레이시아’가 맞는지 확인하려면 표제어에서 ‘말레이시아’와 ‘말레이시아’를

다 확인해야 된다.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라는 기구가 있다. 고시된 외래어 표기법이 있지만 쏟아져 들어오는 모든 외래어의 표기를 고시된 규칙을 적용하여 결정하기는 어렵다. 고시된 규칙만 가지고는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규칙을 적용한 결과를 실제 사용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정해 놓은 규칙이 외래어 표기를 결정하는 데 100퍼센트 기능을 다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새로 들어오는 외래어 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 1991년에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가 결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회의의 결정 사항은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정보 마당>의 <규범 표기 검색>에서 검색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외래어 표기법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느냐고 항변한다. 언어와 관계없이 어떤 언어든 같은 로마자는 일정하게 한글 표기를 하면 편리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한국어만 사용하는 한글과 달리 로마자는 여러 언어가 사용하고 있고 언어마다 달리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 Charles를 영어에서는 ‘찰스’라 하고 프랑스어에서는 ‘샤를’이라 하는데 이런 차이를 무시할 수는 없다. 언어마다 달리 표기하는 것은 그 언어에 가장 가깝게 한글 표기를 하기 위함이다. 한글의 우수성을 주장하면서 각 언어의 발음의 차이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외래어 표기 연습

※ 다음 문장들을 살펴보고 외래어 표기를 바르게 고치시오.

1.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없는 한, 사람은 인생에 관하여 침묵을 지켜야 한다. - 카뮈(프랑스의 작가)
2. 스스로 자신을 해치는 사람과는 함께 말할 것이 못 되고, 스스로 자신을 버리는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 없다. 말로써 예의를 비난하는 자를 스스로 자신을 해친다 하고, 스스로를 인(仁)에 처하고 의(義)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자를 스스로 자신을 버린다고 하느니라. - 맹자(孟子; 중국의 철학자)
3. 진짜로 중대한 철학의 문제는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자살이다. 인생이 살만 하느냐 앓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일이야말로 철학의 근본 문제에 달하는 일이다. - 카뮈(프랑스의 작가)
4. 자살할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 테니슨(영국의 시인)
5.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 구양 수(歐陽修; 중국 철학자)
6.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 예수(기독교의 개조)
7. 죽음은 돌아오지 않는 파도이다. - 베르길리우스(로마의 시인)
8. 인생에게 종말이 없었다면 누가 자기 운명에 절망할 것인가. 죽음은 비운을 더없이 괴로운 것으로 만든다. - 보브나르그(프랑스의 모더니스트)
9. 죽음은 우리의 모든 비밀, 음모, 간계로부터 그 베일을 벗겨 버린다. - 도스토예프스키(러시아의 작가)
10. 새는 죽음을 당하면 그 소리 슬프고, 사람은 죽음을 당하면 어진 말을 남긴다. - 증자(曾子; 중국의 학자)
11. 죽음은 감각의 휴식, 충동의 절단, 마음의 만족, 혹은 비상 소집의 중지, 육체에 의 봉사의 해방에 지나지 않는다. - 아우렐리우스(로마의 황제)
12. 항상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사람만이 참으로 자유로운 인간이다. - 디오게네스(그리스의 철학자)
13. 태어난 자에게 죽음은 반드시 찾아온다. 죽은 자는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피

- 할 길 없는 길을 탄식해서는 안 된다. - <바가바드 기타>
14.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이다. - 셰익스피어(영국의 극작가)
  15. 명예로운 죽음은 불명예스러운 삶보다 낫다. - 타키투스(로마의 역사가)
  16. 우리는 모두 벌거숭이로 이 세상에 왔으니 벌거숭이로 이 세상을 떠나리라.  
- 이솝(그리스의 우화 작가)
  17.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불쌍하지만 죽음을 두려워 않는 사람은 더 불쌍하다.  
- 독일의 속담
  18. 아버지 왜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아직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 러시아의 속담
  19. 겁장이는 죽음에 앞서 몇 번이고 죽지만 용감한 사람은 한 번 밖에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 셰익스피어(영국의 극작가, 시인)
  20. 죽음은 우리들 모두가 갚아야 하는 빚이다. - 에우리피데스(그리스의 극작가)
  21.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는 인간은 행복하다고 할 수 없다. - 오비디우스(로마의 시인)
  22. 구질구질하게 살기보다는 깨끗이 죽는 편이 낫다. - 헝가리의 속담
  23. 인생이 끝나면 우리는 빈손으로 간다. - 중국의 속담
  24. 죽음은 모든 악을 고친다. - 이탈리아의 속담
  25. 죽음을 피하기보다 죄를 삼가는 것이 더 낫다. - 토마스캠피스(독일의 성직자)
  26. 인간의 일생은 구두쇠라도 양보하는 순간이 있다. 그것은 유언을 쓸 때이다.  
- 모랑(프랑스의 작가)
  27.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주듯이 잘 쓰여진 일생은 평안한 죽음을 준다.  
- 레오나르도 다빈치(이탈리아의 화가, 과학자)
  28. 이별의 시간이 왔다. 우린 자기 길을 간다. 나는 죽고, 너는 산다. 어느 것이 더 좋은가는 신만이 안다. - 소크라테스(그리스의 철학자)
  29. 산자는 모두 고통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 - 석가(불교의 교조)
  30. 의술로 생명이 연장될 수 있을지 모르나, 죽음은 의사에게도 엄습한다. - 셰익스피어
  31. 사람은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다. - S.존슨(영국의 문학자)
  32. 죽은 제왕보다는 살아 있는 거지가 더 낫다. - 라 폰테느(프랑스의 우화 작가)
  33. 인간이 품고 있는 죽음의 공포는 모두 자연에 대한 인식의 결여에서 유래한다. - 루크레티우스(로마의 시인, 철학자)
  34. 나는 불사(不死)를 믿고 싶다. 나는 영원히 살고 싶다. - 키츠(영국의 시인)

35. 오, 주여! 당신의 손에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 콜롬부스(이탈리아의 항해가)
36. 내 마음은 더없이 기쁘다. - 대커리(영국의 작가)
37. 씨라, 씨라! 종이..... 연필.....! - 하이네(독일의 시인)
38. 나는 이제 자고 싶다. - 바이런(영국의 시인)
39. 바라건대 신이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기를! - 파스칼(프랑스의 사상가, 수학자)
40. 나는 마실 수 없다.(한 모금의 밀크를 주었을 때) - 파스퇴르(프랑스의 세균학자)
41. 내 병이 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내가 이곳에 왔기 때문에. (폴란드에서 누이동생이 도착했을 때) - 롱펠로우(미국의 시인)
42.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를 근거로 삼아라. 진리를 근거로 삼아라. 다른 것을 근거로 삼지 말라. - 석가(불교의 교조)
43. 브루투스 그대도!(암살단의 테러로 쓰러졌을 때 심복 브루투스의 배신을 알고) - 케사르(시저; 로마의 황제)
44. 나는 철학자로서 살았다. 나는 한 기독교도로서 죽는다. - 카사노바(이탈리아의 문학자)
45. 에리, 가까이 오지 마. 그렇게 가까이 오지 마..... 그래, 거기에 있어 쥬.(누이동생이 병에 감염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 카프카(독일의 작가)
46. 오오, 신이여!(암살자의 총탄에 맞아 쓰러질 때) - 간디(인도의 정치가)
47. 그것으로 충분하다. - 칸트(독일의 철학자)
48. 어찌하여 그대는 내게서 떠나는가?(시종에게) - 기번(영국의 역사가)
49. 오오, 친구여! 마침내 이 세상을 하직하려고 한다. - 샹포르(프랑스의 모렐리스트)
50. 여기가, 여기가 나의 종말이다! - 슈베르트(독일의 작곡가)
51. 이젠 이 골동품을 그렇게 소중히 다루지 않아도 돼. - 버나드 쇼(영국의 극작가)
52. 나의 클라라(아내)..... 나는 알고 있소..... - 슈만(독일의 작곡가)
53. 아아, 죽음! 죽음! - 조르쥬 (드) 상드(프랑스의 작가)
54. 막을 내려라. 광대놀이는 끝났다. - 라블레(프랑스의 작가)
55. 트리스탄.....(6일전, 아픈 몸을 이끌고 보러 갔던 바그너의 악극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말함) - 리스트(헝가리의 작곡가)
56. 나는 그것을 열었다.[‘그것’은 ‘창(窓)’을 말한다.] - 테니슨(영국의 시인)
57. 안녕! 사랑하는 사람들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 마크트웨인(미국의 작가)
58. 내 안경은 어디에 있어? - 토마스 만(독일의 작가)
59. 현세를 살아가는 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기억하라. - 미켈란젤로(이탈리아의 화가)

60. 내 일은 끝났다. - J.S.밀(영국의 철학자, 경제학자)
61. 걱정하지 말라. 이제 약은 필요없어. 나는 나았다고 생각한다.(약을 가져왔을 때) - 괴히테(독일의 철학자)
62.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느낄 뿐이다. - 라 폰테느(프랑스의 우화 작가)
63. 싫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주사를 놓으려는 의사에게) - 퀴리 부인(프랑스의 과학자)
64. 내 유해를 독일 쪽을 향해 선 채로 매장하라. - 클레망소(프랑스의 정치가)
65. .... 이 짧은 기도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달라. 바라건대 편안한 하룻밤을 보내도록 해 다오. 아멘.(죽기 직전) - 크롬웰(영국의 정치가)
66. 블라인드를 내리지 말라! 나는 기분이 좋다. 나를 맞아 줄 햇빛을 원한다. - 발렌티노(미국의 배우)
67. 안녕 모랑, 나는 죽어간다. (노복 모랑의 손을 잡고) - 볼테르(프랑스의 사상가)
68. 용기를 내요. 샬로트(동생), 용기를 내요. - 에밀리 브론테(영국의 여류 작가)
69. (친구에게 최후의 포옹을 하고는)당신보다 먼저 죽는 것은 내게는 하나의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라신(프랑스의 극작가)
70. 얼마나 아름다운 날이냐! - 알렉산드르 1세(러시아의 황제)
71. 미안합니다.(처형대에서 발을 밟고) - 앙트와네트(프랑스의 황후)
72. 모짜르트의 곡을 쳐 주십시오. - 쇼팽(폴란드의 작곡가)
73. 신의 가호가 있기를. - S.존슨(영국의 문학자)
74. 내 머리가, 내 머리가! - R.L.스티븐슨(영국의 작가)
75. 감격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감격 없이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임종의 자리에 제자를 모아 놓고) - 생시몽(프랑스의 사상가)
76. 나는 세계 제국(帝國)에의 여로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 P.시드니(영국의 정치가)
77. 친구여, 박수를! 희극은 끝났다. - 베토벤(독일의 작곡가)
78. 주여! 나의 영혼을 구해 주옵소서. - A.포우(미국의 작가)
79. 나는 기꺼이 이 세상에서 기어나오는 구멍을 찾아내자. - T.홉즈(영국의 철학자)
80. 안녕, 나의 벗이여. - 에머슨(미국의 저술가)
81.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쉬고 있습니다. 이 휴식은 멋지고 입으로 다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 에라스무스(네덜란드의 휴머니스트)
82. 뇌막염이 아닐까! - L.울코트(미국의 작가)
83. 나는 진실을 사랑하고 있다. .... 몹시. - 톨스토이(러시아의 작가)
84. 프랑스..... 군대! ..... 군 사령관..... 조세핀! - 나폴레옹(프랑스의 황제)
85. 신과 조국! - 벨슨(영국의 제독)

86. 인생은 끝났다. 숨쉬는 것이 괴롭다. 나는 대답하다. - 푸시킨(러시아의 작가)
87. 죽을 사나이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없어.(프랭클린이 호흡하기 쉽도록 딸이 침대에 누워 있는 그의 위치를 바꾸도록 말했을 때) - 프랭클린(미국의 정치가)
88. 사랑하는 아들이여, 살려다오. - H.에덤즈(미국의 교육자)
89. 한 기독교도가 어떻게 편안히 죽어 가는지를 지켜 보라. - 애디슨(영국의 수필가)
90. 불멸의 영혼이여, 만세! - 지드(프랑스의 작가)
91. 14일이냐? - 제퍼슨(미국의 정치가)
92. 그곳에 가고 싶다.(파리의 포성을 들으면서) - 샤토브리앙(프랑스의 작가)
93. 예수여!(화형대에서) - 잔 다르크(프랑스의 성녀)
94. 신이여, 죽음과 싸울 때는 나와 함께 있어 주시기를, (그리고는) 오오, 알라 신이여! 천국의 빛나는 주민들 사이에서도 나와 함께 있어 주시기를! - 마호멧[이슬람교의 시조(始祖)]
95. 평화..... 투쟁..... 중화(中華)를 구하라. - 손문(孫文; 중국의 정치가)
96.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최후의 인간이 아니다. - 다윈(영국의 박물학자)
97. 꽤 오랫동안 샴펜을 마시지 않았구먼. - 체호프(러시아의 작가)
98.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 예수(기독교의 개조)
99. 전혀 그 반대다. (병세가 좋아지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 입센(노르웨이의 극작가)
100. 아내와 의사를 불러다오. - 바그너(독일의 작곡가)
101. 내가 이 곡을 자기 자신을 위해 썼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니? (그가 작곡한 <진혼곡>에 관해서) - 모짜르트(독일의 작곡가)
102. 안녕! 잔느, 안녕!(손녀에게) - 위고(프랑스의 작가)
103. 이 회합을 딴 곳으로 옮겨야 한다. - 아담 스미드(영국의 경제학자)
104. 크리톤, 나는 한 마리의 수탉을 아스클레피오스에서 빌었는데 그대는 이것을 기억해 두었다가 이 부채를 꼭 갚아 주게. - 소크라테스(그리스의 철학자)
105. 나는 공(公)의 묘지에 매장되고 싶지 않다. 내가 프로이센 왕 빌헬름 대왕의 충실한 충복이었다고 묘석에 새겨 다오. - 비스마르크(독일의 정치가)
106. ..... 자, 문을 열어라. 빛을, 좀 더 빛을..... - 괴테(독일의 시인, 작가)
107. 아아, 집에 돌아가고 싶다. - 고히(네덜란드 화가)
108. 아니, 그렇지 못해.(마음이 편안하냐고 물었을 때) - 골드스미드(영국의 작가)

※ 다음 예문의 외래어 표기를 바르게 고치시오.

### GNN 통신 해외지사장들과 글로벌 간담회 개최

(폴리뉴스 2008. 9. 2.)

회의실에서 GNN(대표이사 정대성) 해외지사장들을 초청 해외지사 현황을 듣고 글로벌 비전을 공유하는 국제 간담회를 열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유럽본부장(GNN France, 차민철)과 일본지사장(GNN Japan, 홍수환)이 글로벌 아젠더를 발표하고 한국(GNN Korea)과의 향후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써 관심이 집중됐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19일 1차 간담회 이후 20여개 국내 지사와 4개(프랑스, 일본등) 해외지사장을 구축한 후 이루어진 행사이다.

GNN은 향후 세계 4대 통신망을 뛰어 넘는다는 목표로 올 1월 한국에서 정식으로 간행물등록을 마친 상태로, 현재 한국법상의 통신사 준비를 위한 TF팀을 구성했다고 한다. 현재는 유럽의 통신사와 뉴스공급계약 체결을 하기위해 서류를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간담회는 GNN의 배선장 전략기획본부장의 'GNN 선언문' 낭독으로 시작되었다.(하단-전문게재)

내빈으로 참석한 백원우(통합민주당)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통신사 등록은 쉽지 않은 일로 알고 있다."면서도, "시도하기도 어려운 일을 만들어 가시는걸 보며, 사실 부러움을 느낀다."고 격려했다. 백원우 의원은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17대에 이어 18대에 재선에 성공해 현재 보건복지위 간사로 일하고 있다.(사진=위)

◇ 전세계 가장 거대한 뉴스 공급망 비전 제시 = 정 대표는 발제를 통해 "GNN은 전혀 새로운 뉴스통신 개념이다. 세계의 지역단위 뉴스를 중심 콘텐츠로 하는 뉴스 허브이다. 현재 통신사 등록을 대비해 프랑스 현지에서 뉴스 번역팀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연내 프랑스를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는 영어권 나라에 뉴스를 공급할 계획을 말하고, "이미 한국의 로컬 뉴스공급망인 GNN과주뉴스, GNN구레뉴스(오픈 2개월 만에 전남 72개사 중 18위)등을 통해 그동안 준비한 노하우와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 계획으로는 "해외지사들의 정착기로 보는 내년을 거치면서, 인력과 기사공급을 완전히 현지화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 한민족 네트워크 활용 가능성 =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이윤정(전,한전KDN 감사)은 "5.18때 마지막까지 광주시청을 사수하면서 한국의 현실을 해외에

타진하기 위한 절박했던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말하고 GNN이 한국에서 만들어 지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피력했다. 또한 "우리나라만큼 전 세계 곳곳에 한인이 정착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인적 인프라와 발전된 IT기술 속에 우리가 한발 한발 뜻을 모아 나간다면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다."며, 먼저 합류한 프랑스 일본 지사장에게도 글로벌 GNN의 성장을 앞당겨 달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 ◇ E-Biz로써의 비전 = 내부적으로 GNN은 내년 대규모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 GNN 지사장과 현지인들이 참석하는 세계기자대회가 될 것이라고 밝힌 정 대표는 "인터넷 시대에 뉴스란 이미 보도 기능을 뛰어넘는 최고의 콘텐츠이다."며, "각 나라로 타진되는 실시간 뉴스는, 국가의 브랜드 경쟁력까지 좌우한다."고 말했다. 거기에 "선점을 통해 성공한 야후나, 기술 진입장벽을 높인 구글과는 다르지만 단단한 휴먼 네트워크 기반의 뉴스 플랫폼을 훑내내는 데는 그 이상의 자본과 시간이 들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전쟁 폐허 속에서 한국의 발전과 IT기술의 선도적 위치만 보더라도 한국인의 추진력은 이미 검증되었다."며 가능성을 피력했다.
- ◇ 연내 전국 248개 기초단체 지사 설립 = 출범 2개월 만에 전남에만 10여개 뉴스센터를 구축하고 오픈을 준비 중인 김태규 본부장(전국취재본부장)은 발제를 통해 "연말까지 한국의 248개 기초단체에 지사를 설립할 계획이다."며, "전남 지사들의 성공 노하우뿐만 아니라 각 지사의 Business Model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결속력을 높인다면, 한 개 지사의 낙오도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김 본부장은 "뉴스 공급뿐 아니라 한국의 기초단체와 선진 세계 도시와의 교류에 큰 의미를 두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 빠르게 한국의 지자체별 뉴스 공급망을 갖춰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 ◇ 유럽 본부장 차민철 - 문화재 환수문제 제기 = 프랑스에 온 차민철 본부장은 "프랑스에서 어렴풋이 열정을 품었던 GNN을 한국에 와서 보면서 더 많은 동기와 확신이 생겼다."고 운을 떼고는, "글로벌 뉴스통신에 걸맞게 속도와 정확성을 키워나가기 위한 준비들도 많이 해야겠지만, 우선 국내 상황을 제대로 살펴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차 본부장은 간담회와 사전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계획을 이야기 했다. 발제에 나선 차 본부장은 "최근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PD수첩과 추석60분의 프랑스 국제수역사무국(OIE)의 현지 촬영 분을 직접 제작한 PD로써 정확한 보도가 많이 아쉬웠다."고 하고, "앞으로 GNN의 유럽본부를 책임지는데 어깨가 무겁지만, 한국의 GNN가족들과 열정과 이상을 공유 한다면 어떠한 난관들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문화재 환수 쟁점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한불수교가 12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수많은 고서적을 포함한 문화재 환수문제가 산재해 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고, "민감한 외교문제가 얽혀 있겠지만, 최근 일

본이 제기하는 독도문제를 본다면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거기에 더해 "유럽의 뉴스에 비해 한국의 뉴스가 위성을 타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유럽의 문화적 우월감이 없다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이미 세계적으로 입증된 한국의 문화예술을 뉴스로 알려내므로써 얻어지는 한국의 이익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며, 프랑스가 에펠탑 하나로 100년을 우려먹는 기술을 배워야 함을 강조 했다. 그런 점을 일찍이 깨달아 한불 영화제를 기획해 3년째 주관하고 있다고도 한다. 올해 말에도 한국에서 영화제를 연다고 한다. 또한 세계 4대 통신사인 AFP의 시스템을 소개하고, "한국의 국가 기간 통신망인 '연합뉴스'보다 훨씬 더 슬림화된 조직으로 세계 뉴스를 이끌어 가고 있다."며, GNN의 가볍고, 아웃소싱을 중시하는 회사 구조가 자리를 잡아 간다면, 새로운 통신사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하고 한국을 중심으로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GNN의 유럽 지사망을 구축하고 나면, 현재 프랑스와 한국 두 나라를 묶어서 진행하는 한불영화제를 유럽과 한국을 연계한 대형 영화제로 키워 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 차 본부장은 이미 프랑스 파리 YTN리포터와, 씨네21 편집위원과, 한불영화제 사무국장으로 국내에 알려져 있다.

◇ 일본 지사장 홍수환 - 민감함 독도문제 포함 적극 보도 = 홍수환 일본 지사장은 간담회전 인터뷰와 발제를 통해 "최근 독도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법을 기획하고 있다."고 하고, "이미 동경의 현지 사무실에서 다양한 사전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현지 매체와 제휴를 통해 발 빠른 기사를 송고할 체제를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디어 흐름에 맞도록 사진과 동영상 중심의 콘텐츠에 주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 글로벌 시대 누군가는 해내야 할 미래솔루션 =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교육 기관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김병태 교감은 발제를 통해 GNN의 가치를 이야기 했다. "매우 힘든 일이지만 가치 있는 일이다."며, "GNN의 주제만을 듣는다면 황당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가치로 묶어가는 이와 같은 뉴스네트워크는 대단한 파괴력을 지닐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가속도가 붙어가는 것을 체감한다."며, "이것은 '미래'를 하나로 묶었을 때만 가능한 것으로써, 이론이나 지식 자본으로 결코 할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고 말하고, "다양한 스펙트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또 다른 대안 뉴스채널로서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오랜 지방지 경력을 가지고 있는 기자로써 최근 경기도 연천을 맡게 된 정대전 기자는 "GNN의 컨셉은 실패해도 행복하다는 각오로 자신을 합류하게 만들었다."면서 "포화상태의 지방지 기자들에게 너무도 당연한 대안이

기도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함께 만들고 함께 나눈다는 철학과, 수평적인 의사결정구조가 희망으로 다가왔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 매달 지역 간담회 통한 윤리교육

GNN Korea는 기초단체에서 매달 정기적인 GNN간담회를 연다고 한다. 지사별 50~100명으로 구성할 운영 자문위원단을 꾸릴 계획대로라면, 한국에만 2만여 명의 GNN취재원이 움직이는 셈이다. 세계로 눈을 돌리면 수치를 가늠할 수 없이 커진다. 지역 간담회를 통해 이들을 정확한 시각을 가진 뉴스공급원(뉴스원)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이다.

◆ 행사 뒤 GNN의 성향에 관한 질문에 정 대표는 "언론을 이야기 할 때 진보와 보수를 묻는 경우가 많다. 물론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역사 속에서 언론의 가치는 늘 독재와의 싸움이나 기득권과의 싸움에 있었다."며, "GNN은 글로벌 뉴스 통신이다. 핵위험이 남아 있지만 이미 냉전도 끝났다. 언론에 있어서는 '올바른 보도'와 '보도의 가치'가 우선이다. 굳이 성향을 말하라면 그것은 '인간애'이다."라고 답했다. 글로벌을 위해 시동을 건 GNN이 현 4대 통신망(AP,UPI,AFP,로이터)과 어깨를 겨루는 날이 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 한편, 간담회에서 발표되진 않았으나, 행사를 앞두고 백혈병으로 투병하는 중으로 알려진 초대 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을 지낸 조대기 남북경협사무국장도 "하나로 묶어 낼 수만 있다면, 50개지사만으로도 대단한 파급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며,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선배 언론인으로써의 고민을 함께 하겠다."라는 격려를 한 것으로 알려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순천의 이연슬 기자 등 서울, 경기, 전남의 20여개 지역의 20여명의 뉴스센터 대표들과 예비 지사장이 참석했다.



# 어휘 교열

여규병 | 동아일보 콘텐츠연구팀장



# 어휘 교열

여규병 | 동아일보 콘텐츠연구팀장

## 1. 뜻이 헛갈리는 말들

○ ‘초토’가 잘못 쓰인 것은?

- (1) 2005년 4월 발생한 산불로 낙산사가 불타는 등 강원도 양양군 일대가 초토화되었다.
- (2) 미국의 공격으로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가 초토화되었다.
- (3)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재즈의 도시 뉴올리언스를 초토화하였다.

☞ ‘초(焦)’는 ‘그을릴 초’이다. 따라서 ‘초토(焦土)’는 ‘그을린 땅’이라는 뜻이다. 불이 나서 땅이 그을린 상태이거나 불 때문에 황폐해지고 못 쓰게 된 상태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이 ‘초토’이다. 뉴올리언스처럼 비와 물과 바람으로 엉망진창이 된 곳을 ‘초토’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초토’는 산불이 난 양양 지역이나 폭격 맞은 바그다드를 표현할 때에 적절한 말이다. 허리케인으로 물에 잠긴 뉴올리언스나 2004년 12월 발생한 지진해일(쓰나미)로 피해를 본 남아시아처럼 불이 아닌 비바람 해일 같은 자연현상으로 ‘매우 어지럽고 못 쓰게 된 모양’은 ‘쑥대밭’ 정도로 표현하면 된다.

○ ‘버금가다’가 적절하게 쓰인 것은?

- (1) (인천을) 중국 푸둥 지구에 버금가는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육성.(2004년 8월 건설교통부 ‘신수도권 및 혁신도시 발전방안’)
- (2) 아르빌은 이라크 중앙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은 채 독립국가에 버금가

는 자치를 누려 왔다.

(3) 국무총리는 대통령에 버금가는 권한을 가졌다.

☞ ‘가장 뛰어난 것, 첫째가는 것’을 ‘ 으뜸’이라고 하며, ‘ 으뜸의 바로 아래’를 버금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으뜸은 첫째이며, 버금은 둘째이다. 버금이 홀로 쓰일 때는 잘못 쓰이는 경우가 드문데 ‘버금가다’라는 형태로 쓰이면 ‘둘째가다’라는 본래의 뜻에서 벗어나 ‘동등(同等)’을 뜻하는 경우가 많다. (1)에서는 한국 공무원이 수도권 발전 방안을 세우면서 ‘중국의 푸둥에 둘째가는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능가하는’이나 ‘필적하는’을 써야 한다. (2)에서도 ‘둘째가는’이라는 의미의 ‘버금가다’보다는 ‘비슷한’ ‘맞먹는’ 같은 낱말을 쓰는 것이 낫다.

○ ‘갑부’가 바르게 쓰인 것은?

- (1)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은 세계의 갑부다.
- (2) ‘해리 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이 세계 갑부의 대열에 합류했다.
- (3) 이건희, 신격호 회장 세계 갑부 순위 후퇴.

☞ ‘갑부(甲富)’란 ‘첫째가는 부자’이다. ‘갑부’의 ‘갑’은 ‘갑(甲) 을(乙) 병(丙) 정(丁)……’ 식으로 사물의 순서를 매길 때 쓰는 ‘첫째’를 이르는 말이다. 첫째가는 부자가 여러 명 있을 수는 없다. 따라서 (2) ‘갑부의 대열’, (3) ‘갑부 순위’라는 말은 옳지 않다. ‘부자(부호) 대열’, ‘부자 순위’라고 하면 된다. 다만, 범위를 좁혀 ‘한국의 갑부’, ‘부산 갑부’처럼 할 수 있다.

○ ‘자문’이 바르게 쓰인 것은?

- (1) 그 문제에 대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 (2) 시장은 그 일에 정통한 담당자에게 자문했다.
- (3) 수석비서관이 대통령에게 그 일에 관해 자세히 자문했다.
- (4) 그 일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했다.

☞ ‘자문(諮問)’은 국어사전에서 ‘어떤 일을 좀 더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려고 그 방면의 전문가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에 의견을 물음’이라고 풀이하고 있는 낱말이다. 특히 ‘자(諮)’는 ‘높은 이가 낮은 이에게 문의함’이라

는 뜻을 지닌 한자이므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의견을 묻는 것을 뜻한다.  
 (1)에서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다’라고 하면 ‘질문해 달라고 하다’와 마찬가지로 뜻이 되고 만다. 이때 ‘문의하다’, ‘도움을 구하다’ 정도로 표현하면 된다.  
 (3)에서는 아랫사람인 수석비서관이 윗사람인 대통령에게 자문할 수는 없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물음에 대응하는 경우라면 ‘자문에 응하다’, ‘조언하다’, ‘물음에 답하다’ 정도로 표현하면 된다.  
 (4)도 ‘물음을 받아’라는 뜻이 되므로 옳지 않다. 이 역시 ‘조언을 듣다’, ‘도움을 받다’라고 하면 된다.  
 다만, 어떤 기관 단체 기업체 등에 속해 있으면서 그 기관 단체 기업체의 ‘자문을 받아’ 의견을 밝히거나 조언을 하는 기구나 변호사 등은 ‘자문 기구’, ‘자문 변호사’처럼 쓸 수 있다.

○ ‘아는 척하다’가 잘못 쓰인 것은?

- (1) 그 분야에는 문외한이면서도 아는 척한다.
- (2) 그가 나를 보더니 아는 척했다.
- (3) 귀뿔도 모르면서 아는 척했다.

☞ ‘아는 척하다’는 ‘모르는 것을 아는 듯이 거짓으로 꾸미다’의 뜻이다. ㉠사람을 보고 인사하는 듯한 표정을 하다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라는 뜻으로는 ‘알은척하다’를 써야 한다. 따라서 (2)는 ‘그가 나를 보더니 알은척했다’라고 해야 한다. ㉢은 ‘그가 나를 알은척했다. 그 두 사람은 서로 알은척도 안 한다. 친구에게 알은척하지도 않고 돌아누웠다. 다음에 만나 봐라, 알은척이나 하나’처럼, ㉣은 ‘내 처지를 알은척하는 표정이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시위 현장을 보고 알은척했다. 남의 일에 함부로 알은척하지 마라’처럼 쓰인다.  
 ‘아는 척하다’와 ‘알은척하다’의 ‘척’은 ‘체’로 바뀌 ‘아는 체하다’, ‘알은체하다’로 할 수 있다. 다만, ‘아는 척하다’는 구(句)이므로 띄어 쓰지만 ‘알은척하다’는 한 낱말이므로 반드시 붙여 써야 한다.

○ ‘접수’가 잘못 쓰인 것은?

- (1) 그 회사는 구청에 허가원을 접수했다.
- (2) 방송국에서 수재의연금을 접수한다.

(3) 그 학교는 입학원서를 사흘 동안만 접수한다.

☞ ‘접수(接受)’는 ‘신청이나 신고 따위를 구두나 문서로 받음’, ‘돈이나 물건 따위를 받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즉 ‘받음’이 접수의 주된 뜻이다. 따라서 (1)은 ‘접수하는’ 주체를 ‘회사’가 아니라 ‘구청’이 되게끔 고치거나 ‘접수하다’ 대신 ‘제출하다’, ‘내다’ 따위의 말로 바꿔 줘야 한다.

○ ‘붓물’이 바르게 쓰인 것은?

- (1) 건설업체들이 잇따라 분양가를 인상하자 분양가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붓물을 이루고 있다.
- (2) 유엔 결의 없이 강행된 미국의 이라크 공격 직후 세계 곳곳에서 반전 시위가 붓물 터지듯 확산되고 있다.
- (3) 혼수용품 판촉 행사 붓물(신문 제목)

☞ ‘붓물’은 ‘보에 권 물 또는 거기서 흘러내리는 물’이다. 여기서 ‘보(湫)’란 ‘논에 물을 대기 위한 수리 시설로 독을 쌓아 흐르는 냇물을 막고 그 물을 담아 두는 곳’이다. 붓물은 기본적으로 ‘고여 있는 물’이며 흘러내릴지라도 농경지에 물을 대는 데 꼭 필요한 정도의, 상대적으로 적은 양일 뿐이다. 농경지에 물을 대 주면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양을 쏟아 내지는 않는 법이다. 따라서 무언가 붓을 이루거나 매우 빠르고 힘 있게 확산되는 것을 비유하면서 (3)처럼 ‘붓물’을 단독으로 쓰거나, (1)처럼 ‘붓물을 이루다’로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처럼 ‘붓물 터지듯’이라고 표현해야 마땅하다. 보가 무너지면, 즉 붓물이 터지면 엄청난 양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 그 아래쪽은 온통 쓸대밭이 되어 버린다. 이에 비유하여 어떤 사물이 한꺼번에 정상 수준보다 훨씬 많은 양으로 이뤄질 때 ‘붓물이 터지다’라고 한다.

○ ‘회복’이 잘못 쓰인 것은?

- (1) 그가 건강을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2) 피로 회복을 위해 ‘박카스’를 마신다.
- (3) 한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다.

☞ ‘회복(回復)’은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이라는 뜻이

다. ‘건강 회복’은 ‘건강을 되찾음’을, ‘신뢰 회복’은 ‘신뢰를 다시 쌓음’을 뜻한다. 따라서 ‘피로 회복’이라고 하면 ‘피로한 상태로 돌이킴’이라는 뜻이 되고 만다. (2)는 ‘원기 회복’으로 하거나 ‘피로 해소’라고 해야 이치에 맞게 된다.

## 2. 혼동하기 쉬운 말들

○ ‘붙이다’가 잘못 쓰인 것은?

- (1) 메모지를 벽에 덕지덕지 붙여 놓았다.
- (2) 중환자에게 간호사를 붙여 주었다.
- (3)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헌법 제72조)

☞ ㉠붙이다: 포스터를 붙이다. 우표를 붙이다. 찬장을 벽에 붙이다. 흥정을 붙이다. 접을 붙이다. 불을 붙이다. 싸움을 붙이다. 경호원을 붙이다. 단서를 붙이다. 습관을 붙이다. 이름을 붙이다. 한 대 올려붙이다.

㉡부치다: 일이 힘에 부치다. 부채로 부치다. 편지를 부치다. 책을 소포로 부치다. 남의 눈을 부치다. 투표에 부치다. 저냐를 부치다. 토의에 부치다. 원고를 인쇄에 부치다. 당숙 댁에 몸을 부치고 있다.

○ ‘빌다’가 잘못 쓰인 것은?

- (1) 학생은 무릎을 꿇고 선생님께 용서를 빌었다.
- (2) 조문객들은 고개 숙여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 (3) 한자의 뜻(새김)을 빌어서 우리말을 적기도 했다.(시정곤 외, 우리말의 수수께끼)

☞ ‘빌다’는 호소하거나, 간청하거나, 바라는 것이다. ‘부처님께 빌다’, ‘용서를 빌다’, ‘동냥을 빌다’처럼 쓰인다. (3)은 ‘일정한 형식이나 이론 또는 남의 말이나 글 따위를 취하여 따르다’라는 뜻이 있는 말 ‘빌리다’를 써야 한다.

○ ‘당기다’가 잘못 쓰인 것은?

- (1) 공사 기간을 당겨 예정보다 일찍 끝냈다.

- (2) 그 얘기를 듣고 호기심이 당겼다.
- (3) 지천으로 있는 집의 음식보다는 역시 남의 집 음식이 당기는 것이었다.
- (4) 한참을 웃었더니 수술한 자리가 당겼다.

☞ ‘당기다’는 ‘마음이 끌리다’, ‘입맛이 돋우어지다’, ‘물건 따위를 가까이 오게 하다’, ‘시간을 앞당기거나 줄이다’라는 뜻이다. (4)처럼 피부 따위가 팽팽해 진다는 뜻으로는 ‘땡기다’를 써야 한다. ‘불이 옮겨 붙거나 그렇게 하다’를 나타내는 말은 ‘땡기다’이다. ‘바삭 마른 나무가 불이 잘 땡긴다’, ‘담배에 불을 땡겼다’처럼 쓴다.

○ ‘다리다’가 잘못 쓰인 것은?

- (1) 인삼 다린 물(경기 김포시 농협외 제품명)
- (2) 종년이 조복을 다리다가 자 버리는 바람에 그만 깃을 태워 버리지 않았겠나?(박경리, 토지)
- (3) 바지를 다려 줄을 세웠다.

☞ ‘다리다’는 ‘옷이나 천 따위의 주름이나 구김을 펴고 줄을 세우기 위하여 다리미나 인두로 문지르다’라는 뜻이며, ‘달이다’는 ‘약제 따위에 물을 부어 우려나오도록 끓이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1)은 ‘달인’이라고 해야 한다.

○ ‘새다’가 잘못 쓰인 것은?

- (1) 고개 드니 날 새네.(서울 4·19국립묘지 사거리 근처 PC방 이름)
- (2) 여기서 우리 밤 썰까?( # ·현재는 폐업)
- (3) 그날 밤이 새도록 그는 흥분이 되어서 자기의 과거를 일일이 다 이야기하였습니다.(김동인, 광염 소나타)

☞ ‘새다’는 ‘날이 밝아 오다’라는 뜻의 자동사이다. ‘날이 새다’, ‘밤이 새다’처럼 쓰인다. (2)에서처럼 목적어 ‘밤(을)’이 있으면 ‘한숨도 자지 아니하고 밤을 지내다’라는 뜻의 타동사 ‘새우다’를 써야 한다.

○ ‘맞추다’가 잘못 쓰인 것은?

- (1) 권지예의 ‘뱀장어 스투’를 읽는 동안 내가 맞춰야 할 과녁이 무엇인지

분명해졌다.(2002년 이상문학상 수상 작품집 심사평)

- (2) 이 많은 부품 중에서 이것을 무엇과 맞추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했다.
- (3) 나 같으면 그런 남편만 있으면 그야말로 날마다 머리를 풀어서 발을 씻고 발바닥에 입을 맞추겠다.(이광수, 흙)
- (4) 안성맞춤.

☞ ㉠ 맞추다: ① 주문하다.(양복을 맞추다.) ② 당케 하다.(입을 맞추다.) ③ 제자리에 맞게 대어 붙이다.(나사를 맞추다. 틀에 맞추다.) ④ 비교하여 살펴 피다.(서로 답을 맞추어 보다.) ⑤ 조화를 이루다.(발을 맞추다. 마음을 맞추다.) ⑥ 어떤 기준이나 정도에 어긋나지 않게 하다.(시간에 맞추어 전화를 하다. 원고를 심사 기준에 맞추다.) ⑦ 어떤 기준에 어긋남이 없이 조정하다.(카메라의 초점을 맞추다. 시곗바늘을 5시에 맞추다. 주파수를 맞추다.) ⑧ 일정한 수량이 되게 하다.(화투짜를 맞추다. 인원을 맞추다.) ⑨ 열이나 차례 따위를 똑바르게 하다.(줄을 맞추다. 일련번호를 맞추어 정리하다.) ⑩ 다른 사람의 뜻에 맞게 행동하다.(비위를 맞추다.) ⑪ 약속 시간 따위를 넘기지 않다.(약속 시간에 맞추려면 지금 나서야 한다.)

㉡ 맞히다: ‘맞다’의 사동사. 정답을 맞히다. 세 문제를 맞혔다. 화분에 눈을 맞혔다. 그 여자에게 바람을 맞혔다. 아이에게 주사를 맞혔다. 화살을 과녁에 정확히 맞혔다.

※ 경기 안성시는 늦그릇으로 유명한 곳이다. 예부터 유기(鑪器) 가운데 안성 것을 최고로 쳐 주었다. 안성에다 유기를 주문하면 마음에 쏙 드는 물건이 나온다고 해서 ‘안성맞춤’이란 말이 생기기까지 했다. 그런데 정작 안성시에서는 안성시 고유 상표를 만들면서 ‘안성마춤’이라고 했다. 다른 업체에서 먼저 ‘안성맞춤’을 상표로 등록해 어쩔 수 없이 ‘안성마춤’으로 쓰는 것이라고 한다. 안성 시민은 물론 안성시 특산물을 사는 많은 사람을 헛갈리게 하는 처사다.

○ ‘발자국’이 바르게 쓰인 것은?

- (1) 그 사람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 (2) 범인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 (3) 백범의 발자국을 더듬어 보면 그의 위대함을 알 수 있다.

☞ ‘발자국’은 ‘발로 밟은 자리에 남은 모양’이다. (1)처럼 소리가 나는 것은 ‘발

소리'라고 한다. 흔적이나 (3)에서와 같이 지나온 과거의 역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은 '발자취'다.

○ '산자락'이 바르게 쓰인 것은?

- (1) 눈에 보이는 산자락의 뿌리는 모두 백두대간에 닿아 있다.
- (2) 마을을 감싼 산자락을 오르기 시작했다.
- (3) 멀찍이 산자락에 싸여 초가집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는 마을이 내려다 보였다.(유재용, 성역)

☞ '산자락'은 '땃땃하게 비탈져 나간 산의 밑 부분'을 이르는 말이다. (1)은 '산' 또는 '산봉우리'라고 해야 하며, (2)는 '산비탈'이라고 해야 한다.

○ '틀리다'가 잘못 쓰인 것은?

- (1) 너와 나는 생각이 틀리다.
- (2) 아무리 좋은 기사가 실린 신문이라도 교정이 틀려 있다면 틀린 신문입니다.(이병주, 행복어 사전)
- (3) 오늘 이 일을 마치기는 틀린 것 같다.

☞ '틀리다'는 (2)처럼 '셈이나 사실 따위가 그르케 되거나 어긋나다', 또는 (3)처럼 '바라거나 하려는 일이 순조롭게 되지 못하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1)처럼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함'을 뜻할 때는 '다르다'를 써야 한다. '보통의 것보다 두드러진 데가 있음'을 뜻할 때에도 '고장 난 문을 감쪽같이 고치다니 기술자는 역시 달라'처럼 '다르다'를 쓴다.

### 3. 뜻을 바로 알고 써야 할 말들

#### 3-1. 태아(胎兒)-태어나다

'태아'는 '포유류의 모체 안에서 자라고 있는 유체(幼體)'이다. 이 '태아'를 모든 동물이 세상에 나오기 전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2005년

7월 30일치 신문들은 대부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공룡 태아 화석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공룡은 ‘알’로 번식하는 파충류다. 따라서 ‘태아’가 될 수 없다. ‘태아 화석’은 ‘알 화석’이라고 해야 한다. 이 말만으로 부족하다면 ‘부화 직전의 알 화석’이라고 하면 된다.

‘태어나다’도 ‘사람이나 동물이 형태를 갖추어 어미의 태로부터 나오다’라는 뜻이므로 알로 번식하는 조류, 파충류, 어류, 곤충류 등은 태어날 수 없다. 그러나 2005년 8월 26일치 신문도 대부분 한 동물원에서 홍학 새끼가 ‘태어났다’라고 잘못 보도했다.

알로 번식하는 난생 동물은 알을 낳아 새끼가 알을 깨고 나올 때까지 품어 주기도 하는데 이를 ‘까다’라고 한다. 난생 동물 가운데 벌레나 물고기가 알을 낳는 것을 특별히 ‘슬다’라고 하기도 한다. 또 파리의 알은 ‘쉬’라고 해서 파리가 알을 낳는 것은 ‘쉬를 슬다’라고 한다.

### 3-2. 선영(先塋)

신문 등에 실린 부고(訃告)를 살펴보면 그 마지막에 ‘장지(葬地)는 ○○○ 선영(先塋)’이라고 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塋’은 ‘무덤 영’이므로 ‘선영’은 ‘조상의 무덤’이라는 뜻이 된다. 따라서 ‘장지’가 ‘조상의 무덤’이 될 수는 없는 법이다. 이때는 ‘선영’이 아닌 ‘선산(先山)’이라고 하거나 ‘선영하(先塋下)’라고 해야 한다. ‘선산’은 ‘선영’과 동의어이기도 하지만 ‘조상의 무덤이 있는 산’이라는 뜻이 하나 더 있는 말이다.

### 3-3. 선친(先親)

남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높인답시고 ‘선친’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는 바른 말이 아니다. ‘선친’은 남의 아버지를 이르는 말이 아니고 ‘남에게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를 이르는 말’이기 때문이다. “나는 선친의 고집은 닮았지만, 결단력은 닮지 않은 것 같다.”처럼 쓰는 말이지 제3자가 “그 사람의 선친은 훌륭한 분이셨다.”처럼 써서는 안 되는 말이다. 남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일컫는 한자어로는 ‘선대인(先大人), 선고장(先考丈)’ 등이 있다.

### 3-4. 여부(與否)

흔히 ‘생사 여부’, ‘존폐 여부’, ‘진위 여부’, ‘성패 여부’처럼 쓴다. ‘여부’는 ‘그려함과 그려지 아니함’을 뜻하는 말이다. ‘생사, 존폐, 성패, 진위’ 등은 이미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여부’라는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다. 굳이 ‘여부’를 쓰려면 ‘생존/사망 여부’, ‘존재/폐지 여부’, ‘성공/실패 여부’, ‘진실/허위 여부’라고 해야 한다.

### 3-5. 탄신(誕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부처와 예수 두 성인(聖人)이 ‘태어난 날’을 공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수가 태어난 날인 12월 25일은 1949년 이 영이 제정될 당시부터 포함되어 있었다. 그때의 명칭은 ‘기독교탄생일’이다. 1975년 부처의 탄생일을 공휴일에 넣을 때는 ‘석가탄신일’이라고 표기하였으며 이때 ‘기독교탄생일’도 ‘기독교탄신일’로 수정하였다.

‘탄신’은 ‘임금이나 성인이 태어난 날’로서 ‘신(辰)’은 ‘날[日]’을 나타낸다. ‘탄신일’이라고 하면 ‘일’은 사족에 지나지 않는다. ‘생일(生日)’의 높임말은 ‘생신(生辰)’, ‘탄일(誕日)’, ‘탄생일(誕生日)’이다. 대통령령의 두 성인 ‘탄신일’은 ‘탄신’이나 ‘탄생일’, 또는 관련 종교계에서 쓰는 말로 고쳐야 마땅하다.

### 3-6. 역임(歷任)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국민의 정부 제15대 대통령을 역임했다.’(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역임’은 ‘여러 직위를 두루 거쳐 지냄’의 뜻이다. ‘역임’을 위 예문처럼 하나의 직책을 지낸 것을 표현하는 데 쓰는 것은 바른 용법이 아니다. 이젠 ‘지냈다’라고만 하면 충분하다. ‘역임’을 쓰려면 두 개 이상의 직책을 나열해야 한다.

### 3-7. 미망인(未亡人)

흔히 남편을 여의고 홀로 된 부인을 ‘미망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잘못이다. ‘미망인’은 ‘춘추좌씨전 장공편’에 나오는 말로 원래는 ‘남편을 따라 죽지 못했다’

는 뜻으로 여성이 스스로 낮추어 이르던 것이다. 현대에 와서 같은 뜻으로 남편을 여원 사람을 부르는 뜻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당사자에게 큰 실례가 될 일이다. 그냥 ‘부인’이라고 하면 충분하다.

### 3-8. 장본인(張本人)

‘장본인’은 ‘어떤 일을 피하여 일으킨 바로 그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 말은 통상적으로 부정적인 일과 관련된 사람을 일컬을 때 쓰인다. 다만 이 말이 왜 부정적인 뜻으로 쓰이게 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일부에서는 이 말을 긍정적인 뜻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말을 듣게 될 당사자가 부정적인 뜻으로 느낀다면 큰 실례가 될 테니 조심할 일이다. ‘쿠테타를 일으킨 장본인’, ‘민주화를 이끈 주인공(주역)’처럼 구분하여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 3-9. 절체절명(絶體絶命)

‘몸도 목숨도 다 되었다는 뜻으로, 어찌할 수 없는 궁박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절체절명’이다. 몸이 잘라지고 목숨이 끊어질 정도라는 뜻으로 절박한 상황을 과장해 설명할 때 쓰이는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을 흔히 ‘절대절명(絶對絶命)’으로 잘못 쓰곤 한다. ‘절대적’이라는 말이 연상되어 일어나는 현상인 듯하다. ‘절체절명의 위기’와 같이 쓰인다.

## 4. 일본어의 영향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난 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본어 찌꺼기가 우리의 말 글살이를 흐려 놓고 있다. 찌꺼기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본어 또는 일본어식 조어가 마구잡이로 우리 생활에 흘러들고 있다.

### 4-1. 입장(立場)

‘입장’은 수많은 우리말을 죽이는 낱말이다. 일본어 ‘立場(たちば)’은 우리말에 깊숙이 침투하여 그 뜻이 엄청나게 확대된 대표적인 낱말이다. 이 말은 ‘처지(處

地)’로 순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상은 그 뜻이 ‘처지’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입장’이 쓰인 문장을 살펴보면 ‘입장’은 그 쓰임새에 따라 ‘처지, 위치, 형편, 상황, 자리, 직책, 방침, 태도, 자세, 견해, 의견, 주장, 판단, 해명, 생각, 체면, 시각, 관점, 인식, 원칙, 뜻, 심정, 동향, 노선, 의지, 결심’ 같은 말 가운데 하나로 바꿔 주면 뜻이 더 확실해진다. 아예 ‘입장’을 없애 버려야 뜻이 더 분명해지기도 한다.

심지어 ‘입장 난처하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난처하다’라는 말이 ‘처지가 곤란하다’라는 뜻이니 이 말을 어떻게 풀이하여야 할지 정말 난처해지고 만다.

- 강경 입장을 고수하다.(⇨방침, 태도)
- 신문사는 양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두 전문가의 기고를 모두 실었다.(⇨주장, 또는 삭제·양측을 대변하는)
- 익삼 씨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복통 터질 노릇이 아닐 수 없었다.(⇨처지, 또는 삭제·익삼 씨로서는)
- 그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얼넘기게 되면 내 입장이 난처해진다.(⇨삭제·내가 난처해진다)
- 비록 그들에게 밥을 구걸하는 입장이지만, 그들이 자기를 걸인이 아닌 당당한 신사로 대해 주기를 희망했다.(⇨형편, 처지)
- 난 문학을 할 작정ियो. 어느 정도 객관성을 지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불편부당한 입장을 견지하는 문학을 할 작정ियो.(⇨자세, 또는 삭제·불편부당한 문학을)
- 저희들은 대원위 합하께오서 왜국의 유혹에 동요하시고 그동안 견지해 오시던 자주적인 입장을 버리시는 줄만 알았습니다.(⇨생각, 태도, 정책)
- 역사를 자주적인 입장에서 재정리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있었다.(⇨관점, 시각, 또는 삭제·자주적으로 재정리하려는)
- 다만 지금의 이 결론이, 단지 수양 자기의 억측이라든가 한명회의 보고가 허보라든가 하여야 안평의 입장이 서게 될 터인데.....(⇨체면)
- 임금에 대한 충성심과 정적에 대한 적개심, 자신의 결백함과 친척에 대한 그리움을 조부의 입장에서 읊었다.(⇨처지, 심정)

## 4-2. 현해탄(玄海灘)

‘현해탄’은 일본어 ‘겐카이나다(玄海灘)’를 우리 한자음으로 읽은 것이다. 근본적

으로 일본어이다. ‘대한해협’의 남쪽, 일본 후쿠오카 서북쪽에 있는 바다’를 일본인들은 ‘겐카이나다’라고 부른다. 즉 ‘대한해협’의 동남쪽 가장자리에 있는 후쿠오카 앞바다를 일컬어 ‘겐카이나다’라고 하는데 이 ‘겐카이나다’를 마치 ‘대한해협’을 운치 있게 부르는 말인 줄 알고 쓰는 사람이 아주 많다.

대부분 ‘현해탄을 건너다’ ‘현해탄을 오가다’ ‘현해탄을 넘다’ 같은 표현으로 이 말을 사용한다. 이 말을 ‘후쿠오카 앞바다에서 뱃놀이했다’는 뜻으로 사용했다면 이치에 맞겠지만 ‘일본으로 가다’ ‘일본과 한국을 오가다’라는 의미로는 사용할 수 없는 일이다.

현해탄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동해’를 ‘일본해’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인 셈이다. 각종 지도에도 ‘Korea Strait’라고 되어 있다. ‘현해탄’은 ‘대한해협’이라 해야 마땅하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쓰시마 섬 동쪽의 일본 쪽 해협 역시 ‘대한해협’이다. 굳이 구분하자면 쓰시마 섬을 중심으로 일본 쪽은 대한해협 ‘동수도(eastern channel)’이며 대한민국 쪽은 ‘서수도(western channel)’가 된다. 이 ‘대한해협 동수도’를 ‘쓰시마 해협’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로서야 굳이 쓰시마 해협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

#### 4-3. 잔고(殘高), 판매고(販賣高)……

‘잔고, 생산고, 수출고, 판매고……’와 같은 말을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고(高)’가 일본어라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이 ‘고’는 금액이나 양(量)을 나타내는 말이다. 따라서 ‘-고’는 ‘-액, -금, -량’으로 바뀌어서 표현해야 한다.

‘잔고’는 ‘잔금, 잔액, 나머지’로, ‘생산고’는 액수를 뜻할 때는 ‘생산액’으로, 규모를 말할 때는 ‘생산량’으로 하면 된다. 다른 예들도 모두 마찬가지다.

금액이나 양을 나타내는 말에 ‘고’가 쓰였다면 이는 모두 일본식 조어이므로 ‘-액, -량’ 등으로 바꿔 주어야 옳다.

#### 4-4. 수입선(輸入先), 거래선(去來先)

‘수입선, 거래선’ 같은 말도 자주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쓰인 ‘-선(先)’ 역시 일본어에서 온 것이다. 이 ‘선’은 일본어에서는 ‘상대방’이나 ‘대상’을

뜻한다. 그러나 우리말에서는 ‘선’에 이런 뜻이 없다. ‘수입처, 거래처’처럼 ‘-처(處)’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다.

아울러 ‘행선지(行先地)’도 일본어이다. 우리말로로는 ‘갈 곳, 목적지’라고 한다.

#### 4-5. 세대(世帯)

가구(家口)를 흔히 ‘세대’라고 하는데 일본어 ‘世帯(せたい)’를 우리말로 읽은 것이다. 주민등록 등본 등을 떼어 보면 ‘세대주’라는 항목이 있기도 하다. 우리말을 가장 정확히 써야 할 관공서에서 오히려 우리말을 버리고 일본어를 국민 모두에게 퍼뜨리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도 그대로 ‘총 2000세대 분양’ 등의 문구가 버젓이 나온다.

독립된 한 집안을 이룰 때에는 ‘세대’가 아닌 ‘가구’를 써야 한다. 그 집의 주인이나 가장도 ‘세대주’가 아니라 ‘집주인, 가구주, 가장’으로 써야 한다.

#### 4-6. 내역(内譯)

‘내역’은 ‘물품이나 금액 따위의 내용’을 가리킨다. 이 ‘내역’ 또한 일본어이다. 우리말에는 ‘명세(明細)’가 있다. 자세하게 밝힌다는 뜻이다. 따라서 ‘사업 내역, 물품 내역, 공사비 내역’ 같은 말은 ‘내역’을 ‘명세’로,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으로 바꿔 주면 된다.

#### 4-7. 사체(死體)

문국진: 일본에서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사체’라고 표현하지만 한국에서는 사체라는 것은 동물의 사체만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경우는 송장, 시체가 되지요. 사람과 동물은 구별합니다.

우에노 마사히코: 일본은 한자 제한으로 ‘시(屍)’와 ‘사(死)’를 통일했습니다. 동물도 사람도 전부 통일해서 ‘사체’라는 말을 사용하기로 하고 ‘시(屍)’라는 한자를 없앴습니다.

문국진: 엄밀히 말하면 한국에서 사체 부검이라고 하면 이것은 동물의 사체를 부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국진, 한국의 시체 일본의 사체)

#### 4-8. 그 밖의 것들

고수부지(高水敷地)⇒둔치, 강터  
곤색(紺色)⇒감색, 진남색, 검남색  
굴삭기(掘削機)⇒굴착기(掘鑿機)  
기라성(綺羅星)⇒빛나는 별(기라성 같은⇒쟁쟁한)  
노견(路肩)⇒갓길, 길옆  
다테기⇒다짐, 다진 양념  
다시(出汁)⇒맛국물  
부(分)⇒푼(8부 능선⇒8푼 능선, 3부 다이아몬드⇒3푼 다이아몬드)  
부지(敷地)⇒터, 대지  
선착장(船着場)⇒나루  
소테⇒소매(소테나시⇒민소매)  
소라색(空色)⇒하늘색  
수순(手順)⇒차례, 순서  
시건(施鍵)장치⇒잠금장치  
시말서(始末書)⇒경위서  
시합(試合)⇒겨루기, 경기  
십팔번(十八番)⇒에창곡  
아나고⇒붕장어  
오텡(御田)⇒꼬치 ※요즘은 오텡이 ‘어묵’의 뜻으로 더 많이 쓰임.  
와사비(山葵)⇒고추냉이  
전향적(前向的)⇒긍정적, 미래지향적, 적극적, 발전적  
정종(正宗·まさむね)⇒청주(淸酒) ※ 정종은 일본 마사무네(正宗) 가문에서  
빚은 술에서 유래함.  
지리⇒맑은탕  
진검(眞劍)승부⇒정면승부  
혹성(惑星)⇒행성(行星)

## 어휘 교열 연습

1.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이 ‘문화 창달’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살펴보더라도 **잘 떠오르는 일화가 없다.**  
→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이 ‘문화 창달’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살펴보더라도 **얼른 떠오르는 사례가 없다.**  
※ ‘일화(逸話)’는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숨겨진 이야기’가 잘 떠오를 리가 없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잘’보다는 ‘얼른’이 더 나올 듯합니다.  
‘일화가 유명하다’, ‘잘 알려진 일화’, ‘유명한 일화’ 같은 표현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 역시 ‘숨겨진 이야기’라는 뜻을 간과해 잘못 쓰는 예입니다. ‘일화’는 유명할 수 없고, ‘유명하면’ 일화일 수 없습니다.
2. 다양한 수상 및 갯벌 **동식물 군락지**를 만들고 이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 다양한 수상 및 갯벌 **동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를 **관찰**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 ‘군락’은 ‘같은 생육 조건에서 때를 지어 자라는 식물 집단’을 이르는 말이므로 ‘군락지’라는 말은 없습니다. ‘동물이 깃들여 사는 곳’은 ‘서식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동식물 군락지’는 부적절합니다. 동식물을 아울러서 표현하려면 ‘살다’와 같은 말을 쓰면 될 듯합니다.  
또 ‘동식물 군락지’를 체험한다는 표현도 어색합니다. ‘체험’ 대신 ‘관찰’이 더 어울립니다.
3. 중국이 개혁 개방정책을 내건 지 30여 년 만에 경제규모를 90배 키우면서 경제 외교 등 여러 면에서 미국과 함께 주요 2개국(G2)의 반열에 확실히 **등극했다.**  
→ 중국이 개혁 개방정책을 내건 지 30여 년 만에 경제규모를 90배 키우면서 경제 외교 등 여러 면에서 미국과 함께 주요 2개국(G2)의 반열에 확실히 **올랐다.**  
※ ‘등극(登極)’의 원뜻은 ‘임금의 자리에 오름’이며 비슷한 말로 ‘즉위(卽位)’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야에서 가장 높은 자리나 지위에 오름’이란

뜻이 더 생겨 ‘정상 등극’, ‘캠피언 등극’처럼 쓰게 된 것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중국이 미국에 이은 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2위의 자리는 ‘등극’이라고 표현하기에 적절하지 못합니다. 바로 앞에 ‘반열’이란 말이 있으므로 ‘올랐다’, ‘들었다’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일본의 저(低)성장은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장기불황에 빠진 탓이다.  
 → 일본의 저(低)성장은 부동산 **거품이 꺼진** 이후 장기불황에 빠진 탓이다.  
 ※ ‘버블’은 바로 앞에서 ‘중국의 성장 거품’이라고 썼듯이 ‘거품’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붕괴(崩壞)’는 ‘건축물, 구조물 및 이념, 주의(主義)등이 무너지고 깨어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물방울이나 거품은 ‘붕괴’한다고 하지 않고 ‘(물방울이) 터졌다’, ‘(거품이) 꺼졌다’처럼 표현하는 게 더 낫습니다. 한자어 ‘소멸(消滅)’로 쓸 수도 있습니다.  
 또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는 명사가 4개나 이어져 문장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글쓰기를 다룬 많은 책에서 피하라고 권하는 ‘과도한 명사구화’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쓰는 이는 편할지 몰라도 읽는 이는 딱딱하게 느끼기 쉽습니다. 조금만 풀어 쓰면 훨씬 부드럽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됩니다.

5. 국내 어선 1척이 8일 동해상에서 북한에 **나포됐다**.  
 → ..... **끌려갔다/납치됐다**.  
 ※ 때로는 용어 하나가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북으로 끌려간 어선’에 대해 ‘나포됐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대승호가 북한 해역을 침범했음을 전제로 하는 표현이 됩니다. ‘나포’에는 ‘죄인을 붙잡음’, ‘사람이나 배, 비행기를 사로잡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후자의 뜻풀이에는 ‘죄인을 붙잡음’이라는 첫 번째 뜻풀이가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영해를 침범해 조업 중이던 외국 어선이 우리 해경에 나포되었다.’처럼 법규를 어긴 것을 전제로 쓰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포’는 ‘북한의 정당한 주권 행사’임을, ‘피랍’이나 ‘납치됨’은 ‘북한의 불법적인 무력행사’임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북한 해역을 침범했는지 아닌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나포’라는 말은 적절치 않습니다.

6. 이대호가 2006년 타격 3관왕을 이뤄냈지만 손에 권 **타이를 숫자는** 장타율까지 합쳐 4개였다.

→ 이대호가 2006년 타격 3관왕을 이뤄냈지만 손에 권 **타이를 수는** 장타율까지 합쳐 4개였다.

→ 이대호가 2006년 타격 3관왕을 이뤄냈지만 손에 권 **타이들은** 장타율까지 합쳐 4개였다.

※ ‘수(數)’는 ‘셀 수 있는 사물의 크기를 나타내는 값’이며, ‘숫자(數字)’는 ‘아라비아 숫자’처럼 ‘수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이 문장에서처럼 몇 개인지 그 값을 나타낼 때는 ‘수’라고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뒤에 수를 나타내는 말(‘4개’)이 있을 때는 생략하는 것이 더 간결합니다.

7. 혼자 **깨우치고** 배웠다.

→ 혼자 **깨치고** 배웠다.

※ ‘깨우치다’는 ‘깨달아 알게 하다’를 뜻하며, ‘깨치다’는 ‘일의 이치를 깨달아 알다’를 뜻합니다. ‘깨우치다’는 남이 깨닫도록 하는 것이며 ‘깨치다’는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자 깨달았음을 뜻하려면 ‘깨치다’를 써야 합니다.

8. 그 유별난 ‘진돗개 **승부욕**’도 골프에서만은 예외다.

→ 그 유별난 ‘진돗개 **승리욕**’도 골프에서만은 예외다.

※ ‘승부’는 ‘이기고 짐’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기고자 하는 욕망’, 즉 ‘승리하고자 하는 욕망’은 ‘승리욕’이라고 하여야 이치에 맞습니다.

9. 매 경기가 끝날 때마다 인터넷엔 허 감독과 선수들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글이 **붓물을 이뤘다**.

→ 경기가 끝날 때마다 인터넷엔 허 감독과 선수들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글이 **붓물 터지듯 했다**.

※ ‘붓물(漑-)’은 ‘보에 권 물, 또는 거기서 흘러내리는 물’을 뜻합니다. ‘붓물’은 괴어 있는 잔잔한 상태의 물이나, 농작물을 경작하는 데 필요한 적정량만 흘러보내는 물입니다. 따라서 ‘붓물을 이루다’라는 말은 주위에서 흘러들어 온 물이 보에 괴었다는 뜻이 됩니다. 이 말로는 어떤 사물이

갑작스럽게 또는 역동적으로 불어나는 현상을 표현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는 ‘붓물이 터지다’, ‘밀물’, ‘홍수’ 같은 말이 더 어울립니다.

10. **유명세를 타니까** 사장 노릇하던 사람이 이상해졌다.

→ **유명해지니까** 사장 노릇하던 사람이 이상해졌다.

※ ‘유명세(有名稅)’는 ‘세상에 널리 알려져 당하는 불편이나 곤욕을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유명해지다’의 뜻으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참고로 불편을 당하거나 곤욕스러운 처지가 될 때는 ‘유명세를 치르다’, ‘유명세가 따르다’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11. 이후, 라면 **CF까지** 등장하는 등 톡톡히 **유명세를 누렸다**.

→ 이후, 라면 **CF에까지** 등장하는 등 **인기를 톡톡히 누렸다**.

※ 이 문장의 생략된 주어는 ‘최민호’입니다. 주어를 살려 놓으면 문장이 어색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까지’는 ‘그 상황 이상의 것이 더해지거나 더 나아감을 나타내는 조사’이므로 ‘등장하는’의 대상이 됨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따라서 조사 ‘에’를 더해 주어야 합니다.

유명해지는 바람에 곤욕스러운 일을 당할 때는 ‘유명세를 치르다’와 같이 쓰지만 이 문장에서 ‘라면 CF에까지 등장하는’ 일이 곤욕스럽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인기를 누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 ‘톡톡히’는 ‘누리다’를 꾸미는 부사이므로 수식어를 피수식어와 가까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2. 우선 현대그룹이 인수희향서 **접수** 직전 공개한 일종의 ‘히든카드’인...

→ 우선 현대그룹이 인수희향서 **제출** 직전 공개한 일종의 ‘히든카드’인...

※ ‘접수(接受)’는 그 한자에서 나타나듯이 ‘받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신청, 신고, 돈, 물건 따위를 받음’을 뜻합니다. ‘현대그룹이 인수희향서 접수’는 현대그룹이 누군가에게서 인수희향서를 받음을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출’로 바뀌야 바른 표현이 됩니다. 또 ‘인수희향서 제출 직전’처럼 명사를 나열하는 것은 문장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인수희향서를 제출하기 직전에’, ‘인수희향서를 내기 직전에’처럼 풀어 쓰는 것이 읽기에 좋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13. 하지만 신용등급만으로 **대출 여부를** 따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 하지만 신용등급만으로 **대출 가부를** 따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 ※ ‘여부(與否)’는 ‘그러함과 그러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미 대출했는지를 따지는 말이라면 ‘여부’라고 할 수 있지만 ‘대출을 해 줄 수 있는지’를 따질 때는 ‘가부(可否)’라고 해야 합니다.
14. ICP-MS는 어린이 장난감, 문구류 등에서 금속 비금속 원소를 미량 분석해 기준 함량치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ICP-MS는 어린이 장난감, 문구류 등에서 금속 비금속 원소를 미량 분석해 기준 함량치를 **초과했는지** 확인한다.
- ※ ‘여부(與否)’는 ‘그러함과 그러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말이며, ‘-는지’는 막연한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입니다. 따라서 ‘-는지’와 ‘여부’는 둘 가운데 하나만 써도 충분합니다. ‘초과’에 초점을 맞춰 강조하려는 뜻에서 ‘여부’를 썼다면 ‘초과하지는 않았는지’ 정도로 쓸 수 있겠습니다. ‘초과 여부를’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15. ....의회가 내용을 수정하지 못한 채 **찬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 ....의회가 내용을 수정하지 못한 채 **찬반만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 ※ ‘여부(與否)’는 ‘그러함과 그러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찬반’처럼 이미 ‘그러함과 그러하지 아니함’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면 ‘여부’를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찬반’이나 ‘가부’를 모두 쓸 수 있습니다.
16. 자신의 사이클이 있는 지점에 특이한 **표식을** 해둘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정확하게 걸어대 위치를 **인지해야** 한다.
- 자신의 사이클이 있는 지점에 특이한 **표시를** 해둘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정확하게 걸어대 위치를 **알아(확인해) 뒤야** 한다.
- ※ ‘표식’은 ‘표지(標識)’의 잘못입니다. ‘識’은 ‘알다’의 뜻을 나타내면 ‘감식(鑑識), 견식(見識), 유식(有識), 지식(知識), 식견(識見)’처럼 ‘식’으로 읽고,

‘표하다’ ‘적다’의 뜻을 나타내면 ‘도로표지(道路標識), 표지판(標識板)’처럼 ‘지’로 읽습니다. ‘표지’는 ‘도로표지, 공중전화 표지, 통행금지 표지’처럼 공중에게 알리는 표시를 일컬을 때 주로 씁니다. 이 문장에서처럼 자신의 사이클을 빨리 찾기 위하여 특징을 만들어 놓는 것을 이룰 때는 ‘표를 하다, 표시를 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는 ‘어떤 사실을 이성이나 감각을 통하여 분명히 아는 것’을 뜻합니다. ‘신호를 인지하다, 존재를 인지하다, 현실을 인지하다’처럼 씁니다. 즉 ‘인지’는 ‘사물’이 아니라 ‘사실’을 아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문장에서 ‘알아 두다, 확인해 두다’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바른 표현입니다.

17. 동원이는 피곤해 후반에 들어갔지만 **가능한** 풀타임을 뛰며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 동원이는 피곤해 후반에 들어갔지만 **가능한 한** 풀타임을 뛰며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 ‘가능한’은 ‘가능하다’의 관형사형이므로 명사 또는 명사구가 와야 합니다. 이 문장에서 명사구가 아닌 ‘풀타임을 뛰며’를 수식하는 구조이므로 잘못입니다. 이런 때는 ‘가능한’이 수식할 수 있는 명사 ‘한(限)’ 같은 말을 넣어 주면 됩니다. ‘가능한 한’ 대신 ‘될 수 있으면’ ‘되도록’ 같은 말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18. 게다가 민주당이 3일 열린 전당대회에 그동안 에너지를 쏟는 바람에 ‘국감의 주역’이 돼야 할 야당 의원들의 준비가 예년보다 소홀했을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 게다가 민주당이 3일 열린 전당대회에 그동안 에너지를 쏟는 바람에 ‘국감의 주역’이 돼야 할 야당 의원들의 준비가 예년보다 소홀했을 **수 있어 우려되고** 있다.

※ ‘가능’은 ‘할 수 있거나 될 수 있음’을 뜻하며 긍정적인 어감이 있는 낱말입니다. 부정적인 표현에는 ‘우려’ 같은 말을 쓰는 게 좋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가능성’과 ‘우려’가 함께 쓰여 어색합니다.

19. 이마트는 고심 끝에 올여름부터 종이박스를 **보랭** 효과가 높은 스티로폼 박스로 바꾸고 냉동기간도 1주일로 제한한 ‘극신선 냉동 고등어’를 새로

선보였다.

→ 이마트는 고심 끝에 올여름부터 종이박스를 **보온** 효과가 높은 스티로폼 박스로 바꾸고 냉동기간도 1주일로 제한한 ‘극신선 냉동 고등어’를 새로 선보였다.

※ ‘보랭(保冷)’은 찬 기운을 유지한다는 뜻으로 만든 조어로 보이지만 이는 ‘보온(保溫)’으로 써야 맞습니다. ‘보온’은 ‘주변의 온도에 관계없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수은주가 아무리 내려가도 ‘온도가 영하 10도’처럼 쓰지 ‘냉도가 영하 10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차면 찬 대로, 따뜻하면 따뜻한 대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보온’입니다. ‘보온병’을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도 담아도, 얼음물을 담아도 보온병입니다. ‘강도가 세다/약하다’, ‘고도가 높다/낮다’, ‘농도가 짙다/얇다’ 같은 말도 비슷한 예입니다.

20. 최고 시속이 150km에 이르면서도 **연비는** 동급 차량의 **4분의 1 수준인** 고속전기차가 서울시내를 달린다.

→ 최고 시속이 150km에 이르면서도 **연료소비효율(연비)**은 동급 차량의 **4배 수준인** 고속전기차가 서울시내를 달린다.

※ ‘연비’는 한자로는 ‘燃比’와 ‘燃費’로 적는바, 그 뜻이 서로 다릅니다. ‘燃比’는 ‘자동차의 단위 연료당 주행거리의 비율’을 뜻하며, ‘燃費’는 ‘자동차가 단위 주행거리 또는 단위 시간당 소비하는 연료의 양’을 뜻합니다. 예컨대 ‘燃比’는 ‘연료 1L로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나타내며, ‘燃費’는 ‘1km를 가는 데 얼마나 많은 연료를 소비하는지’를 나타냅니다. 두 낱말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뜻하므로 ‘연비가 높다’, ‘연비가 낮다’ 식의 표현은 그 의미가 막연해지기도 합니다. 이 문장에서 ‘연비’가 ‘燃比’라면 같은 양의 연료로 동급 차량의 4분의 1의 거리밖에 달리지 못하는 것이며, ‘燃費’라면 4배의 거리를 달리는 게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연비’를 ‘燃比’의 개념으로 쓰되 처음 나올 때는 ‘연료소비효율(연비)’라고 표기하고 두 번째 나올 때부터는 ‘연비’라고 적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21. 중국의 지난해 자동차 판매량은 1364만4800대로 ‘자동차 중주국’인 미

국의 1034만 대를 **월등히** 앞질렀다.

21.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제품의 국가별 순위에서 중국은 1210개로 2위 독일의 860개보다 **월등히** 많았다.

→ 중국의 지난해 자동차 판매량은 1364만4800대로 ‘자동차 종주국’인 미국의 1034만 대를 **훨씬** 앞질렀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제품의 국가별 순위에서 중국은 1210개로 2위 독일의 860개보다 **훨씬** 많았다.

※ ‘월등’은 ‘수준이 정도 이상으로 뛰어난’을 뜻하는 말이므로 ‘앞지르다’, ‘많다’ 같은 말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훨씬’ 정도로 표현하면 충분합니다.

22. 경남 관계자들의 푸념에는 번듯한 훈련장이 없는 도민구단의 **서글픈 애환**이 오롯이 녹아 있다.

→ 경남 관계자들의 푸념에는 번듯한 훈련장이 없는 도민구단의 **서글픔**이 오롯이 녹아 있다.

※ ‘애환(哀歡)’은 ‘슬픔과 기쁨’을 아울러 이르는, ‘희비(喜悲)’와 비슷한 말입니다. ‘슬픔’만을 이룰 때는 ‘애환’이라고 해서 안 됩니다. 참고로 ‘애환을 달래다’ 같은 표현도 ‘슬픔을 달래다’처럼 써야 합니다.

23. ‘쌍승식’은 1·2위 선수 2명의 순위를 정확하게 적중시켜야 하는 꽤 **난이도가 높은** 승식이지.

→ ‘쌍승식’은 1·2위 선수 2명의 순위를 정확하게 적중시켜야 하는 꽤 **난도가 높은** 승식이지.

※ ‘난이도’는 ‘어렵고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어렵고 쉬운 정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난도가 높다’처럼 써야 합니다. 이보다는 ‘어렵다’라고 쓰는 것이 훨씬 나을 듯합니다.

24. 8월에는 이병헌, 최민식 주연의 ‘악마를 보았다’가 영등위 심의에 발목이 잡혀 시사회는 물론 개봉일까지 미뤄지는 **곤혹을 치렀다**.

→ 8월에는 이병헌, 최민식 주연의 ‘악마를 보았다’가 영등위 심의에 발목이 잡혀 시사회는 물론 개봉일까지 미뤄지는 **곤욕을 치렀다**.

※ ‘곤혹’은 ‘곤란한 일을 당하여 어찌할 바를 모름’을 뜻하는 말입니다. ‘심

한 모욕, 또는 참기 힘든 일'을 뜻하는 말은 '곤욕'입니다. '곤욕을 치르다', '곤혹스러운 질문'같이 씁니다.

25. 또 강북구 부구청장, 서울시 행정국장을 거쳐 2006년 1급직인 복지여성 정책보좌관을 **역임**한 바 있다.

→ 또 강북구 부구청장, 서울시 행정국장을 거쳐 2006년 1급직인 복지여성 정책보좌관을 **지낸** 바 있다.

※ '역임(歷任)'은 '여러 직위를 두루 거쳐 지냄'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문장에서처럼 하나의 직위만 말할 때는 '역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강북구 부구청장, 서울시 행정국장, 복지여성정책보좌관을 역임'처럼 써야 합니다.

26. 하지만 제적등본에 나타난 구당의 **선친인** 김서중 씨의 사망 시기는 1915년 2월 28일.

26'. 한때 구당이 부회장직을 맡았던 관인침구학원 동창회 및 재야 침구학계 일각에선 구당이 **선친에게서** 침구술을 배운 것이 아니라.....,

→ 하지만 제적등본에 나타난 구당의 **부친인** 김서중 씨의 사망 시기는 1915년 2월 28일.

한때 구당이 부회장직을 맡았던 관인침구학원 동창회 및 재야 침구학계 일각에선 구당이 **부친에게서** 침구술을 배운 것이 아니라...

※ '선친'은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를 남에게 이르는 말'입니다. '구당의 선친'처럼 써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참고로 남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이룰 때는 선고장(先考丈), 선대인(先大人) 같은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의 돌아가신) 부친, 아버지'라고만 써도 충분합니다.

27. 실험에 쓰인 국내산 낙지가 **수입산일**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 실험에 쓰인 국내산 낙지가 **외국산일**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 '수입산'에서 '-산(産)'은 '(지역을 나타내는 말 뒤에 붙어) 거기에서 산출된 물건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므로 '한국산', '제주산', '프랑스산'처럼 씁니다. '수입'은 지명이 아니므로 접미사 '-산'을 붙일 수 없습니다. '수입산'은 '외국산', '수입품'처럼 써야 바른 표현이 됩니다.

28. 소비자의 반응이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수입산** 밀 제품과 2~3배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이 걸림돌이다.

→ 소비자의 반응이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수입** 밀 제품과 2~3배 **가격 차**가 나는 것이 걸림돌이다.

※ 이 문장에선 ‘수입 밀’로 해도 되겠습니다.

‘차이’는 ‘다름’을 뜻하는 말입니다.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었을 때에,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수준이나 정도’를 나타내는 말은 ‘차’입니다. ‘실력 차, 견해차, 세대 차’같이 써야 합니다. 이 문장에서도 ‘가격 차’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29. IMF 때라 형편 어려운 후배가 많았는데, 그런 친구들 얘기를 하면 영 안 좋아했죠.

→ **외환위기** 때라 형편 어려운 후배가 많았는데, 그런 친구들 얘기를 하면 영 안 좋아했죠.

※ ‘IMF’는 ‘국제통화기금’의 약어입니다. 1997년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이어 한국 경제가 IMF의 관리를 받게 되는 일련의 사태를 ‘IMF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IMF’라고만 하는 것은 더더욱 맞지 않습니다. ‘IMF’라는 국제기구가 위기를 겪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외환 부족 등의 이유로 위기를 겪은 것이기 때문에 ‘외환위기’로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IMF관리체제’라고도 합니다.

30. 미련 없이 은퇴한 그는 이후 **사교육 투사**로 변신했다.

→ 미련 없이 은퇴한 그는 이후 **사교육 반대 투사**로 변신했다.

※ ‘투사’는 ‘사회 운동 따위에서 앞장서서 투쟁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독립투사’는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이며, ‘혁명 투사’는 혁명을 위해 앞장서서 투쟁하는 사람입니다. 앞에 나온 말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교육 투사’는 ‘사교육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고 맙니다. 사교육을 없애기 위해 투쟁한다는 뜻을 나타내려면 ‘반대’와 같은 표현을 추가해 주어야 합니다.

31. “어릴 적 이상과 한 무대에 선다니 엄청 떨렸어요. **그 와중에도** 제가 한

- 국을 대표하는 가수니까 정말 잘하고 싶었고요.”
- “어릴 적 이상과 한 무대에 선다니 엄청 떨렸어요. **그렇긴 해도** 제가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니까 정말 잘하고 싶었고요.”
- ※ ‘외중’은 ‘흐르는 물이 소용돌이치는 가운데’의 뜻으로 여기에서 ‘일이나 사건 따위가 시끄럽고 복잡하게 벌어지는 가운데’라는 뜻이 생겼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시끄럽고 복잡하게 벌어지는’ 일은 없는 듯합니다. 앞에 떨렸다는 사실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긴 해도’, ‘그렇지만’ 정도로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32. “어렵게 복구에 성공한 만큼 앞으로 더는 훼손되지 않도록 장기 **보존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 “어렵게 복구에 성공한 만큼 앞으로 더는 훼손되지 않도록 장기 **보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 ※ ‘보전’은 ‘안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함’을 뜻하며, ‘보존’은 ‘잘 보호하고 간수하여 남김’을 뜻합니다. 환경 생태계처럼 그 내부에서는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지만 전체로는 유지되어야 하는 대상에는 ‘보전’을, 유물 영토처럼 외형이 변화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간수해야 하는 대상에는 ‘보존’을 씁니다.

33. 3일 제2회 전국여자천하장사씨름대회가 열린 전남 구례군 **실내체육관**은 1500석에 빈 자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 3일 제2회 전국여자천하장사씨름대회가 열린 전남 구례군 **체육관**은 1500석에 빈 자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 ※ ‘체육관’에서 ‘관(館)’은 건물이라는 뜻이 있는 한자입니다. 따라서 ‘실내’는 굳더더기입니다.

34. 기부가 특정 시기 또는 행사에 치우쳐 일회성으로 그친다는 **반증**이다.
- 기부가 특정 시기 또는 행사에 치우쳐 일회성으로 그친다는 **증거**이다.
- ※ ‘반증’은 ‘어떤 사실이나 주장이 옳지 아니함을 그에 반대되는 근거를 들어 증명함. 또는 그런 증거’입니다. 이 문장의 앞에 국민의 기부 참여율과 정기적 기부자 비율이 나왔지만 이 수치들이 이 문장에서 일회성

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 것이 아니므로 ‘반증’이 될 수 없습니다.

35. 이런 문화적 가치 때문에 프랑스 정부는 벽화를 보호하기 위해 동굴을 폐쇄한 뒤 여기서 200m 떨어진 곳에 실물과 똑같이 **재연한** 복제 동굴 ‘라스코2’를 만들어.....

→ 이런 문화적 가치 때문에 프랑스 정부는 벽화를 보호하기 위해 동굴을 폐쇄한 뒤 여기서 200m 떨어진 곳에 실물과 똑같이 **재현한** 복제 동굴 ‘라스코2’를 만들어.....

※ ‘재연’은 ‘연극이나 영화를 다시 상연함. 한 번 하였던 행위나 일을 다시 되풀이함’을 뜻하며, ‘재현’은 ‘다시 나타나거나 다시 나타냄’을 뜻합니다. 복제동굴은 실물과 똑같이 나타내어 놓은 것이므로 ‘재현’을 써야 합니다.

36. 조바한의 만수르 이브라힘 자데 감독 역시 “.....내일 홈에서 많은 골을 넣겠다”고 **다부진 출사표를 던졌다.**

→ 조바한의 만수르 이브라힘 자데 감독 역시 “.....내일 홈에서 많은 골을 넣겠다”고 **다부진 포부를 밝혔다.**

※ ‘다부지다’는 ‘벽찬 일을 견디어 낼 만큼 굳세고 야무지다’를 뜻하는 말입니다. ‘출사표’를 꾸미기엔 부적절한 낱말입니다. 또 ‘출사표’는 ‘전쟁에 출병할 때 그 뜻을 적어서 임금에게 올리던 글’입니다. 임금에게 올리는 글을 ‘던지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올리다’까지는 아니더라도 ‘내다’, ‘발표하다’ 정도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다부지게 밝혔다’, ‘다부진 포부를 밝혔다’ 정도로 표현하면 될 듯합니다.

37. 결국 한국프로야구에 2루 쪽 기습번트를 전파한 **장본인이** 장훈 씨였던 셈.

→ 결국 한국프로야구에 2루 쪽 기습번트를 전파한 **주인공이** 장훈 씨였던 셈.

※ ‘장본인’은 ‘어떤 일을 꾀하여 일으킨 바로 그 사람’이란 뜻으로 통상 부정적인 일을 이끈 사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쿠데타를 이끈 장본인’처럼 쓰며 ‘민주화를 이끈 장본인’처럼은 쓰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일을 앞장서서 한 사람은 ‘주역, 주인공’처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중립적인 표현으로는 ‘당사자’가 있습니다.

38. 하지만 제주항공이 연일 'LCC신화'를 **갱신하며** 성공하다 보니 '원조' 일본이 '후발주자' 한국에 '역(逆)유학' 오는 상황이 벌어졌다.
- 하지만 제주항공이 연일 'LCC신화'를 **경신하며** 성공하다 보니 '원조' 일본이 '후발주자' 한국에 '역(逆)유학' 오는 상황이 벌어졌다.
- ※ '更'은 '다시'라는 뜻일 때는 '갱'으로 읽고, '고치다'라는 뜻일 때는 '경'으로 읽습니다. 따라서 '更新'은 면허나 계약 등의 주된 내용은 두고 기간만 연장할 때는 '갱신'이라고 하며, 어떤 기록을 깨고 새로운 기록을 세우는 것은 '경신'이라고 합니다.
39. 게다가 파일럿 역시 일본 항공사의 3분의 1 수준의 급료를 받고 일해 인력 **운영에서도** 자유롭다.
- 게다가 파일럿 역시 일본 항공사의 3분의 1 수준의 급료를 받고 일해 인력 **운용에서도** 자유롭다.
- ※ '운영'은 '조직, 기구, 사업체 따위를 운영하고 경영함', '어떤 대상을 관리하고 운용하여 나감'을 뜻하며, '운용'은 '무엇을 움직이거나 부리어 씬'을 뜻합니다. 회사 따위는 '운영하다'를, 사람이나 기계 따위는 '운용하다'를 쓰는 게 더 적합합니다.
40. A감시관은 2부두 27번 석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를 조그스틱으로 좌에서 우로 **조정하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 A감시관은 2부두 27번 석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를 조그스틱으로 좌에서 우로 **조종하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 ※ '조정(調整)'은 '어떤 기준이나 실정에 맞게 정돈함'을 뜻하며, '조종(操縱)'은 '비행기나 선박, 자동차 따위의 기계를 다루어 부림'을 뜻하는 말입니다.
41. 경주시는 첫 대회를 계기로 내년부터 출전팀을 대폭 늘려 '주니어 월드컵'에 **버금가는** 대회로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 경주시는 첫 대회를 계기로 내년부터 출전팀을 대폭 늘려 '주니어 월드컵'에 **맞먹는** 대회로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 ※ '버금가다'는 '둘째가다'와 같은 말입니다. 만약 이 문장에서 '주니어 월드컵'

컵보다는 못한'의 뜻으로 쓰인 것이라면 바른 표현이지만 '필적하다, 맞먹다, 비슷하다'의 뜻으로 쓰인 것이면 틀린 표현이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42.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여자월드컵에서 한국 축구 사상 처음으로 태극소녀들이 FIFA 주관 대회 첫 우승을 **일궈내자** 온 국민은 환호했다.

→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여자월드컵에서 한국 축구 사상 처음으로 태극소녀들이 FIFA 주관 대회 첫 우승을 **거두자** 온 국민은 환호했다.

※ '일구다'는 '논밭을 만들기 위하여 땅을 파서 일으키다', '현상이나 일 따위를 일으키다'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문장에선 '거두다' '이뤄 내다'로 표현하면 될 듯합니다.

43. 부동산, 쇼핑물, 게임산업 등으로 재산을 **일군** 것으로 알려졌다.

→ 부동산, 쇼핑물, 게임산업 등으로 재산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 '일구다'는 '논밭을 만들기 위하여 땅을 파서 일으키다', '현상이나 일 따위를 일으키다'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문장에선 '모으다'로 표현하면 될 듯합니다.

44. 오랜 세월이 지나 다시 만난 **부모와 자식은** 그 뒤 정말 **'좋은 일만 겪을까**.

→ 오랜 세월이 지나 다시 만난 **부모와 자식에겐** 그 뒤 정말 **'좋은 일만 생길까**.

※ '겪다'는 '어렵거나 경험될 만한 일을 당하여 치르다'를 뜻하는 말이므로 '좋은 일'과는 어울리기 어렵습니다. '겪다' 대신 '생기다' 같은 말로 바꿔 주어야 합니다. '겪을까'의 주어는 '부모와 자식'이 되지만 '생기다'의 주어는 '좋은 일'이므로 '부모와 자식'에 조사 '에게'를 붙여 부사어로 바꿔 주어야 합니다.

45. 5개월 전 100여만 원의 **카드값을** 10일간 연체했다는 게 이유였다.

→ 5개월 전 100여만 원의 **카드대금을** 10일간 연체했다는 게 이유였다.

※ ‘값’은 ‘사고파는 물건에 일정하게 매겨진 액수’, ‘물건을 사고팔 때 주고 받는 돈’을 뜻하는 말입니다. 카드로 물건을 사고 나중에 갚는 ‘돈’은 ‘값’이 아니라 ‘대금’이라고 합니다.

46. 석유나 전기 등 **탄소** 배출 에너지를 전혀 쓰지 않는 대규모 녹색타운이 경기 광주시에 들어선다.

→ 석유나 전기 등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를 전혀 쓰지 않는 대규모 녹색타운이 경기 광주시에 들어선다.

※ 정부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등의 구호를 쓸 만큼 잘못 쓰고 있는 말이 ‘탄소’입니다.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물질은 ‘탄소’가 아닙니다. 교토의정서에서 밝히고 있는 ‘온실가스(greenhouse gases)’는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CO<sub>2</sub>), 메탄(Methane·CH<sub>4</sub>), 아산화질소(Nitrous oxide·N<sub>2</sub>O), 수소화플루오르화탄소(Hydrofluorocarbons·HFCs), 과플루오르화탄소(Perfluorocarbons·PFCs), 육플루오르화황(Sulphur hexafluoride·SF<sub>6</sub>)’ 등 여섯 가지 화합물입니다. 탄소화합물이 네 가지이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산화탄소인데 이 이산화탄소를 탄소라고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나 일부 단체의 구호를 그대로 적어야 할 때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밖의 상황에서는 탄소 대신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라고 쓰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47. 남자 연기자들과 벽을 두지 않고 **격이** 없이 친해지는 건 그녀 특유의 밝은 성격 덕분이다.

→ 남자 연기자들과 벽을 두지 않고 **격의** 없이 친해지는 건 그녀 특유의 밝은 성격 덕분이다.

※ ‘서로 터놓지 않는 속마음’을 뜻하는 말은 ‘격의(隔意)’입니다. 참고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두다’라는 뜻으로 쓰는 관용 표현은 ‘격(隔)을 두다’입니다.

48. 사슬에 묶인 개들은 **이방인** 방문에 **목청을 한껏 높였다**.

→ 사슬에 묶인 개들은 **낯선 사람**의 방문에 **목청을 한껏 들쭉했다**.

※ ‘이방인(異邦人)’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기사에서 ‘이방인’이 기자 자신을 뜻하므로 ‘타지 사람’이나 ‘낯선 사람’이

라고 표현하면 충분할 듯합니다.

또 ‘목청’은 성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큰 소리를 낼 때는 목청, 즉 성대가 돋워집니다. 일부 사전에서 ‘큰 소리를 내다’의 뜻으로 ‘목청을 높이다’라는 표현을 용례에 실고 있기는 합니다만 ‘목소리를 높이다’, ‘목청을 돋우다’라고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9. MBC 드라마 ‘커피프린스 1호점’을 만든 이윤정 PD가 제 **육촌 조카예요**.  
이종사촌형의 딸이죠.

→ MBC 드라마 ‘커피프린스 1호점’을 만든 이윤정 PD가 제 **오촌 조카예요**.  
이종사촌형의 딸이죠.

※ ‘육촌 조카’는 없습니다. 사촌형의 딸은 자신과 오촌간이 됩니다.

50. 보훈은 지난해 1부 리그에서 **17위를 차지하며** 올 시즌 2부 리그로 강등됐다.

→ 보훈은 지난해 1부 리그에서 **17위에 머물러(그쳐)** 올 시즌 2부 리그로 강등됐다.

※ ‘차지하다’는 ‘사물이나 공간, 지위 따위를 자기 몫으로 가지다’의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 팀이 우승을 차지하다, 며느리가 안방을 차지하다, 정권을 차지하다’처럼 ‘주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는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만약 ‘17위가 1부 리그에 남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한다면 ‘17위를 차지하다’라고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등위는 기사의 표현대로 ‘강등’되는 조건이므로 ‘차지하다’를 쓸 수 없는 것입니다. ‘머물다, 그치다’ 같은 낱말이 적절합니다.

또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을 나열할 때 쓰는 어미 ‘-며’ 대신 까닭이나 근거를 나타내는 어미 ‘-어’를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1. **맞추기가** 어려운 만큼 배당률도 높은 편이라네.

→ **맞히기가** 어려운 만큼 배당률도 높은 편이라네.

※ ‘옳은 답을 하다’, ‘적중하다’를 뜻하는 말은 ‘맞히다’입니다. ‘맞추다’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으나 ‘비교하다’의 뜻으로 쓰일 때 자주 틀립니다. 예를 들어 ‘답을 맞추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답과 비

교해 보다', 또는 '다른 사람의 답과 비교해 보다'처럼 씁니다.

52. 가족들과 함께 병원에서 밤을 **지새** 그는 출산 소식과 함께...

→ 가족들과 함께 병원에서 밤을 **지새운** 그는 출산 소식과 함께...

※ '지새다'는 자동사로서 '달빛이 사라지면서 밤이 새다'의 뜻을 나타내며, '지새우다'는 타동사로서 '고스란히 새우다'의 뜻을 나타냅니다. '밤이 지새도록 술잔만 기울였다', '꼬박 사흘 밤을 지새웠다'처럼 씁니다. '새다'(자동사)와 '새우다'(타동사)의 용법도 이와 같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53. 무려 60여 일간 그리운 가족과 **따사로운 햇빛**을 보지 못한 가운데서도 이들은 서로 나중에 나가겠다고 양보하고 있다.

→ 무려 60여 일간 그리운 가족과 **밝은 햇빛**을 보지 못한 가운데서도 이들은 서로 나중에 나가겠다고 양보하고 있다.

※ '햇빛'은 '해의 빛'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햇빛'은 '밝다'와 어울리는 말입니다. '따뜻함'과 어울리는 말은 '해의 뜨거운 기운'을 뜻하는 '햇볕'입니다. '햇빛'과 '햇볕'은 '이 집은 햇빛이 잘 들어 밝다', '햇볕이 좋아 빨래가 잘 마른다'처럼 구분해 써야 합니다.

54. 다리가 **두꺼워져서**쇼.

→ 다리가 **굵어져서**쇼.

※ '두껍다'는 '두께가 보통의 정도보다 크다'를 뜻하는 말입니다. 다리처럼 긴 물체의 둘레나 너비가 길거나 넓은 것을 나타낼 때는 '굵다'를 써야 합니다.

55. 경기 중 선수들의 발에 잔디가 걸려 **뿌리 채** 뒤집히는 일도 잦았다.

→ 경기 중 선수들의 발에 잔디가 걸려 **뿌리째** 뒤집히는 일도 잦았다.

※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대로', 또는 '전부'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는 '-째'입니다. '그릇째, 통째, 껍질째'처럼 씁니다. 접미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씁니다.

56. 정부는 대기업의 공제 혜택을 **걷어 들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지만 애꿎은 중소기업들도 덩달아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

- 이다.
- 정부는 대기업의 공제 혜택을 **거둬들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지만 애꿎은 중소기업들도 덩달아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 ※ ‘걸다’는 ‘거두다’의 준말입니다. 하지만 ‘거두다’와 ‘들이다’의 합성어인 ‘거두어들이다’의 준말은 ‘거둬들이다’입니다. ‘걸어들이다’는 비표준어입니다.

57. 이번 솔로음반을 만들어놓고 보니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 이번 솔로음반을 만들어놓고 보니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 ※ ‘너무’는 ‘일정한 정도나 한계에 지나치게’를 뜻하는 말입니다. 즉 적절한 수준을 지나쳤다는 부정적인 뜻이 있는 부사입니다. 긍정적인 상황에서는 ‘너무’ 대신 ‘정말, 매우, 아주, 무척, 참’ 같은 말로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너무 좋아서 탈이다’처럼 부정적인 뜻이 있는 ‘탈’ 등의 낱말과 함께 쓰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58. 이 내정자의 딸은 **덕분에** 강남의 명문으로 꼽히는 동덕여고에 진학할 수 있었다.

- 이 내정자의 딸은 **그 덕분에** 강남의 명문으로 꼽히는 동덕여고에 진학할 수 있었다.
- ※ ‘덕분’은 ‘베풀어준 은혜나 도움’을 뜻하는 명사입니다. 어두에서는 ‘덕분에 일을 무사히 마쳤습니다’처럼 쓰이기도 하나 이때는 대화 상대에게 직접 하는 말이므로 ‘당신’ 같은 말이 생략된 것입니다. 어중에서는 체언이나 관형어와 함께 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59.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정말 재미있는 뮤지컬 작품을 제작하는 게 꿈입니다.

-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정말 재미있는 뮤지컬 작품을 제작하는 게 꿈입니다.
- ※ ‘-고 나다’는 ‘동사에 붙어’ 어떤 행위를 끝내고 다른 행위를 하거나 어떤 상황이 일어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가 가고 난 뒤 갑자기 외로워졌다’, ‘듣고 나니 기분 나쁘네’처럼 쓰는 것이죠. 따라서 접속부사인 ‘그리고’에는 ‘나다’를 쓸 수 없습니다. 동사 ‘그리하다’의 준말인 ‘그러다’의 활용형인 ‘그러고’를 써야 합니다.

60. JYJ란 이름으로 **새 출발한**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가 미국과 중화권 등 해외 활동에 나선다.  
 → JYJ란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한**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가 미국과 중화권 등 해외 활동에 나선다.  
 ※ ‘새’는 관형사이므로 체언을 수식합니다. ‘출발한’은 동사의 활용형이므로 ‘새’가 수식할 수 없습니다. 관형사 대신 ‘새롭게’, ‘새로이’ 같은 부사를 써야 합니다. ‘새 출발을 한’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
61. 이 중 10여 명은 학교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는 것이 **나름대로** 큰 낙이다.  
 → 이 중 10여 명은 학교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는 것이 **제 나름대로** 큰 낙이다.  
 ※ ‘나름’은 의존명사이므로 독립적으로 쓰일 수 없습니다. ‘나름’ 앞에 체언이나 관형어가 와야 합니다. ‘책도 책 나름이지 그걸 책이라고 읽느냐?/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인정을 받고 못 받고는 다 제 할 나름이다.’처럼 씁니다.
62. ‘시골빵’ ‘농부의 빵’이란 **애칭을 가질** 정도로 프랑스에서 흔히 먹는다.  
 → ‘시골빵’ ‘농부의 빵’이란 **애칭이 붙었을** 정도로 프랑스에서 흔히 먹는다.  
 ※ ‘가지다’는 ‘지니다’, ‘소유하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영어의 영향을 받아 ‘가지다’를 남용하는 경향이 있지만 되도록 피하고 상황에 맞는 낱말을 찾아 쓰는 것이 좋습니다.
63. 또 김영삼 전 대통령 등이 보낸 **수십여 개의** 화환이 빈소에 도착했다.  
 → 또 김영삼 전 대통령 등이 보낸 **수십 개의** 화환이 빈소에 도착했다.  
 ※ ‘수십’은 ‘십의 두서너 배가 되는 수’입니다. ‘여(餘)’는 ‘남짓’을 뜻하는 말입니다. ‘수십’이란 말이 특정한 수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여’를 붙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군더더기입니다. 그냥 ‘수십’이라고 하면 충분합니다.
64. **구단 입장에서** 보면 원정경기시 2인1실 숙박비와 식비를 포함해도 하루에 **약 50~60만원 정도** 추가되는 것이어서 큰 부담은 아니다.

→ **구단으로서는** 원정경기시 2인1실 숙박비와 식비를 포함해도 하루에 **50만~60만 원이** 추가되는 것이어서 큰 부담은 아니다.

※ ‘입장’은 일본어투의 낱말이므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약 50~60만원 정도’에서 ‘약(約)’은 ‘대략, 대강’을, ‘정도(程度)’는 ‘그만큼가량의 분량’을 나타냅니다. 게다가 ‘~’도 두 말과 같은 뜻을 나타내는 부호입니다. 셋 가운데 하나만 쓰면 충분합니다.

또 신문 따위에서 숫자를 표기할 때는 구어체와는 달리 단위어를 생략해선 안 됩니다. ‘50~60만원’은 ‘50원부터 60만 원’을 뜻하게 되므로 반드시 ‘50만~60만 원’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65. 현재 국학기공연합회가 배출한 강사는 **대략 8000~1만 명 가량**.

→ 현재 국학기공연합회가 배출한 강사는 **8000~1만 명**.

※ ‘대략’과 ‘가량’은 비슷한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게다가 ‘~’도 같은 뜻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대략 1만 명’, ‘1만 명가량’, ‘8000~1만 명’처럼 세 가지 가운데 하나만 써도 충분합니다. 참고로 ‘가량’은 접미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씁니다.

66. 이후 다른 **팀에게도** 비기가 퍼졌다.

→ 이후 다른 **팀에도** 비기가 퍼졌다.

※ ‘에’와 ‘에게’는 체언에 붙어 부사어를 만드는 조사입니다. 사람과 동물처럼 감정이 있는 유정명사(有情名詞) 뒤에는 ‘에게’를, 그 밖의 모든 사물인 무정명사(無情名詞) 뒤에는 ‘에’를 씁니다. ‘팀’은 무정명사이므로 ‘에’를 써야 합니다.

67. 원정 16강 진출로 눈높이가 올라간 축구 팬들이 다음 **감독에** 거는 기대 수준이 매우 높을 겁니다.

→ 원정 16강 진출로 눈높이가 올라간 축구 팬들이 다음 **감독에게** 거는 기대 수준이 매우 높을 겁니다.

※ ‘에’와 ‘에게’는 체언에 붙어 부사어를 만드는 조사입니다. 사람과 동물처럼 감정이 있는 유정명사(有情名詞) 뒤에는 ‘에게’를, 그 밖의 모든 사물인 무정명사(無情名詞) 뒤에는 ‘에’를 씁니다. ‘감독’이라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 다음에는 ‘에게’를 써야 합니다.

68. 여성형 맞춤 건강빵으로 인기가 높은 아마씨빵에는 오메가3지방과 여성 호르몬 리그나, **임산부에** 좋은 엽산 등이 풍부하다.
- 여성형 맞춤 건강빵으로 인기가 높은 아마씨빵에는 오메가3지방과 여성 호르몬 리그나, **임산부에게** 좋은 엽산 등이 풍부하다.
- ※ ‘에’와 ‘에게’는 체언에 붙어 부사어를 만드는 조사입니다. 사람과 동물 처럼 감정이 있는 유정명사(有情名詞) 뒤에는 ‘에게’를, 그 밖의 모든 사물인 무정명사(無情名詞) 뒤에는 ‘에’를 씁니다. ‘임산부’ 다음에는 ‘에게’를 써야 합니다.
- ‘임산부’는 아이를 잉태한 ‘임부, 임신부’와 아이를 막 낳은 ‘산부’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69. 전남도청 직원 A씨는 “영암 F1 관계자들이 **건설업자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말했다.
- 전남도청 직원 A씨는 “영암 F1 관계자들이 **건설업자에게서** 접대를 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말했다.
- ※ ‘에게’는 어떤 행동이 미치거나, 어떤 행동을 일으키는 대상임을 뜻하는 조사입니다. 어떤 행동의 출발점이나 비롯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조사는 ‘에게서’입니다. 이 문장에서선 ‘행동이나 작용의 주체’임을 나타내는 조사 ‘의’를 써서 ‘건설업자의 접대’라고 해도 됩니다.
70. “**시합에만**, 몸에만 집중한다...”
- “**경기에만**, 몸에만 집중한다...”
- ※ ‘시합’은 일본어 ‘試合(しあい)’을 우리 음으로 읽은 것입니다. ‘경기’, ‘겨루기’가 ‘시합’ 대신 쓸 수 있는 우리말입니다.
71. 일정부터 **행선지까지** 자신이 다 챙긴 순수한 배낭여행이다.
- 일정부터 **목적지까지** 자신이 다 챙긴 순수한 배낭여행이다.
- ※ ‘행선지(行先地)’는 일본어투의 낱말입니다. 우리말과 달리 일본어에서는 ‘先(さき)’에 ‘목적지, 장소, 곳’, ‘장사나 교섭의 상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래선(去來先), 수출선(輸出先), 수입선(輸入先)’ 따위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행선지’는 일본어 ‘行先(ゆくさき)’에 우리말의 ‘곳’에

해당하는 ‘지(地)’를 붙여 쓴 것입니다. ‘행선지’ 대신 ‘목적지’, ‘갈 곳’, ‘가는 곳’으로 쓸 수 있습니다.

72. 안 대표는 정부에 대북 쌀 지원을 요청하고, 이 대통령에게는 대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 안 대표는 정부에 대북 쌀 지원을 요청하고, 이 대통령에게는 대북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 ‘전향적’은 일본어 ‘前向き(まえむき)’에서 온 말입니다. 순화어는 ‘적극적, 진취적, 앞서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미래 지향적’ 같은 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73. 그런데 당시 김재박의 수상 **내역**을 보면 6개다.

→ 그런데 당시 김재박의 수상 **명세**를 보면 6개다.

※ ‘내역(內譯)’은 일본어투 한자어입니다. 일본어 ‘内譯(うちわけ)’를 우리 한자음으로 읽은 것입니다. 국어사전에서는 ‘명세(明細)’로 순화해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혹 ‘명세’로 바꾸면 어색할 때도 있는데 그런 때에는 ‘내용(內容)’으로 바꾸면 무난합니다.

74. 그런데 TG는 2005년 4월 출시된 이후 고급스러운 외관과 강화된 **안전 사양**으로 준대형 세단 시장에서 판매량 선두를 놓치지 않았다.

→ 그런데 TG는 2005년 4월 출시된 이후 고급스러운 외관과 강화된 **안전 장치**로 준대형 세단 시장에서 판매량 선두를 놓치지 않았다.

※ ‘사양(仕様)’은 일본어입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설명’, ‘설명서’, ‘품목’으로 순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전과 관련된 각종 장치를 뜻하므로 ‘장치’로 바꿔 줘도 될 듯합니다.

75. …… 사실상 4강행의 **9부** 능선을 넘었다.

→ …… 사실상 4강행의 **9푼** 능선을 넘었다.

※ ‘부’는 ‘分’의 일본어입니다. 바로 ‘ふ’입니다. 우리말은 ‘푼’입니다. ‘할푼리’라고 할 때의 ‘푼’입니다. 흔히 ‘칠부바지’라고 하는 말도 ‘칠푼바지’가 바른 말입니다. 참고로 ‘푼’은 비율을 나타낼 때는 100분의 1을, 길

이를 나타낼 때는 10분의 1이 됩니다.

76. …… 저축은행 **16개소**와 투자자문회사 **40개소**, 여신전문회사 **21개소**가 있다.

→ …… 저축은행 **16곳**과 투자자문회사 **40곳**, 여신전문회사 **21곳**이 있다.

※ ‘개소’는 일본어투의 낱말입니다. 일본어 ‘個所(かしょ)’를 우리 한자음으로 읽은 것입니다. ‘곳’으로 쓰면 됩니다. 여기서 ‘개’를 써도 됩니다.

77. …… “연탄도 쉽게 깨지고 **석유곤로도** 자주 폭발하는 것을 보고 소비자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 …… “연탄도 쉽게 깨지고 **석유풍로도** 자주 폭발하는 것을 보고 소비자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 ‘곤로(焔爐·こんろ)’는 일본어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우리말은 ‘풍로’, ‘화로’입니다.

78. 다음은 ‘공개된 정보’만 사용한다고 하지만 자신이 무슨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대다수** 일반 사용자들에게 이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 다음은 ‘공개된 정보’만 사용한다고 하지만 자신이 무슨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일반 사용자들에게 이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 ‘대다수’는 일본어투의 한자어입니다. 일본어 ‘大多數(だいたすう)’의 한자를 우리 음으로 읽은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우리말은 ‘대부분’입니다.

## 문장 표현의 교열

김철호 | 도서출판 유토피아 대표



# 문장 표현의 교열

김철호 | 도서출판 유토피아 대표

## 1. 한국어의 특징 알기

### 1. 언어 유형의 특징

#### 1.1. 첨가어

한국어는 언어유형상 첨가어(添加語)에 속한다. 첨가어란 어휘적 요소에 문법적 요소를 덧붙여 단어나 어절을 만드는 언어를 말한다. 이런 특성은 한국어를 알타이어 계통으로 분류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몽골어, 터키어, 통구스어, 만주어 등 알타이어 계통 언어들은 이러한 첨가어의 특성 외에 모음조화와 두음법칙이 있고 관계대명사나 접속사가 없다는 특징을 공유한다.

#### 1.2. 조사와 어미의 중요성

첨가어인 한국어에서 ‘첨가’되는 문법적 요소는 조사와 어미다. 한국어에서는 조사와 어미가 문법적 기능의 거의 전부를 담당한다. 따라서 한국어를 정확하게 구사하는 문제는 조사와 어미를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는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 2. 어순의 특징

어순은 정보 전달의 순서와 구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 언어의 특징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의 어순이 지닌 특징은 다음과 같다.

### 2.1. 서술어가 문장 끝에 온다

대부분의 언어에서 문장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성분은 주어(S), 목적어(O), 서술어(V)다. 이 세 가지 성분의 출현 순서에 따라 전 세계의 언어들을 나누면 크게 SVO 유형, SOV 유형, VSO 유형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한국어는 이 중에서 서술어가 문장의 끝에 오는 SOV 유형에 속한다. 한 문장에서 맨 끝에 오는 성분은 그 문장이 축약 형태를 취할 때 그 중요성이 드러난다.

### 2.2. 수식어가 피수식어 앞에 온다

한국어에서 수식어에는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와,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어가 있다. 이것을 품사로 단순화하면 ‘형용사+명사’ ‘부사+동사’다. 한국어에서 이 순서는 거의 철칙이어서, 관형어의 경우에는 절대로 체언 뒤에 올 수 없고, 부사어의 경우에도 강조 의도 같은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용언 뒤에 오지 않는다. 영어의 경우 관계대명사절이나 관계부사절 같은 긴 꾸밈말이 항상 명사 뒤에 위치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명사를 꾸며주는 요소는 뒤에 오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영어와 같은 언어를 한국어로 옮길 때 부딪히는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런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순서 차이에서 생겨난다.

### 2.3. 문법적 요소가 어간이나 어근 뒤에 온다

한국어에서는 모든 문법적 요소가 어간이나 어근의 뒤에 붙는다. 조사는 체언(명사·대명사·수사) 뒤에, 어미는 용언(동사·형용사) 뒤에 오는 것이다. 이렇게 후치사가 발달한 한국어의 특성은 전치사가 발달한 영어와 대조적이다. 후치사 발달은 첨가어의 일반적 특징이다.

## 2.4. 보조동사가 본동사 뒤에 온다

‘먹어 본다’ ‘보호해 준다’ 같은 예에서 보듯이, 한국어에서는 본동사를 앞세우고 보조동사를 그 뒤에 놓는다. 이런 특성은 ‘can’ ‘will’ ‘must’ 같은 조동사들이 본동사 앞에 위치하는 영어의 경우와 대조적이다. 보조동사 출현 방식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차이는 뒤에서 서술할, ‘한국어는 큰 것부터, 영어는 작은 것부터’라는 일반적 속성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 3. 문장의 특징

### 3.1. 주어나 목적어가 둘 이상인 경우가 있다

한국어 문장에서는 한 서술어에 주어나 목적어가 둘 이상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 주어나 목적어가 둘 이상 등장하는 문장들은 소유자와 소유물 혹은 전체와 부분의 관계이거나, 뒤 내용이 앞 사물의 수량이나 속성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한국어의 이런 특징은 주소, 위치, 날짜, 시간, 이름 등을 표기할 때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전체에서 부분으로 범위를 좁혀 들어가면서 명사를 나란히 쓰는 일반적 관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3.2. 주어나 목적어를 생략하는 일이 잦다

한국어에서는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문장을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입말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여기에는 청자가 발화의 맥락을 이해하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한국어의 주어·목적어 생략 경향은 영어의 경우와 사뭇 대조적이다. 영어에서는 평서문에서 주어 없는 문장을 상상하기 어렵고, 타동사가 목적어를 거느리지 않는 경우도 거의 없다. 목적어 생략이 잦다는 것은 한국어에서 타동사와 자동사의 구별이 엄격하지 않다는 증거로, 이 역시 영어에 견주었을 때 큰 차이점이다.

### 3.3. 서술어가 자주 등장한다

한국어에서는 주어·목적어·서술어·관형어·부사어·보어를 가리지 않고 문장성분 내에 서술어가 등장하는 일이 많다.

### 3.4. 부사어가 발달했다

관형어는 체언(명사·대명사·수사)을 꾸며주는 말로, 품사로는 형용사가 대표적이다. 부사어는 용언(동사·형용사)을 꾸며주는 말로, 품사로는 부사에 해당한다(부사어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한다).

입말을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한국어에서 관형사보다 부사어가 발달한 현상은 문장 안에서 서술어가 자주 등장하는 현상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 서술어를 꾸미는 말이 부사이기 때문이다. 한국어에서는 관형어가 어울릴 법한 자리에 수식 대상이 불분명한 부사어가 오는 일까지 있다.

### 3.5. 긴 부정문과 짧은 부정문이 있다

한국어의 부정문에는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이 있다. ‘안 부정문’은 ‘-지 않다’와 ‘안 -하다’ 꼴을 취하고, ‘못 부정문’은 ‘-지 못하다’와 ‘못 -하다’ 꼴을 취한다. 이 중 ‘-지 않다’와 ‘-지 못하다’를 ‘긴 부정문’이라 하고, ‘안 -하다’와 ‘못 -하다’를 ‘짧은 부정문’이라 한다. 긴 부정문은 주로 글말에 쓰이고 짧은 부정문은 주로 입말에 쓰인다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 4. 어휘의 특징

### 4.1. 단수·복수의 구별이 엄격하지 않다

한국어에서는 영어와 달리 단수와 복수의 구별이 그다지 엄격하지 않아서, 다 음과 같이 명사가 잇달아 나오는 경우 일일이 복수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관형어나 부사어, 서술어 등을 통해 체언이 복수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도 체언에 복수 표시를 하지 않는 일이 많다.

## 4.2. 복수 표현 방식이 다양하다

한국어에서 복수를 표현하는 방식은 영어와 사뭇 다른데, 그 차이는 ‘들’의 용법에 잘 드러나 있다. 첫째, ‘너희’ ‘우리’ ‘저희’ 같은 집합명사에도 ‘들’이 붙을 수 있다. 이렇게 집합명사에 ‘들’이 붙으면 집단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의 개별성이 살아난다. 둘째, 한국어에서는 주체가 복수이면 그와 관련된 모든 문장성분에 ‘들’이 붙을 수 있다.

## 4.3. 대명사 사용이 활발하지 않다

영어와 비교했을 때 한국어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대명사 사용이 활발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명사를 쓰는 대신 앞에 나온 명사를 그대로 반복해서 쓰는 것이 더 일반적이며, 고유명사의 경우에는 이런 경향이 더 두드러진다. 특히 가리키는 대상이 윗사람일 경우 어머니·할머니를 ‘그녀’로 표현한다거나 아버지·할아버지를 ‘그’로 표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때에도 해당 명사를 되풀이해서 표현하는 것이 보통이다. 한국어에 관계대명사가 없는 것도 대명사 사용이 활발하지 않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 4.4. 동사를 이용한 어휘 파생 방식이 다양하다

한국어는 동사를 이용한 어휘 파생 방식이 매우 발달했는데, 특히 토박이말의 경우에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다. 그 방식은 ‘동사+접사→명사’ ‘동사+접사→사동사’ ‘타동사+접사→피동사’ ‘동사+동사→동사’ 등이 있다. 한국어는 기본어휘에 속하는 몇 가지 동사들을 이어 붙여서 동사의 수를 늘려가는(그리하여 동사를 이용한 표현의 가능성을 넓혀가는) 특징이 있다.

## 4.5. 형용사가 동사와 가깝다

한국어의 형용사는 어미가 붙어서 서술어로 쓰인다는 점에서 동사와 비슷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다만 동사와 형용사는 의미적으로 행위·동작과 상태·속성으로 구분되고 문법적으로는 명령형 어미(‘-어라/아라’), 청유형 어미(‘-자’), 현재시제 관형형 어미(‘-는/ㄴ’), 감탄형 어미(‘-는다’)와 현재시제 서술형 어미(‘-ㄴ다’)

등을 통해 구분한다. 한국어에서 형용사와 동사의 근친성은 명사와 부사의 근친성에 견줄 수 있다.

#### 4.6. 관형사가 있다

한국어에는 영어나 불어, 독어의 관사에 해당하는 어휘 범주가 없지만 지시(‘이, 그, 저’), 의문(‘무슨’), 부정(‘어떤, 어느, 아무’), 수(‘여러, 몇, 한, 두, 일, 이’), 속성(‘새, 현’) 등을 나타내는 관형사가 있다. 관형사는 형용사와 비슷하지만 형용사와 달리 서술어로 쓰이지 못하고 관형적 용법으로만 쓰인다는 점이 다르다.

#### 4.7. 흉내말이 발달했다

한국어에는 모양이나 소리를 흉내 내는 말이 매우 발달해 있다. 이때 같거나 비슷한 형태를 되풀이해서 쓰는 일이 많으며, 자음이나 모음을 바꾸어 센말/여린말, 큰말/작은말의 차이를 표현한다. 자음이 ‘예삿소리(ㄱ, ㄷ, ㅂ, ㅈ)→된소리(ㄲ, ㄸ, ㅃ, ㅉ)→거센소리(ㅋ, ㅌ, ㅍ, ㅊ)’로 변함에 따라 어감이 세지며, ‘ㅌ, ㅊ’ 같은 양성모음은 작은 느낌을, ‘ㄱ, ㅈ’ 같은 음성모음은 큰 느낌을 표현한다. 유사한 흉내말들 사이의 차이는 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실관계의 차이를 나타낸 다기보다는 그 사실을 대하는 화자의 주관적 느낌이나 판단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든 흉내말은 부사로서 문장 안에서 부사어로 쓰이는데, ‘딸랑거리다’ ‘깔깔대다’ ‘펼럭이다’처럼 ‘-이다, -거리다, -대다’ 등이 붙어서 동사나 형용사가 되는 경우가 많다.

#### 4.8. ‘3중 구조’ 어휘

한국어 어휘는 고유어, 한자어, 서구외래어라는 3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고유어는 일상적·감각적·구체적 어감을 띠는 경향이 있고, 한자어는 고유어에 흔치 않은 개념어·추상어가 대부분이다. 서구외래어는 근대 이후 서양 문물에 묻어서 들어온 새 낱말들로서, 일본에서 들어온 한자어들과 함께 한국어의 근대적 표현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 II. 입말과 글말의 차이 알기

### 1. 글을 말과 다르게 만드는 요인

문자라는 표기수단을 지닌 모든 언어가 그렇듯이, 한국어도 입말과 글말이라는 두 영역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 말과 글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지만, 결코 똑 같지는 않다. 문자는 태생적으로 말을 적는 수단이고, 특히 표음문자인 한글은 더욱 그렇다. 말과 글은 의사전달의 수단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영역에서 서로 겹친다. 그러나 말과 글은 서로 다른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으면서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서로 다른 면모를 지니고 있다.

#### 1.1. 습득 과정의 차이

말은 영·유아 시절부터(더 일찍이는 태내에서부터) 자각적 노력 없이 무의식적으로 몸에 익히게 된다. 이런 자동적·무의식적 학습과 수용은 자동적·무의식적 표현과 사용으로 이어진다. 한 언어공동체 안에서 표준적인 성장과정을 거친 사람이라면 적어도 듣기와 말하기 영역에서는 별도의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거의 완벽한 의사소통 능력을 터득하게 된다.

그러나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은 입말을 이해하고 구사하는 능력에 기초하여(때로는 입말과 거의 상관없이) 장기간에 걸쳐 별도의 의식적인 노력을 투입해야 얻을 수 있다. 영어사용자가 일상적 대화에서 ‘friend’라는 단어를 막힘없이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문자체계와 표기관습을 따로 익히지 않는 한 ‘friend’라고 적혀 있는 단어를 이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 1.2. 대상 범위의 차이

말과 글은 대상 범위에서 큰 차이가 있다. 말은 대화의 상대가 되는 한 사람, 혹은 발화 현장에 있는 비교적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의사를 전달하면 된다. 그러나 글은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되도록 오랜 세월 동안 유통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다. 말은 주로 사적 영역에서 생산되지만, 글은 본질적으로 공적 영역이다. 따라서 글은 말에 비해 언어의 공공성公共性 혹은 보편성이라는 가치에 좀더 충실히 복무해야 하는 운명을 타고 났다.

글말은 보수적이다

말과 글 사이에 놓인 대상 범위의 차이는 표기법의 상대적 보수성을 낳는 근원적 요인이다. 말은 끊임없이 변해간다. 그러나 표기체계가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속도는 더디게 마련이어서, 말에 비해 보수성을(때로는 교조성을) 띤다. 언어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말과 다소 거리가 있는 보수적·교조적 표기체계를 따라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하게는 자신의 개인 언어나 고유한 어투를 적당한 선에서 자제하고 언중 사이에서 널리 유통되는 일반적 표현을 유추하여 되도록 그것에 맞추어 가야 한다는 데에서 텍스트 생산의 본래적 어려움이 생겨난다.

### 1.3. 보조적 수단의 유무

말을 할 때에는 억양, 호흡, 표정, 손짓, 몸짓, 태도 등을 함께 동원한다. 그래서 언어표현 자체에 다소 결함이 있더라도 상대에게 전체적 맥락을 전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표현이 정확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수정하거나 부연설명을 할 수도 있다. 상대의 반응이나 이해도를 보아가며 표현의 전략을 수시로 바꿀 수도 있다.

그러나 글의 경우에는 이러한 여타 수단의 지원을 전혀 받을 수가 없다. 오로지 한 가지 수단, 즉 문자와 부호라는 지극히 추상적인 기호를 통해서만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말과 달리 즉각적인 오류 수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본질적 제약이 있다. 따라서 글은 정확한 단어 선택, 맥락에 어울리는 조사와 어미 사용 등 한층 엄격하고 정밀한 언어행위를 요구한다. 이런 까닭에 글은 말에 비해 언어의 질서수준과 표현의 밀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전체적 완성도나 유기적 완결성에서 한층 차원 높은 단계를 요구한다.

### 1.4. 문자의 독립성

동양의 한자나 이집트의 상형문자 같은 고대의 그림글자들은 실질의 세계를 직접 모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이에 반해 한글이라는 문자는 조선말이라는 살아 있는 입말을 표기하기 위해 탄생했다. 그러나 한국어 시니피양(기표)은 말의 세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시니피에(기의), 즉 개념·의미의 세계와 직접 관련을 맺고 있기도 하다. ‘문자’가 곧바로 ‘그림’ 또는 ‘이미지’로 받아들여

지는 것이다. 표음문자가 표의성을 띠게 되는 이러한 현상은 모든 문자의 일반적 속성이다. 특히 문자라는 표기수단 해독에 익숙해진 사람에게는 말을 그대로 글로 옮겨놓을 경우 오히려 의미를 이해하는 속도가 더디지거나 맥락을 이해하는 데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글에서는 ‘CD’나 ‘8시’와 같이 입말과 직접 상관없이 글말 자체의 표기 전통에 충실한 쪽이 의사전달에 유리할 수 있다.

## 2. 한국어 글말의 특수한 역사

### 2.1. 한국어 텍스트는 번역문에서 출발했다

한국어에서 글말과 입말 사이에 거리가 생겨나게 된 데에는 한국어가 걸어온 특수한 역사가 숨어 있다. 한글은 표음문자로서, 말 그대로 한국말이라는 음성언어를 그대로 옮겨 적기 위해 태어났다. 따라서 적어도 원리상으로는 한국말과 한글 텍스트(한글로 적은 문장) 사이에 차이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한글 탄생의 배경에는 한문 텍스트에 담긴 내용을 한국어사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로 번역하기 위함이라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한국어에서 말과 글 사이에 거리가 생겨나게 된 태생적 요인이다.

<용비어천가>는 한글 반포 1년 전에 나온 최초의 한글 텍스트다. 세종이 <석보상절>을 읽고 지었다는 <월인천강지곡>도 한글을 앞세우고 한문을 병기한 글이다. 이 두 가지 정도를 제외하면 초기 한글 텍스트들은 거의 다 한문 번역본이었다. 한글 창제의 배경과 원리를 밝힌 <훈민정음해례>부터가 ‘國之語音이異乎中國하야...’ 하는 한문을 앞세우고 ‘나랏말씀이 중국과달라...’ 하는 번역문을 병기한 글이다. <두시언해>는 당나라 시인 두보의 한시를 번역한 책이고, <석보상절>은 한문으로 된 여러 불경을 한글로 옮긴 것이다. 요컨대 한국어 글말은 번역문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다.

중세 내내 한글 텍스트는 한문 문체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생산되어 왔다. 훗날 부녀자들이 한글로 창작한 서한문들을 쓰기 시작했지만, 이미 글말의 전통으로 굳어진 한문 번역 문체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글을 쓰는 행위는 기존 전통을 무시하고는 성립하기 어려운 법이다.

근대에 들어서는 일본어 텍스트가 한국어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일찍이 16세기부터 네덜란드어를 시작으로 서구 언어의 영향을 크게 받아 형성된 일본어

텍스트가 대거 유입되면서 한글 문체는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 뒤 한국어 문체는 영어를 비롯한 서구어 문체의 직접영향권에 놓이게 되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한국어는 한문·일본어·서구어 텍스트의 영향을 받은 결과 어휘, 통사, 문체의 모든 측면에서 말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문어 특유의 표현양식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 3. 글말과 입말의 차이

한국어 텍스트에 스며든 외래 언어의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한국어의 글말과 입말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 차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3.1. 조사

생략 ‘사람의 손 : 사람 손’ ‘때에는 : 때는’ ‘데에 : 데’ ‘학교에 간다 : 학교 간다’ ‘밥을 먹는다 : 밥 먹는다’ 등.

교체 ‘에게(서) : 한테(서)|더러|보고’ ‘과/와 : (이)랑|하고’ ‘이다 : 다<sup>1)</sup>’ 등.

#### 3-2. 어미

교체 ‘-므로|-기에 : -해서|-니까’ ‘-러|-려고 : -고자’ ‘-아도/어도 : -더라도|-르지라도’ ‘-도록 : -게’ ‘-(으)나 : -지만’ ‘-며 : -고<sup>2)</sup>’ 등.

음절 추가 ‘-니 : -니까’ ‘-다 : -다가’ ‘-며 : -면서’ ‘-아/어 : -아서/어서’ ‘-느라 : -느라고’ ‘-니 : 니까’ 등.

#### 3.3. 부사어

‘그러나 : 하지만|그렇지만|그치만’ ‘그런데 : 근데|헌데’ ‘그리|그다지 : 그렇게’ ‘그리고 : 또’ ‘그리하여 : 그래서|그렇게 해서’ ‘이리하여 : 이래서|이렇게 해

1) 받침 없는 체언에 붙을 때.

2) 나열을 나타내는 경우.

서' '이곳 : 여기' '그곳 : 거기' '저곳 : 저기' 등.

### 3.4. 용언

'지니다 : 가지다' '~ 듯하다 : ~ 것 같다' '-아/어야 한다 : -아/어야 된다' '-지 못하다 : 못 -하다' '-지 않다 : 안 -하다'

### 3.5. 음운 축약

'우리 : 울' '이것을 : 이걸' '무엇을 : 뭘' '이/그/저 아이 : 애, 개, 재'

## Ⅲ.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 알기

### 1. 왜 영어인가

영어는 오늘날 한국어와 가장 긴밀하게 교섭하면서 특히 한국어 텍스트(글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언어다. 따라서 다양한 층위에서 한국어와 영어 사이에 놓인 차이를 파악하는 일은 넓게는 한국어의 일반적 특성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좁게는 한국어 글말의 현 상태를 분석적으로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준다.

한국어 입말의 경우 영어는 주로 어휘 차원에 한해서 영향을 주고 있지만, 글말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으로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어로 된 글을 읽고 쓰는 일은 필수적으로 한국어와 영어에 대한 비교분석적 이해를 요구한다. 한국어 텍스트 안에서 한국어와 영어가 어떤 양상으로 만나고 있느냐를 파악하는 일은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텍스트 다루기의 어려움은 상당 부분이 두 언어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 1.1. 첨가어 : 굴절어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어는 뜻을 지닌 실사實辭에 문법적 기능만을 담당하

는 허사虛辭가 첨가되어 문장을 구성하는 언어다. 이에 반해 영어는 단어의 형태 변화 속에 문법의 상당 부분이 녹아들어 있는 굴절어다. 이런 언어유형상의 차이는 한국어와 영어의 제반 차이를 낳는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첨가어와 굴절어라는 차이는 한국어와 영어에 각각 후치사(조사/어미)와 전치사의 발달이라는 차이를 낳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영어 학습이 어휘 습득에서 상당 부분 완결된다고 한다면, 한국어 학습은 조사와 어미 공부에서 완성된다.

## 1.2. 주제어 중심 : 주어 중심

영어가 주어 중심 언어라면 한국어는 주제어 중심 언어라고 할 수 있다.<sup>3)</sup> 영어 문장은 주어를 앞세우는 경향이 있고, 한국어는 주제어를 앞세우는 경향이 있다. 주제어란 ‘지금부터 ~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을 밝히는 의미로, 주제어를 표시하는 방법은 조사 ‘은/는’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조사는 주격·목적격·부사격 등 다양한 성분을 주로 문장 첫머리에 내세워 주제어임을 나타낸다.

영어의 평서문에서는 주어가 문장 서두에 오는데, 이 주어는 주제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영어에서는 주어와 주제어의 구분이 없다. 영어와 달리 문장 서두에 나오는 것이 주어라기보다는 주제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것이 한국어의 독특한 점이다.

## 1.3. 동사 중심 : 명사 중심

영어의 가장 기본적인 문형은 명사(S)에서 시작하여 명사(O)로 끝난다. 문장의 시작과 끝이 명사라는 것은 곧 이 언어가 명사를 중시한다는 증거다.

반면 한국어는 서술어(V)가 문장 말미에 오고, 앞의 주어나 목적어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문장이 축약될 경우 문장 말미의 서술어만 남는다. 한국어에서 서술어는 동사(또는 동사와 성격이 비슷한 형용사)일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한국어에서는 동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문장에서 명사를 많이 쓰는 영어의 경우 관사, 형용사, 관계대명사절, 관계부사절 같은 관형어가 발달한 데 비해, 동사를 많이 쓰는 한국어에서는 의성어·의태어를 포함한 부사어가 매우 발달해 있다.

3) ‘주어’는 문법적 개념이고, ‘주제어’는 화용적 개념이다.

#### 1.4. 단선적 : 포괄적

영어 문장은 ‘주체→의도→행위→행위 대상→행위 대상과 관계된 다른 대상’의 순서를 따른다. 이렇게 영어는 우선 한 개체에 주목한 다음 그 개체가 행위가 다른 개체에 가 닿는 과정을 사건 진행 순서에 따라 표현하기 때문에, 행위의 대상이 되는 개체는 문장의 끝에 나타나게 된다.

영어의 문장 구성 방식이 단선적 구조를 따르는 데 비해, 한국어는 포괄적 구조를 보여준다. 즉, 특정한 상황이나 사건에 관련된 모든 주체들을 먼저 열거한 다음 그 상황이나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하는 것이다. ‘주체→행위 대상→행위 대상과 관련된 다른 대상→행위→의도’의 순서를 따르는 한국어 문장의 경향은 ‘S+O:V’라는 기본 구조에 바탕을 두고 있다.

#### 1.5. 큰 것부터 : 작은 것부터

한국어에서는 주소나 위치, 날짜, 시각, 신분 등을 표현할 때 전체 혹은 큰 것부터 부분 혹은 작은 것으로 좁혀 들어가는 특성이 있다. 영어에서는 이 모든 경우에 순서가 정반대가 되어, 부분 혹은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전체 혹은 큰 것으로 넓혀 가는 양상을 보인다. 서양과 반대로 한국인들이 전통적으로 이름보다 성을 앞세워 온 현상도 부분이나 개체보다는 전체나 관계를 중시하는 의식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또 어떤 사건을 묘사할 때 한국어에서는 시간을 공간에 앞세우는데, 이는 한국어사용자들이 전통적으로 시간을 공간보다 더 큰 개념으로 생각해 왔음을 보여준다. 영어에서는 반대로 공간이 시간에 앞선다. 한국 사회에서 아주 친밀한 관계를 제외하고 개인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는 일이 금기에 가까운 경우가 많은 것도 개체(부분)보다는 관계(전체)를 우선시하는 일반적 의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직함이나 친족명 같은 호칭은 해당 개인이 다양한 사회적 집단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나 맡고 있는 역할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한 개인을 관계 속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 1.6. 조동사 후행 : 조동사 선행

제1장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영어 문장에서는 ‘will’ ‘can’ ‘must’ 같은 조동사들이 본동사에 앞서 등장한다. 이런 조동사들은 주로 주체의 의지나 바람, 의도

등 심리적인 범주를 나타내는데, 이런 요소가 주어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영어의 단선진행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주체→의도→행위→객체’의 순서에 따른 것이다.

한편 한국어에서는 주체의 의지나 바람, 의도 등 다양한 심리적 상황을 나타내는 기능이 주로 종결어미 등을 사용한 종결법을 통해 구현된다(예컨대 영어의 조동사 ‘will’은 한국어에서 종결어미 ‘-겠다’가 된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상황이나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앞세운 뒤 점차 구체적이고 세밀한 부분으로 좁혀 들어가는 한국어의 일반적 표현 방식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주체의 의도는 가장 내밀하고 섬세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 1.7. 보편 주체적 : 인간중심적

영어가 주어로 표현되는 주체 중심이라면 한국어는 관계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가 중시하는 관계의 범위에는 무생물도 들어간다. 적어도 언어표현으로 드러난 현상만을 보자면, 한국어에서는 무생물이 인간에 준하는 지위를 누린다. 무생물이 주어로 등장해서 능동사를 거느리는 일이 흔하기 때문이다. 영어에서는 무생물이 주로 목적어로서 인간 주체의 행위 대상으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고, 주어가 될 경우 수동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1.8. 조건 우선 : 사건 우선

영어에서는 주체가 일으킨 행위나 벌어진 사건을 먼저 표현한 뒤 그 행위 혹은 사건이 일어난 장소나 시간을 나중에 표현한다(행위/사건→장소→시간). 한국어에서는 이와 정반대로 행위가 일어난 조건이나 상황(시간, 장소)를 먼저 밝히고 그 조건에서 일어난 행위를 나중에 표현한다(시간→장소→행위). 따라서 주어를 먼저 밝힌 다음 해당 사건과 관계된 개별 요소들을 (주어와 가까운 순서에 따라) 하나씩 표현해 가면 되는 영어에 비해, 한국어에서는 사건의 전체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표현을 시작할 수 있다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 1.9. 속성 우선 : 사물 우선

관사나 간단한 형용사가 명사에 앞서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면, 영어에서는 ‘사

물+속성' 순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영어에 발달한 관계절은 그 꾸밈을 받는 명사 뒤에 오는 것이 철칙이다.

한국어에서는 영어와 반대로 '속성+사물' 순을 따른다. 이는 관형어나 부사어 같은 수식어가 그 꾸밈을 받는 말의 앞에 오도록 되어 있는 한국어의 일반적 어순에 따른 것이다. '속성'은 한 개체가 다른 개체와 맺고 있는 관계 혹은 상황·조건상의 좌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가 '속성+사물'의 순서를 따른다는 것은 한국어 사용자들이 특정한 개체보다 그 개체가 다른 개체들과 맺고 있는 관계나 그 개체가 처해 있는 조건 또는 상황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관형어+체언' '부사어+용언'이라는 한국어의 어순은 필연적인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 1.10. 사물 우선 : 수량 우선

영어에서는 사물과 그 수량 가운데 수량을 앞세우는 것이 일반적이다(수량+사물). 영어사용자들은 수량을 사물의 속성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게다가 영어에서는 명사 앞에 오는 관형어가 둘 이상일 경우 수량을 나타내는 표현이 다른 표현들을 모두 제치고 가장 앞서 나타난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영어와 반대로 사물을 앞세우고 그 수량을 나중에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사물+수량). 이때 해당 사물과 어울리는 의존명사를 쓰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영어라면 명사 앞에 둘 이상의 관형어를 열거할 만한 상황에서 한국어는 수량 관련 표현을 체언 뒤에 놓아둔 채 다른 관형어만을 체언 앞에 놓는다.

### 1.11. 주어·목적어 생략 : 주어·목적어 표시

한국어에서 주어·목적어는 '필요할 때에만 밝힌다'는 말이 적합할 정도로 생략이 잦다. 이 두 가지 성분이 문장에 잘 드러나지 않는 까닭은, 화자와 청자 사이에 두 개체에 대한 인식이 공유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주어와 목적어가 생략되고 서술어만으로 문장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하다. 여기에 다른 문장성분이 따라붙을 경우 그 주인공은 서술어를 꾸미는 부사어가 된다.

## 1.12. 상대적 : 절대적

한국어에서는 상대가 긍정의문문으로 물어 오느냐 부정의문문으로 물어 오느냐에 따라 대답이 달라진다. 이것은 한국어의 표현이 대화 상대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함을 보여준다. 반면 영어에서는 상대가 어떻게 물어 오든 절대적 사실관계만을 서술한다. 한국어가 상대적이라면 영어는 절대적이다. 한국어의 상대성은 높임법에도 잘 드러나 있다. 똑같은 내용이라도 대화 상대나 언급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어휘나 표현, 종결법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 1.13. 정서적 : 사실적

한국어가 보여주는 상대성이라는 특성의 발원지는 화자다. 즉, 화자가 자신의 가치판단이나 정서적 느낌에 적합하다고 여기는 어휘와 표현을 선택하는 데에서 한국어의 다양한 정서적 표현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한국어에 양태 범주가 매우 발달한 것도 이러한 정서적 특성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에는 정서적 표현으로 분류할 수 있는 어휘가 사실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어휘보다 훨씬 다양하게 발달해 있다.

# 2. 영어가 한국어에 미친 영향

## 2.1. 어휘

- 영어 단어가 그대로 한국어 어휘로 차용되어 쓰이고 있다.
- 영어를 비롯한 서구어 단어들의 번역어로 탄생한 명사 또는 명사성 동사(‘-하다’)들이 많이 차용되어 쓰이고 있다. 일본에서 생겨나 한국어 체계 안으로 유입된 이 근대적 한자어들은 오늘날 한국어 어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어휘 선택 범위가 협소해지고 있다(이는 한국어사용자들이 영어 학습 과정에서 영어 단어와 한국어 낱말을 일대일 대응 식으로 익힌 결과로 보인다).

## 2.2. 문장

### 명사 위주 문장의 강세

동사 위주였던 한국어 텍스트에서 명사 위주 문장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입말은 동사 중심이라는 전통적 면모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입말에서 명사 사용이 늘면서 한국어의 입말과 글말 사이에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

### 주어로 시작하는 문장의 증가

주제어를 앞세우던 한국어 문장에서 주어를 앞세우는 경향이 늘었다. 목적어나 부사어도 얼마든지 주제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서두에 주어가 출현하는 빈도가 잦아진 이런 현상은 한국어 문체의 변화에서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 피동 표현의 확대

영어의 수동태 표현에서 영향을 받은 피동 표현이 확대되었다. 물론 전통적인 한국어에도 피동문이 있고 피동사와 피동형이라는 범주도 발달해 있다. 그러나 문체는 흔히 ‘어색한 번역투’라고 지적하는 표현들이 의미 전달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 연결 어미의 단순화

연결 어미의 선택 범위가 협소해졌다. 이 역시 영어 단어와 한국어 단어를 일대일 대응 식으로 파악하는 경향의 탓으로 보이는데, ‘-고’ ‘-고는’ ‘-아/어’ ‘-아서/어서’ ‘-다/다가’ ‘-면서’ ‘-한 후(뒤)’ 등으로 옮길 수 있는 영어의 접속사 ‘and’를 단순히 ‘-고’로만 옮긴다든지 ‘그러나’나 ‘그런데’로 표현할 수 있는 ‘but’을 ‘그러나’로만 옮긴다든지 하는 것이 그 예다.

## 3. 일본어

일본어는 한국어가 영어를 비롯한 서구어와 직접 접촉하기 전에 이들 언어의 여러 특성을 한국어에 이식하는 통로가 된 언어로서, 근대 한국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오늘날에도 영어 다음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어의 영향은

1980년대에 학생운동권을 중심으로 일본어로 된 좌파 이론서들을 강독하는 분위기가 널리 퍼지면서 다시 한 번 위세를 떨쳤다. 오늘날 한국어 문장에서 볼 수 있는 일본어의 영향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수순' '역할' '입장' 등 일본어 출신 한자어들이 한국어 어휘 체계에 대거 편입되었다.
- '와의' '에서의' '으로의' '으로부터의' 등 접속조사나 부사격조사에 관형격조사 '의'를 겹쳐 쓰는 현상이 생겨났다.
- '~에 있어서' '~에 다름 아니다' '~지 않으면 안 된다' 등 일본어의 고유한 표현을 직역한 듯한 표현들을 볼 수 있다.
- 직접의문문과 간접의문문 사이의 구별이 모호해졌다.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 IV. 조사와 어미 다루기

### 1. 조사

수많은 조사들의 용법 중 특히 중요하거나 주의를 요하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1. 격조사

‘이/가’와 ‘은/는’의 차이

‘이/가’는 주격조사이고 ‘은/는’은 보조사이다. ‘은/는’은 주격·목적격·부사격 등에 쓰여 해당 어절이 주제어임을 나타낸다. 주제어란 ①옛 정보(앞에서 이미 언급한 내용) ②주어진 정보 ③한정적 정보 ④총칭적 정보 등을 가리키며,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에 대해 말할 때, 어떠한 것에 대해 말할 때, 누구나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것을 나타낼 때, 다른 것과 비교해서 차이가 나는 점을 드러낼 때 ‘은/는’을 쓴다. 주제어는 대개 발화를 시작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문장의 맨 앞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지점에서 주어와 혼동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주격조사 ‘에서’

주어가 단체, 기관, 집단일 경우 ‘이/가’를 대신한다.

목적격조사 ‘을/를’

부사어에 쓰였을 때에는 강조의 의미가 있다.

관형격조사 ‘의’

소유주-소유물 관계, 전체-부분 관계, 친족이나 근친 관계일 때에는 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비유적인 표현, 뒤의 체언이 다른 수식어를 거느린 경우, 수량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의’를 생략하기 어렵다.

부사격조사 ‘에’와 ‘에서’

‘에’는 정적인 서술어와 어울린다. 대상의 존재 위치를 나타내는 동사와 어울릴 때, 특정 장소에 있는 대상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서술어일 때 쓴다. ‘에서’는 동적인 서술어(동사)와 어울린다. 동작이나 행위가 일어나는 곳을 나타낼 때 쓴다.

부사격조사 ‘에’와 ‘에게’

개인일 경우 ‘에게’를, 집단일 경우 ‘에’를 쓴다.

부사격조사 ‘에/에서’와 ‘에게/에게서’

사람이나 동물이 아닌 경우에는 ‘에게’나 ‘에게서’ 대신 ‘에’나 ‘에서’를 쓴다. 한편 ‘주다, 받다, 전하다, 얻다, 말하다, 듣다’ 등 ‘주는/말하는 사람’과 ‘받는/듣는 사람’이 분명한 경우에는 ‘에게서/한테서’ 대신 간단히 ‘에게/한테’를 쓰는 일이 많다.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격조사 ‘(으)로’와 ‘에’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에 주로 쓰이며, 결과를 낳은 이유가 말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때문에’는 긍정적·부정적 경우에 다 쓰이나 사람과 관련된 표현일 경우에는 주로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서술어와 함께 쓰인다. ‘때문에’를 쓸 경우 ‘(으)로’나 ‘에’에 비해 이유의 정도가 더 강하게 느껴진다.

부사격조사의 생략

호응하는 서술어가 ‘가다’나 ‘오다’일 때 ‘에’나 ‘(으)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부사격조사는 생략하지 않는다.

### 서술격조사 ‘이다’

‘이다’는 격조사 중 유일하게 활용이 가능한 조사로, ‘지정사’나 ‘존재사’나 하는 별도 품사로 다루어야 한다는 관점이 있을 정도로 독특한 존재다. 받침이 없는 체언에는 ‘다’만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는 일상어에 가까운 비격식체 느낌을 준다. 반대로, 받침이 없는 체언에 ‘이다’로 분디꼴을 밝혀 적으면 매우 격식을 차린 듯한 느낌을 준다.

## 1.2. 보조사

### 주제·대조를 나타내는 ‘은/는’

‘은/는’의 대조 기능은 이 조사의 가장 주요한 기능인 주제어 제시의 한 측면으로 볼 수 있다.

### 배타·한정을 나타내는 ‘만’ ‘뿐’ ‘밖에’

‘만’이나 ‘뿐’과 달리 ‘밖에’는 부정문이나 ‘모르다’ ‘없다’ 같은 부정적 서술어하고만 어울린다.

### 포함·더함을 나타내는 ‘도’ ‘까지’ ‘조차’ ‘마저’

‘도’와 ‘까지’는 긍정적·부정적 경우에 모두 쓰지만, ‘조차’ ‘마저’는 주로 부정적 경우에만 사용한다. ‘까지’ ‘조차’ ‘마저’는 모두 ‘한계점’을 나타냄과 아울러 ‘예상 밖’이라는 의미도 지닌다. 차이는 다음과 같다.

- ‘까지’: 한계점의 의미가 확장되어, 일반적이지 않거나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사용한다(‘때리기까지 했다’).
- ‘마저’: 매우 극단적인 상황, 또는 마지막 한계점을 벗어난 경우에 사용하며, 그 결과가 화자에게 불리한 일에 많이 쓰인다(‘남은 돈마저 다 날리고 말았다’).
- ‘조차’: 화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거나 가장 기본적인 한계점을 벗어났을 경우에 주로 사용하며, 화자의 기대가 전제되는 명령문이나 청유문에는 쓰이기 어렵고 주로 부정적인 상황에 사용된다(‘글조차 쓰지 못한다’).
- ‘도’: 부정적인 맥락에서는 ‘극단적인 경우까지 양보하여 다른 경우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이 그러하다’는 뜻으로 쓰인다(‘신문도 안 읽니?’). 강조하거나 감탄을 나타낼 때에도 쓰인다(‘눈이 많이도 왔네’).

선택을 나타내는 ‘이나’ ‘이든/이든지’ ‘이나마’ ‘이라도’

‘이나’는 흡족하지 않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최상의 선택이라고 판단할 때 쓴다. ‘이든/이든지’는 여럿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때 쓴다. ‘이나마’와 ‘이라도’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쓴다.

### 1.3. 접속조사

접속조사는 체언과 체언을 대등하게 이어주는 조사로, 글말에 주로 사용하는 ‘와/과’와 입말에서 주로 쓰이는 ‘(이)랑/하고/에다/에다가’ 등이 있다. 이 중 ‘(이)랑’은 유아어의 느낌이 강하며, ‘에다/에다가’는 사물에만 쓰인다는 특징이 있다.

### 1.4. 조사의 생략

주격조사와 목적격조사는 대화에서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부사격조사 생략은 제한적이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용언에 한한다.

· 나 학교 가 ; 나 회사 다녀 ; 나 서울 살아

## 2. 연결 어미

어미는 조사와 함께 한국어의 특징을 대표하는 문법 요소로, 다른 유형의 언어에서는 부사와 같은 독립된 단어로 나타내야 할 의미를 한국어에서는 조사나 어미로 나타낼 수 있다.

어미에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 어미와 문장을 끝내는 종결 어미가 있다. 종결어미는 평서문·의문문·칭유문·명령문·감탄문 등 다섯 가지 문장 종류를 만들어내고, 듣는 사람을 높이는 등급을 표시하며, 화자의 의지나 의도 등 다양한 심리상태를 표현한다. 연결 어미는 원인·이유·조건 등 여러 가지 의미 관계에 있는 두 문장을 이어준다.

## 2.1. 연결 어미의 종류

연결 어미는 종결 어미에 비해 수가 매우 많고 쓰임새도 다양한데, 대표적인 것들을 들면 다음과 같다. 아래는 편의상 ‘하다’를 활용한 경우를 보인 것이다.

- 나열: ‘하고’ ‘하며’
- 동시: ‘하면서’ ‘하며’
- 즉시: ‘하자마자’
- 순서: ‘하고’ ‘해서’
- 중단 후 전환: ‘하다가’
- 완료 후 전환: ‘하고는’
- 대립/대조: ‘하나’ ‘하지만’ ‘하는데’ ‘해도’
- 이유/원인: ‘해서’ ‘하여’ ‘하니’ ‘하니까’ ‘하므로’ ‘하느라’ ‘하느라고’ ‘하기에’
- 목적/의도: ‘하러’ ‘하러’ ‘하려고’ ‘하고자’ ‘하도록’ ‘하게’
- 조건: ‘하면’ ‘하려면’ ‘해야’
- 단서: ‘하되’
- 전제: ‘하자’
- 인정(양보): ‘해도’ ‘하더라도’ ‘할지라도’
- 선택: ‘하거나’ ‘하든지’
- 방법/수단: ‘해서’ ‘하여’ ‘하고’
- 배경: ‘하는데’ ‘하니’ ‘하니까’
- 점진: ‘할수록’
- 비유: ‘하듯’ ‘하듯이’

## 2.2. 연결 어미류

한국어에는 연결 어미는 아니지만 연결 어미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이것을 ‘연결 어미류’라고 한다.

### 이유/원인

- ‘하기 때문에’: 결과가 부정적일 때 쓰이는 일이 많다. 원인을 강조하는 느낌이 있다(‘너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됐잖아’).
- ‘하는 바람에’: 결과가 부정적일 때 쓰이며, 앞의 주어와 뒤의 주어가 달라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불청객이 찾아오는 바람에 외출을 하지 못했다’).
- ‘한 탓에’: 결과가 부정적일 때 쓰이며, 다소 점잖은 어감이 있다(‘밥을 너무 많이 먹은

탓에 급기야 배탈이 나고 말았다’).

-‘한 덕분에’: 결과가 긍정적일 때 쓰인다(‘네가 애써준 덕분에 내가 이 정도로 살 수 있게 됐어’).

#### 조건

-‘르 때’: 연결 어미 ‘-면’과 비슷하다(‘시간 있을 때 놀러 오세요’).

#### 목적/의도

-‘기 위해’: 일상성을 다소 벗어난 목적에 주로 쓰이며, 문어적이고 격식을 차린 느낌이 있다(‘부도를 막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 2.3. 연결 어미 사용의 제약

한국어의 수많은 연결 어미들은 저마다 그 사용을 가능케 하는 조건이 있다. 이 제약 조건을 벗어나서 사용할 경우 매우 어색하게 들리거나 의미 전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 시제 어미 제약

-과거: ‘했지만’+‘했다’(일치 필요) ; ‘해서’+‘했다’(일치 불필요) ; ‘하고’+‘했다’(일치 불필요)

-미래/추측/의지: ‘하겠지만’+‘하겠다’(가능) ; ‘하자마자+하겠다’(불가능)

#### 주어 일치 제약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경우: ‘하지만’

-같아야 하는 경우: ‘하면서’

-달라야 하는 경우: ‘하자’

#### 결합하는 서술어의 제약

-동사, 형용사, ‘이다’에 모두 붙는 어미: ‘하면’

-동사에만 붙는 어미: ‘하자’ ‘하려고’[좋으려고(×), 사람이려고(×)]

#### 문장 종류 제약

-모든 문장 종류와 어울리는 어미: ‘하니까’(이유/배경)

-명령문이나 청유문에 쓸 수 없는 어미: ‘해서’(이유/배경)

부정문 제약

-부정문과 어울리지 못하는 어미: ‘하느라고’

이 밖에 연결 어미에 따라서는 사람이나 동물에 한정되는 경우도 있고 특정 동사와 결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 2.4. 주의가 필요한 연결 어미들

### 나열을 나타내는 ‘-고’와 ‘-며’

단순히 두 문장을 이어준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고’는 시제어미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며’는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 또 ‘-고’는 문어와 구어에 두루 쓰이나 ‘-며’는 문어에만 쓰인다. ‘-고’와 ‘-며’가 (주로 문어에서) 함께 쓰일 경우 ‘-고’보다는 ‘-며’로 이어지는 서술어 사이의 의미상 거리가 더 멀다.

### ‘-자’와 ‘-자마자’

‘-자’는 앞의 내용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의 원인이나 전제가 되는 경우에 쓰이고, ‘-자마자’는 단순히 두 사건의 시간적 거리가 가까움만을 나타낸다. 또 ‘-자’는 반드시 주어가 달라야 하고 ‘-자마자’는 주어가 같을 수도 있다.

### 동시를 나타내는 ‘-며’와 ‘-면서’

내용이나 기능상 차이는 없으며, 각각 문어와 구어에 주로 쓰인다는 점만이 다르다.

### 순서를 나타내는 ‘-고’와 ‘-아(서)/어(서)’

‘-고’와 달리 ‘-아(서)/어(서)’는 두 사건 사이에 긴밀함이나 필연적 연관성을 요구한다. ‘-아/어’와 ‘-아서/어서’는 각각 문어와 구어에 주로 쓰인다는 점만이 다르다.

### 전환을 나타내는 ‘-다’와 ‘-다가’

현재형에 쓰이면 행위 도중에 중단하고 다른 행위로 전환함을 나타내고, 과거형에 쓰이면 행위를 완료한 후 다른 행동으로 전환함을 나타낸다. ‘-다’는 문어와 구어 범용이고, ‘-다가’는 거의 구어 전용이다.

대립/대조를 나타내는 ‘-으나’와 ‘-지만’

문어체와 구어체라는 차이만이 있다. ‘-는데’와 ‘-아터/어도’도 대립·대조의 의미로 쓰일 때가 있다.

이유/원인을 나타내는 ‘-느라(고)’와 연결 어미류 ‘-는 바람에’

‘-느라(고)’는 앞뒤의 주어가 일치해야 하고, 앞에 부정문이 오지 못하며, 뒤에는 부정적인 내용이 온다. 이유를 나타내는 관용 표현인 ‘-는 바람에’는 뒤에 부정적인 내용이 온다는 점이 같으나 앞뒤의 주어가 달라야 하고 앞에 부정문이 올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조건을 나타내는 ‘-면’ ‘-려면’ ‘-아야/어야’

‘-려면’은 다른 두 연결 어미와 달리 앞뒤의 주어가 일치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목적을 나타내는 ‘-러’ ‘-려고’ ‘-도록’ ‘-게’

‘-러’는 다른 연결 어미들과 달리 뒤에 ‘오다’ ‘가다’ ‘다니다’ 등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가 와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방법/수단을 나타내는 ‘-아서/어서’와 ‘-고’

두 연결 어미 모두 주어가 일치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그리고 둘 다 동사하 고만 어울리며, 형용사나 ‘이다’와 어울리면 다른 의미가 된다.

도움 받은 책

남기심·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국립국어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

## 문장 교열 연습

※ 다음의 각 문장에서 개선할 점을 찾아보라.

1. 어릴 적 그의 기억은 다소 우울한 색조로 채색되어 있다.
2. 첫번째 이야기는 엄마가 음식 값이 너무 비싸다고 푸념을 늘어놓자 아빠가 아이와 함께 시장에 가는 이야기이다.
3. 이번 특별상은 이전 수상자들의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봉사활동을 격려하고 장려하기 위해 특별히 수여되는 상이다.
4.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땐 내가 중학교 1학년 때였다.
5. 그때에는 잠시밖에 읽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의 에피소드만 읽고 아쉬움만 가득 남았었다.
6. 요즘 아이들은 이제는 골목에서 뛰어노는 대신 학원에 다니느라 정신이 없다. 나는 이런 아이들에게 이 책을 읽어주고 싶다. 그러면 지금의 아이들도 니콜라와 그 친구들처럼 잠시나마 아이들의 순수한 세상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7. ‘나’ 역시 아버지와 큰형의 인간 같지 않은 모습과 추잡한 집안 환경 때문에 날마다 우울하고 불행하다.
8. 세계 최초의 만점 연기를 펼친 전설의 체조선수 나디아 코마네치
9. 하나밖에 없는 딸이 동사해 돌아온 날도, 깃발 흔들며 기차를 맞고 여객 일지에 ‘이상 없음’이라 적은 그다.
10. 그가 죽은 딸과 만나는 장면은 장소를 가려서 읽어야 할 만큼 눈시울이 쫄해진다.

11. 직업정신 때문에 딸을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낸 아버지
12. 그러나 결국 그들도 나와 같은 피가 따뜻한 인간임을 느낄 수 있었다.
13.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책이었다.
14. 이 인디언 마을의 축제 분위기는 6월에 열리는 딸기추수감사제에서 최고조에 이른다.
15. 확대해서 본 모습이 정원에 돌아난 풀잎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6. 신부 한 명이 나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17. “만일 저들이 우리가 여기에 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18. 아빠가 가족에게 외식을 제안해서, 식당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게 되었다.
19. 뒤쫓아 오던 사내가 동작을 멈추고 두 눈에 광채를 번득이더니 앞으로 쓰러졌다.
20. 밤이 깊었는지, 어느새 조각달이 창틀 속으로 들어왔다.
21. 대장의 미소 안에는 불리한 조건을 무릅쓰는 자에 대한 한 영웅의 존경심이 담겨져 있었다.
22. 인간의 구원은 결코 바깥에 있지 않고 자신 속에 존재한다.
23. 사람은 살아가면서 모든 인간관계를 특정한 카테고리 속에 집어넣기 마련이다.
24. 인류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종種이다.
25. 반유대주의는 프랑스에서 상당히 오랜 전통을 가진 현상이다.

26. 이 두 종류의 인종주의는 일종의 연동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가 부상하면 다른 것도 따라서 부상하는 경향을 보인다.
27. 소설이 읽혀지는 이유는 스토리의 흥미로움뿐 아니라 언어 자체가 가지는 아름다움 때문이다.
28. 올해 8강은 한국 5명, 중국 2명, 일본 1명으로 짜여졌다.
29. 세월 속에서도 잊혀지지 않는 느낌 있는 한 마디. 그 안에 담긴 따뜻함에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느낌이다.
30. 이런 애청은 16세기에 전성기를 맞은 이 항구에 상인들이 포도주를 싣고 그림 같은 운하로 이루어진 수로를 통해 왕래하고 다녔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31. 몇 백 년이 넘게 사람의 손때를 타지 않고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작은 가게의 간판을 들여다보았다.
32. 저희 회사는 고객의 사고에 따른 재산 손실에 대비하여 영업책임배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33. 결국 아빠는 토마토 다섯 개밖에 사지 못한다. 그나마 그 토마토도 실수로 완전히 뭉개져 버린다.
34. 내가 방으로 돌아갔을 때 그는 빠른 속도로 옷을 입고 있었다.
35. “입을 맞춰 크게 외우자.”라고 하셨다.
36.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라는 말씀이 들렸다.
37. 일단 소원해진 두 남녀를 다시 연결한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
38. 그 대학은 기혼 여성의 입학이 허락되지 않았다.

39. 이 고대의 협동과 단합은 왜 스밀로돈, 마스토돈, 거대하고 털이 많은 무소, 그리고 다른 수십 종의 커다란 포유동물들이 그들의 서식지에 현생인류가 당도하면서 멸종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를 설명해준다. 그들은 우리의 조상들에 의해 쟁그리 죽임을 당했던 것임에 분명하다.
40. 파주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수돗물 공급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당 아파트 수돗물 공급 중단이 우려되오니 입주민 여러분께서는 수돗물 사용량을 조금씩 아껴서 공급 중단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41. 이런 학생들에게는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학습 방법이 요구된다.
42. 무릎 부상에서 회복된 김경호 선수가 뽀뽀 나는군요.
43. 특급 호텔 요리사가 엄선된 재료만을 사용하여 직접 만듭니다.
44. 전통문화의 이해와 전승이라는 대내적·과거전승적인 교육 효과와 원활한 언어생활과 가치의 창조라는 현실적인 필요 및 국제화와 민족의 번영이라는 대외적·미래지향적인 교육 효과...
45. 후키야 교수는 “아동학에서 반항기는 아이가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데 있어서 불가결한 과정이다.”고 밝혔다.
46. 주금 가장납입이란 기업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증자대금을 은행계좌에 일시 입금시켰다가 증자가 끝난 즉시 빼내는 것을 말한다.
47. 로즈마리는 피로를 해소하고 심신의 균형을 유지시켜준다.
48. 정부 산하 기관의 임직원이 마냥 퇴직 공무원을 위한 낙하산 자리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이들 기관의 경영효율과 경쟁력 향상을 기대하는 것은 요원하다.
49. [문]다음은 어느 학급 학생들의 멀리뛰기 기록을 나타낸 도수분포표이다. 이 표를 보고 도수분포곡선을 그리면 어떤 모양이 되겠나.
50. [문]다음 도수분포표를 보고 도수분포다각형을 그려라.

51. [문]다음은 한 학급 학생들의 성적을 나타낸 것이다. 평균을 구하여라.
52. 용무가 계신 분은 관리실을 경유하시기 바랍니다.
53. 한번 나서시면 쉽지 않은 길이니 다음부터는 오시지 마십시오.
54. 그가 입고 있는 와이셔츠는 소녀의 이빨처럼 희었다.
55. 고객의 만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6. 초등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공사장 담벼락과 버스정류장 사이 좁은 인도를 피해 차도로 내려서다 잠깐 실수로 넘어졌다.
57.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13일 한양대에서 가진 국가정책 세미나에서 김용태 교수는 국가 발전의 새 목표로 ‘여유 있고 반듯한 사회’를 제시했다.
58. 당장이라도 고향에 있는 부모님에게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59. 유럽의 마지막 자연의 땅이라 불리우는 알자스 지방의 아름다운 보석, 콜마르에서 참된 평화의 시간을 가져 보자.
60. 그는 비 오는 날을 빼놓곤 매주 일요일마다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61. 그는 어릴 때부터 책 읽는 습관을 통해 철학적인 사유체계를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해한다.
62. 산길을 휘돌아간 오솔길을 허위허위 걷는데 낮익은 새소리가 들려왔다.
63. 부모님이 안 계신 그에게는 두 살 위 누나가 거의 유일한 의지의 대상이다. 그리고 또 한 명, 부모님을 대신하여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를 지켜보는 이가 있다.
64. 그가 나비를 수집한 지도 어언 60여 년이 다 되어간다.

65. 출장이나 여행으로 외국을 나갈 때마다 하나둘 사 모으기 시작한 것이 천여 점을 넘어선다.
66. 그의 수집품들은 영화의 역사인 동시에 인류가 걸어온 지성과 감성의 발전사에 다름 아니다.
67. 용돈 기입장을 작성하는 것은 어린이 경제교육의 첫걸음이다.
68. 주식회사 창해가 저희 사회를 좀 더 살기 좋은 사회로 변화시키고자 기획한 전국자원봉사대회가 올해로 8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69. 김민아 씨는 자신의 어려운 경험을 훌륭하게 극복하고 지금은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상담을 해주고 있다.
70. 고객님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를 회사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71. 내실 위주의 경영과 고객에게 보험금을 언제나 지급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중시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72. 음주탑승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계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3. 이것이 둘 간의 첫 상견례이다.
74. 그 작은 바람마저도 가난한 집 자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좌절되고 만다는 이야기 역시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75. 이러한 현상이 빚어진 데는 결벽에 가까울 정도로 유별난 그의 장인정신이 원인으로 작용했으리라 생각된다.
76. 성실한 작가, 최인호의 매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

편집: 김문오(국립국어원 국어능력발전과 학예연구관)

국립국어원 2010-03-25

## 교정 교열의 원칙과 실제

---

2010년 10월 26일 인쇄

2010년 10월 29일 발행

발행인: 권재일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길 148(방화3동 827)

<http://www.korean.go.kr>

전화: (02) 2669-9733